

연구보고서 2006-22-5

# 인구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이삼식 정경희  
신인철 김정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머 리 말

우리나라는 1950년대 이전 출산율이 높았으나 사망률도 역시 높아, 인구증가율이 낮은 전기균형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 시기 한국인구는 한국 근대사의 주요 특징으로서 해방 이후 망명인사들의 대거 귀국과 한국전쟁 전후 남북한 간 이동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고출산과 고사망으로 인하여 인구구조는 젊었다. 이후 보건의료 수준의 발달로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며, 1960년대 이후에는 강력한 인구증가억제정책과 사회발전의 영향으로 인하여 출산율이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출산율은 급기야 1983년에 인구대체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1.5~1.8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되면서 저출산현상이 고착화되었다. 즉, 한국인구는 인구변천이론 상 후기균형상태에 근접하였다.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의 경기불안과 고실업 및 대규모 비정규직 출현으로 인하여, 출산율은 다시 급락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이래 우리나라는 초저출산현상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저출산현상의 지속은 인구고령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그 영향은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복합사회시스템에서 인구의 불균형은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평균수명 상승으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이들을 부양하여야 할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 현상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그로 인하여 노동인구의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복지가 위협받게 되며, 더 나아가 세대간통합(intergenerational solidarity)이 손상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저출산현상의 장기적 지속은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를 야기하고, 소비·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인구현상은 단순히 인구학적 사상(event)의 변동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즉, 출생, 사망, 이동 등 인구동학적 요인들의 변화는 사회, 경제, 문화 등 제반 현상과 불가분한 관계를 가지며 영향을 받게 된다. 일례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정부는 사회·경제·문화 등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을 마련한 바 있다.

인구는 고정적이기 보다 사회·경제 현상과 문화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생물체로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현재에도 변화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어김없이 변화할 것이다. 인구는 국가 존재의 근원이자 목표가 된다. 따라서 지구상 어느 국가도 예외 없이 인구변동 자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현상과의 관계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구변동요인 변화를 진단하고, 향후 변동을 예측하는 한편, 인구동학적 변동과 사회경제현상 변화간의 연관성을 심층분석하여 인구정책뿐만 아니라 보건정책, 복지정책, 노동정책, 주택정책, 조세정책, 이민정책, 여성정책 등 수립 및 평가·환류의 기초 자료 생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새로마지플랜에 인구패널 구축을 주요 인프라로 포함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예비조사에 이어 2008년부터 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는 인구패널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향후 인구패널 구축을 사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내패널들의 목적, 조사주제 및 조사문항, 조사대상, 표본설계 및 가중치, 조직 및 인력 등을 비교 분석하여 인구패널의 위치를 검토하고, 인구패널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진은 이 보고서를 읽고 조언해준 본 원의 장영식 박사와 여유진 박사에 감사드리고 있다.

200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문

## 목 차

요 약 .....	13
제1장 서론 .....	34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4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37
제2장 선행연구 고찰 .....	38
제1절 패널의 특성에 관한 고찰 .....	38
제2절 인구동학요인-사회현상 연관성 고찰(출산 사례) .....	40
제3장 외국의 주요패널 사례 .....	44
제1절 미국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	44
제2절 영국 BHPS(British Household Panel Study) .....	48
제3절 캐나다 SLID(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 .....	52
제4장 국내패널 비교분석 .....	55
제1절 비교분석틀 .....	55
제2절 국내패널의 목적 및 대상 비교 .....	58
제3절 패널의 조사주제 비교 .....	66
제4절 패널의 표본 설계 및 가중치 부여 .....	75
제5절 패널의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	87
제6절 패널의 조직·인력 및 표본관리 .....	93
제7절 국내패널 비교분석의 시사점 .....	97

제5장 한국인구패널 구축 방향 .....	99
제1절 인구패널 구축 배경 및 목적 .....	99
제2절 인구패널 조사주제 설정방안 .....	109
제3절 인구패널 조사대상 설정방안 .....	119
제4절 인구패널 조사방법 방안 .....	125
제5절 인구패널 조사수행체계 방안 .....	127
제6장 결론 .....	130
참고문헌 .....	137
부록 .....	141

## 표 목 차

〈표 3- 1〉 미국 PSID의 핵심주제 .....	45
〈표 3- 2〉 미국 PSID의 추가된 주제 .....	46
〈표 3- 3〉 영국 BHPS의 주요 주제 .....	48
〈표 3- 4〉 영국 BHPS의 주요 조사내용 .....	49
〈표 3- 5〉 영국 BHPS의 조사응답률(1차 웨이브) .....	51
〈표 3- 6〉 캐나다 SLID의 주요 조사내용 .....	52
〈표 3- 7〉 외국의 주요 패널 비교 .....	54
〈표 4- 1〉 비교분석대상 국내 패널, 2006년 기준 .....	56
〈표 4- 2〉 비교분석대상 국내패널의 기본목적 및 조사대상, 2006년 기준 .....	64
〈표 4- 3〉 비교분석대상 국내패널의 주요 조사항목, 2006년 조사 기준 .....	71
〈표 4- 4〉 국내 패널조사의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방법 비교 .....	78
〈표 4- 5〉 한국노동패널조사 및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의 가중치 비교 .....	83
〈표 4- 6〉 Duncan의 가중치와 사용방법 .....	84
〈표 4- 7〉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가구가중치 및 개인가중치 특성 .....	86
〈표 4- 8〉 고령자연구패널 3차 예비조사 결과 .....	89
〈표 4- 9〉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가구구성원 추적조사 원칙 .....	90
〈표 4-10〉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각 연도 조사방식별 분포 .....	90
〈표 4-11〉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실사 개요 .....	91
〈표 4-12〉 국내 주요 패널조사의 조직 및 인력 구성(2006년 12월 현재) .....	93
〈표 4-13〉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연도별 인력 변화(2006년 12월 현재) .....	94
〈표 5- 1〉 국내의 인구관련 자료 현황 .....	103
〈표 5- 2〉 사회환경과 개인·가족 형태 및 인구현상간의 관계 예시 .....	110
〈표 5- 3〉 인구패널의 특별조사 주제(안) .....	116
〈표 5- 4〉 인구패널 조사대상 검토 .....	121

〈표 5- 5〉 기존 표본가구와 대체표본가구간의 응답률 차이: 독일의 가구패널조사(GSEP) 사례 .....	121
〈표 5- 6〉 외국패널의 응답률 .....	123
〈표 5- 7〉 패널데이터 표본관련 이슈 .....	124

## 그림목차

[그림 2-1] 인구동학요인(출산)과 사회구조적 요인간의 연관성에 관한 모형 .....	43
[그림 4-1] 한국노동패널조사의 2차년도 이후의 가중치부여 절차 .....	85
[그림 4-2]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의 조사 과정 .....	92
[그림 4-3]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2005년도)의 실사전 표본 유지활동 .....	96
[그림 5-1] 인구현상과 사회현상간의 인과관계적 순환모형 도시화 .....	111
[그림 5-2] 인구패널 분석틀 .....	113
[그림 5-3] 인구패널 기본조사주체 모듈(안) .....	114
[그림 5-4] 인구패널 조사수행체계(안): 연구기관에 조사조직을 두는 방안 .....	128



## 부표목차

〈부표 1- 1〉 청소년패널조사의 주요 설문문항, 2006년 기준 .....	141
〈부표 1- 2〉 한국교육종단연구의 주요 설문문항, 2006년 기준 .....	144
〈부표 1- 3〉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의 주요 설문문항, 2006년 기준 .....	146
〈부표 1- 4〉 청년패널의 주요 설문문항, 2006년 기준 .....	152
〈부표 1- 5〉 대졸자직업이동경로분석의 주요 설문문항, 2006년 기준 .....	160
〈부표 1- 6〉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주요 설문문항, 2006년 기준 .....	165
〈부표 1- 7〉 한국복지패널의 주요 설문문항, 2006년 기준 .....	172
〈부표 1- 8〉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주요 설문문항, 2006년 기준 .....	177
〈부표 1- 9〉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주요 설문문항, 2006년 기준 .....	194
〈부표 1-10〉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주요 설문문항, 2006년 기준 .....	199



Abstract

## Study on National Population Dynamics Panel(NPDP)

Since the mid-1980s when the fertility reached the replacement level, the policies and organizations had been declined and the academical interests and investments had been decreased, which resulted in the current lack of database on causes and repercussions of population change. The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become a serious threat to the future society and the future population will be more dynamic due mainly to continuation of low fertility phenomenon, acceleration of population ageing, increase in international marriage and migration, etc.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statistical infra is needed to be established to identify causes and repercussions of population dynamic in the course of growing, schooling, working, marriage, divorce, pregnancy, child birth, child rearing, migration, morbidity, death, etc. in relation with socio-economic and cultural change.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ed at exploring the methods of establishing the NPDP in a rather effective way.

Firstly, the analytical purpose of NPDP is 1) to link between demographic phenomenon and socio-economic phenomena, 2) to measure change in decisions and behaviors of individuals and families with time, policies and environments, and 3) to effectively eliminate the invisible variables in demographic analysis and policy evaluation. The policy purpose of NPDP is 1) to utilize as the basis data for the population surveillance system, 2) to monitor the population change, identify its socio-economic causes, project its repercussions, and provide these for establishing the appropriate policies, and 3) to provide the fundamental basis for policy evaluation and feedback.

Secondly, in the NPDP the main survey and the additive survey are to be

simultaneously conducted. The subjects of the main survey can be produced from the causal-cyclic model among components linking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phenomena such as societal structural factors, behaviors of the individuals and family, demographic vital factors, and population change. They are to include community, residing environments, family income, child rearing and education, economic activity, family relationships, social welfare, social security, social policies, etc. as societal structural factors; values as behaviors of the individuals and family; and marriage, pregnancy, fertility, migration(internal and international), health, morbidity, death, etc. as demographic vital factors. The subjects of additive survey are to include the elderly's life, migration, quality of life, nurture, education and training, etc.

Thirdly, the NPDP is to be conducted by two types of questionnaires for household and individual. The proxy response is to be allowed under special circumstances. In principle, the original sample households and individuals need to be surveyed in pursuit; it needs to take into considerations feasibility, budget, etc. The population can be the whole EDs(or ordinary households) of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and the sampling scale needs to be determined, taking into considerations budget, number of questions, sample attrition rate, representativeness of the basic analysis, etc.

Fourthly, the NPDP is to adopt interview method by enumerators and to consider CAPI in speeding-up and increasing the reliance of the survey result.

Fifthly,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for the NPDP is to take into considerations two ways such as unified system and dural system of planning-analysis section and field management section.

In conclusion, the NPDP will be established through the comprehensive preparations in 2007. Above all, securing the stable organization and professional personnel is of great necessity. Lastly,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 help for the preparatory work of NPDP.

# 요 약

## I. 연구 배경 및 목적

- 한국 인구는 저출산·저사망의 지속으로 인하여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등 구조상 불균형 심화 전망 및 이로 인한 미래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 예상
  - 노동력 부족 및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미래의 성장동력 기반 붕괴
  - 사회보험 수급자 급증과 세입기반 감소로 사회보장 부담 증가 및 정부의 재정수지 악화
  - 대내적으로 잠재성장률 둔화, 대외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구현 곤란 및 삶의 질 저하
- 정부의 체계적·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현상과 사회경제현상간의 인과관계 파악 등 정책 수립·평가·환류의 과학적 기반 마련 시급
  - 이를 위해서는 인구현상 변화와 사회경제현상간의 인과관계 등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체계 구축 긴급
  -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5~2010)」에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인구패널 실시 포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패널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
  - 인구패널의 개념과 필요성 정립
  - 국내외 각종 패널들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인구패널 구축 방안 제시 등

## II. 선행연구 고찰

### 1. 패널 특성

- 패널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 시간동안 간격을 두고 인터뷰를 한 개인의 그

룹에 대한 장기적인 통계연구”

- 패널연구란 횡단면적인 단위(예, 개인, 가구, 기업, 산업, 국가)의 표본을 추출하고 표본 구성원들을 복수년도에 걸쳐 관찰·조사하면서 여러 가지의 정보를 얻는 행위로 정의(신동균, 1998)
- 패널자료에 대한 이용가능성의 증대는 지난 30년간 응용사회과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전(이상호, 2006)

□ 패널의 기능 내지 역할

- 패널자료를 통해 시간의 경과 및 정부정책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인 또는 가구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양식이 어떻게 변동하여 가는지 그 동태적 변화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으며, 횡단면자료에서는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간의 변이과정을 이해(금재호, 1998)
  - 경제현상의 분석, 정책의 효과성, 노동시장의 분석 등을 가능하게 하며 특정 기간의 효과, 특정연령 효과, 동시대생 효과 등에 대한 분석 가능
- 미시적인 단위(개인, 가구, 기업)의 동태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사회·경제적인 변수들의 상호 연관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혹은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관찰 불가능한 변수들을 효과적으로 제어(신동균, 1998)
- 패널자료는 다른 환경(상황) 아래에 있는 동일한 개인을 비교함으로써 그/그녀 자신의 개인적인 통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허용해 이상적인 실험 상황에 근접(Deaton, 2000)
- 패널자료는 다양한 이슈들을 광범위하게 다루면서도 시간의 경과나 환경의 변화에 따른 동태적 변화 및 상태간 변이과정을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관측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통제하므로 보다 엄밀한 조건에서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효과 측정(이상호, 2006)

## 2. 인구변동과 사회경제현상간의 관계성에 대한 고찰

□ 결혼 및 자녀 출산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 대부분 여성들은 풀타임 직업 및 승진을 추구하는 동시에 가사와 자녀 양

- 육을 맡으나, 일반적으로 결혼 및 자녀 출산시 취업 중단(Atoh, 1998)
- 이들 여성이 자녀성장 후 재취업을 원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직업/소득을 가지는 것이 아주 어려움
  - 가족 내 가사 및 자녀양육에 대한 부부간의 분담 불공평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가사에 대한 남성의 역할이 변화하지 않고 있어, 자녀양육과 일간의 양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결국 여성은 만혼/만산 및 소자녀/무자녀 선호(Beets, 1997)
  - 고용상태의 불안정 및 불경기
    - 영국에서 1970년대 초이래 직업의 불안정으로 인해 출산율이 저하된 바 있으며, 스웨덴에서는 경기와 출산율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Hoem과 Hoem, 1996)
  -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증가
    - 취학 전 교육부터 대학까지의 교육에 드는 비용이 엄청나므로 부부는 양보다 질을 우선시 여겨 저출산 심지어 무자녀 선호(Atoh, 1998)
    - 자녀양육이 주거, 교육 등의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모의 소득활동기회를 상실시키는 간접비용 발생(Roussel, 1994)
  - 사회·문화적 원인
    - 경제성장으로 생활이 풍족해지면 안정주의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지배적으로, 젊은 미혼층의 소비활동이 급격히 증가하여 결국 결혼과 출산 연기(Lesthage et al, 1988)
    - 부모의 집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에 다니고 일상생활을 어머니에 의존하며 소비생활을 즐기고 가족부양의무를 지지 않는 귀족적 미혼(aristocratic singles) 또는 기생충적 미혼(parasite singles) 증가(Atoh, 1998)
    - 소득을 중요시하는 물질주의 만연과 개인주의 사상은 자녀 출산에 대한 이익을 찾지 못하는 여성들의 출산 감소 또는 무자녀 경향을 증대시킨다는 연구도 있음
    - 문화적 효과(cultural effects)로 사회계층간 규범의 차이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침(Roussel, 1994)

- 역사적 동태 및 생활주기 효과(historical dynamics, life style factors)로 출산 행태가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해 경험된 전기적 모델(biographical model)에 의해 영향을 받음(Roussel, 1994)

### III. 외국의 주요 패널 사례

#### 1. 미국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 존슨대통령 재직시 빈곤에 대한 전쟁의 일환으로 OEO(Office of Economic Opportunity)는 통계국에게 국민의 경제적 복지 수준을 얼마나 향상시켰는가를 평가
  - 미시간대학 부설 SRC(Survey Research Center)에서 SEO(Survey of Economic Opportunity)의 권유로 SEO자체의 표본에서 저소득계층 약 2,000가구를 추출하여 조사한 것이 출발점
- PSID 핵심 주제
  - 소득, 빈곤층, 가족구성, 고용, 가사, 주거 및 사회·경제적 배경 등
    - 인구동학적 주제들로 출생, 사망, 결혼, 이혼, 재혼 등에 의한 가족구성의 변화, 친족망, 10대 임신부 등 포함
    - 공공요금, 교통이용 상황, 육아, 보건 등 추가주제 포함
- 표본설계
  - 원표본 규모는 5,000가구로 추가표집에 따라 2001년에 두 부분으로 분리
    - 원표본 유지 위해 추적조사 원칙
- 조사방법
  - 1993년부터 컴퓨터에 설문지 프로그램을 내장하여 전화로 수집된 정보들을 면접원이 입력하는 CATI방식으로 이행

#### 2. 영국 BHPS(British Household Panel Study)

- 영국은 1991년부터 BHPS라는 가구패널조사 실시



- BHPS는 영국의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추세를 관찰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21세기 영국의 정치·사회·경제구조를 예측함으로써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목적
  - 1999년부터는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지역이 표본수 확대 및 잉글랜드와의 정부정책 효과성분석 위해 추가
- 주요 주제는 가구 동학, 노동시장, 소득과 부의 분배, 주거, 건강, 사회경제적 가치 등

□ 조사방법

- 가구용설문지는 가장 잘 아는 응답자, 개인용 설문지는 만 16세 이상의 모든 가구 구성원이 응답
- 9차년도(1999년) 조사부터 CAPI시스템 도입
- 기본적으로 모든 조사가 대면접촉 원칙. 단, 불가능할 경우 대리면접 허용
  -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설문에 대해 ‘자기기입식’설문도 사용
- 현장실사는 민간 조사업체인 NOP에 위탁
- 응답자 관리를 위해 현금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상품권 제공
- 표본 유지를 위해 원표본가구 구성원 모두 추적 조사(미국 PSID와 동일)

3. 캐나다 SLID(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

□ 캐나다 통계청은 1980년대 후반 개인 및 가족의 노동시장활동에 관한 LMAS(Labor Market Activity Survey)을 발전시켜 현재의 SLID 구축

- 동 패널은 소득, 노동시장, 가족 등의 다방면에 걸쳐 그 동태적 변화의 양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기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실업, 임금, 직장생활 등에 관한 다양한 횡단면 자료 제공
- 주요 주제는 고용 및 실업의 동태적 변화, 노동시장에서의 이동과정, 직장생활, 가구경제의 동태적 변화, 저소득층 가구의 동태적 변화, 가족사, 학교와 직장의 연계 등

□ 조사방법

- 모든 연령을 포괄하되, 노동 및 소득 관련 조사는 15세 이상만 대상
- SLID 표본은 두 개의 하위패널로 구분, 각 패널은 두 LFS 순환집단으로 구성되며 약 15,000가구를 포함
  - 한 패널이 6년 동안 조사되며, 새로운 표본이 3년마다 교체. 따라서 두 패널들은 항상 조사기간이 중첩. 결국 다른 가구패널조사와는 달리 SLID의 원표본은 6년이 지나고 나면 완전 교체
  - 표본가구는 6년 동안 최대 12번 면접 수행
- 1993년부터 CAI 이용, 설문지 설계. 2001년 1월 CATI설문지 완성
- CATI 조사로 인한 면접원과 조사팀과의 괴리감을 없애기 위해 면접원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조사 후 면접원에게도 감사편지 발송

#### IV. 국내패널 비교분석

##### 1. 비교분석틀

□ 비교분석 대상 국내패널 선정

- 2006년 현재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패널들로서 개인 및 가구 대상 패널
  - 기업·사업체 패널, 민간패널(대우패널 등), 기 종료 패널, 아직 예정 중 또는 미정인 패널 등 제외
- 대상 패널(10): 청소년패널조사, 한국교육중단연구, 교육고용패널, 청년패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복지패널, 여성가족패널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 2. 국내패널의 목적 및 대상 비교

□ 청소년패널조사(초4와 중2 대상, 한국청소년개발원)

- 청소년의 향후 진로설정, 진로준비, 여가, 일탈행위 등의 태도나 행위의 기

초자료 확보

-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청소년들에게 취미·적성·능력에 적절한 진로지원대책 수립 자료
  - 충분한 사회화 경험위한 여가활동지원 대책 수립 자료
  - 성장과정에서 시행착오 최소화위한 사회문화적 지원대책 제시
- 한국교육중단연구(중1 학생, 학부모, 교장, 교사 대상, 한국교육개발원)
  -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 과정, 학교교육 효과, 교육정책 효과, 입시제도와 교육기회 획득, 사회적 지위획득과 사회이동, 삶의 질 등 연구
  - 교육정책 수립과 국가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중3과 고3, 담임교사, 학교행정가 대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청년층의 교육관련 정보 구축
  - 진학, 진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관련 연구 수행
  -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의 노동생산성과 취업 등 경제적 성과에 기여정도 실증적 자료 구축
  - 인적자원개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청년패널(일반가구의 15~29세 개인, 한국고용정보원)
  - 청년실업 해소 위한 노동정책의 수립 및 관련 연구 발전
  - 청소년의 학교생활, 사회·경제활동, 가계배경 등 파악
    -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서 필요성 인정, 노동부의 인력수급전망 인프라구축방안 과제로 고용보험에서 예산 지원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04.8 및 2005. 2 대졸자, 한국고용정보원)
  - 교육-노동시장간 신뢰성 있는 인력수급정보 정보 구축
  - 인력수급 불일치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 ※ 2004.11 국무조정실 ‘인적자원개발·연구개발기획단’에서 인력수급체계 개선 과제로 제시 2005.10 국무조정실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5)」, 노동부 「인력수급인프라구축」 사업 일환으로 채택
- 한국노동패널조사(도시가구 15세 이상 개인 대상, 한국노동연구원)

- 분석적 노동연구 활성화 및 고용정책 수립·평가
- 가구원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 파악
- 한국복지패널(중위소득 60% 이하 3,500가구와 60%이상 3,500가구 대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 등 동태적 파악
  - 정책 지원 및 이의 효과성 제고
  - 정책효과성 평가 및 정책형성과 환류에 기여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활패널, 차상위·빈곤패널과 서울대 복지패널 통합 구축
- 여성가족패널조사(일반가구의 19~64세 여성가구원과 배우자 대상, 한국여성개발원)
  -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파악, 여성의 일과 가족의 변화 실태 파악 등 정책자료 제공
-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일반가구의 중고령자 45세 이상 개인 대상, 한국노동연구원)
  - 고령화관련 정책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 마련
    - ※ 고용보험기금 출연금(노동부 지원)
-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일반가구의 50세 이상 가구원 대상, 국민연금연구원)
  - 퇴직 전후 생활수준 변화과정, 퇴직준비 상황, 연금이 저축과 근로에 미치는 영향 등 파악
  - 국민연금의 장기적 발전방향 모색, 고령화대책수립에 기초자료

### 3. 패널의 조사주제 비교

- 가구단위 조사주제는 가구변동, 가족관계, 주거환경, 보육실태, 가구(가족)경제 등으로 패널간 대동소이하나, 설문문항의 수와 내용(깊이)에 차이 존재

- 가구변동 조사주제의 설문문항들로써 가구원의 기본적 인적사항, 비동거 가구원 인적사항, 가구변동(신규가구원 발생 및 기존가구원 탈퇴) 등 포함
  - 청소년패널조사 등 개인패널의 경우 가구원 사항을 불포함
- 국내 패널 대부분은 가족관계 조사주제 포함
  - 교육관련 패널들의 경우 학생의 보호자 배경(학력, 직업, 소득 등) 등 조사
  - 경제활동과 노후보장관련 패널들은 배우자의 특성, 노부모 또는 자녀와의 접촉빈도와 경제적 상호교환, 건강상태와 수발관계 등 설문문항 포함
  - 일부 패널은 형제자매 관계, 가족관계 네트워크, 가족간 교류와 등 포함
- 국내 패널 대부분 주거환경의 조사주제 포함
  - 구체적인 설문문항들로 과거 거주지, 이사계획·이유, 주택유형, 소유여부, 임차형태, 임차료, 주택 명의자 등 포함
  - 한국복지패널은 주거복지에 중점을 두고 주거시설현황, 주거서비스수준, 복지욕구 등 많은 설문문항 조사
- 보육실태의 조사주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복지패널, 고령화연구패널 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 등에서 취급
  - 그러나 보육관련 전문적·세부적인 설문문항보다 다른 주제와의 연관분석을 위해 부분적으로 포함
- 국내 패널 대부분은 가구(가족)경제의 조사주제를 포함하여 소득, 자산·부채, 소비·지출 등에 관한 설문문항 조사
  -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노후보장과 관련하여 자산 등에 관한 상세 조사
- 한국교원종단연구는 학교조사주제를 포함하여, 학교현황(교원현황, 예산현황, 수업방식 등)과 교장과 교사의 인적사항, 태도 등 조사
- 개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 국내패널들은 조사대상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 연령, 학력, 혼인상태, 군복무경험, 생활만족도 등 조사
- 학교생활·가정생활·사회생활 조사주제
  - 교육관련 패널들은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에 중점
    - 학생·부모관계, 학교수업, 여가활동(자원봉사, 아르바이트 수련, 동아리, 캠프

퓨터·휴대폰 이용, 친구 등), 용돈, 성적, 수업방식·이해도, 학습방법·능력, 학습태도, 근로경험, 학교·전공, 독학, 건강생활, 고민·이탈행위, 등록금, 편·입학·전학·휴학, 학비부담, 해외연수 등 조사

- 노동관련 패널들은 졸업한 학교생활, 재학학교, 경험 일자리, 어학연수 등 노동시장 진입이전 단계 정보 조사
- 노후보장관련 패널들은 자원봉사, 기부금, 종교, 친구·친인척 친밀성, 사회단체활동 등 사회생활에 중점
- 일부 패널들은 사교육관련 과목, 시간, 비용, 부담, 효과성 조사
  -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는 EBS 수능특강 시청여부, 시간, 소감 및 평가에 관한 항목 추가 포함
- 여성가족패널조사는 부부관계(만족도, 결정권, 형평성, 성생활, 갈등, 이혼 고려 등), 가사노동(시간, 노동자, 비용, 부분부담, 갈등, 환산비용 등),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간의 영향, 일에 대한 의견, 여가활동, 차별경험, 성희롱 경험 등 가정과 사회 일반에서 경험한 사항 조사
- 진로·직업교육훈련 조사주제
  - 청소년패널조사, 한국교육종단연구,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청년패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는 교육-노동시장 연계와 관련하여 희망 학교급·직업·산업(사업체규모, 중소기업기피), 진학계획, 진로준비, 진로관련 태도, 자격증, 진로정보 접근성, 교육지속성(휴학·복학·중퇴), 해외연수·유학, 군입대, 교육훈련, 현장실습, 업무수행능력 등 조사
- 경제활동 조사주제
  - 국내패널에서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와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보다 전문적·심층적 조사
    - 조사대상이 청소년인 경우에도 교육-고용 연계를 위해 노동시장 진입관련 의향, 일시적 일의 경험 등 질문
    - 고령화연구패널조사와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는 은퇴전후 소득활동과 연계
  - 경제활동 조사주제의 질문항목은 취업 준비, 비취업(구직활동), 비경제활동자,

취업 등으로 구분

- 취업자 관련 항목들은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자영업)로 세분화: 지난 1주간의 일자리(종사상지위, 직위, 업종, 근무시기, 직위, 고용형태, 종사상지위, 근무형태, 기업체유형, 사업장규모, 근로계약, 사회보험, 근로시간 규칙성, 정규·초과근로시간, 임금·수당, 임금방식, 성과급제, 노동조합, 교육·기술의 직무 적합성, 학력·전공·기술 적합도, 정규학교의 능력 향상, 임금체불, 복리후생, 구직방법, 직무만족도, 은퇴계획 등), 주된 일자리의 계속성 여부(진학·이직 계획, 준비 등) 등 조사
- 비취업자 관련 항목들은 일자리경험 일거리, 퇴직, 구직활동, 희망일자리, 희망수입, 구직기간, 구직방법, 구직어려움, 자활지원프로그램 유형별 필요성 및 참여정도, 노동제한 원인 등 조사
- 인구동태 조사주제는 여성가족패널조사만 부분적으로 취급
  - 여성의 결혼력, 출산력, 자녀관, 피임, 인공유산, 이혼별거, 입양, 가치관(결혼, 자녀, 성평등) 등 조사
- 건강 조사주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 집중되어, 주관적 건강, 장애판정, 활동제한, 만성질환, 건강상태, 운동, 영양, 흡연, 음주, 우울증, 신체계측, 일상생활 능력, 도구적 일상 활동 수행능력, 간병수발 현황, 의료보장, 의료시설이용, 지남력·악력 등 조사
  - 다른 패널들의 경우에는 극히 부분적으로 조사
- 사회보장, 노후준비 조사주제
  - 한국복지패널에 집중되어, 생활여건 및 주관적 생활수준, 기초보장 수급현황, 각종 사회보험 유형별 가입여부, 미납이유, 급여현황, 노인·아동·장애인·가족 등 분야별로 서비스의 필요성, 이용경험 및 만족도 등 포함
  - 다른 패널들은 부분적으로 조사
- 어느 한 패널에서도 교육, 직업교육훈련, 학교생활, 가정생활, 사회활동, 경제활동(노동시장), 결혼·출산, 건강생활, 사회보장·복지, 노후보장 등을 모두 다루고 있지는 않음.
  - 각 패널은 여러 조사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나, 이는 중점주제와의 연관분석

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설문문항의 구성이나 내용(깊이)은 차이 존재

- 일부 패널들 간에 조사주제와 조사항목이 유사 또는 동일하나, 중점 주제 및 설문문항들은 고유성 및 차별성 존재

#### 4. 패널의 표본 설계 및 가중치 부여

##### 가. 표본설계방법 및 표본추출

- 청소년패널조사, 한국교육중단연구,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 모집단: 전국 중2학년·초등4학년청소년패널조사, 중1학년(한국교육중단연구), 중3학년·고3학년(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 표본추출틀: 2003년 또는 2004년 교육통계연보
  - 표출방법: 층화다단계집락표출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 모집단: 전국 전문대 이상 졸업생
  - 표본추출틀: 한국교육개발원의 졸업생취업조사
  - 표출방법: 층화무작위추출법
- 청년패널,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복지패널, 여성가족패널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 모집단: 전국 일반가구(단,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도시조사구 도시가구)
    - 청년패널 15~29세 가구원
    - 한국노동패널조사 15세 이상 가구원
    - 여성가족패널조사 19~64세 여성 가구원과 기혼여성의 배우자
    - 고령화연구패널조사 45세 이상 개인
    -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50세 이상 개인
  - 표본추출틀: 인구주택총조사
    - 1995인구주택총조사(청년패널, 한국노동패널조사)
    - 2000인구주택총조사(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 2005인구주택총조사(한국복지패널, 여성가족패널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 표출방법: 층화다단계집락표출(단, 청년패널은 무작위추출법)

나. 가중치 부여

- 패널의 가중치 부여방법은 1차년도 조사와 이후 조사간에 차이 존재
  - 모집단의 성격(가구, 개인)에 따라 차이 존재
- 가구패널(한국노동패널조사)의 사례
  - 최초 웨이브에서 가구차원의 가중치 산출
  - 최초 웨이브의 가구가중치를 모든 가구원의 개인가중치로 사용
  - 2차 이후는 가구원들의 응답률을 이용하여 개인가중치 조정
  - 개인가중치의 가구내 평균을 이용한 가구가중치 산출

5. 패널의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사례 중심)

가. 한국노동패널조사

- 조사방법: 면접타계식(조사원 직접면접조사) 원칙
- 조사대상: 가구용 설문과 개인용 설문으로 구분
  - 가구용 조사대상: 원표본 가구인 5,000가구와 원가구에서 분가한 신규 분가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 대상
  - 개인용 설문대상: 만 15세 이상의 개인
- 추적 조사 대상 및 방법
  - 1차년도 조사 당시 원가구원이 분가하여 새로운 가구를 구성하였을 경우
  - 조사기간 동안 유학, 출장, 여행, 입원, 실종, 행상 등의 이유로 함께 거주하지 않아 면접조사에 응할 수 없는 가구구성원
    - 실시기간 중 가구로 일시 또는 완전 복귀하는 사람(직접조사)
    - 가구로 복귀하지 않은 사람(전화조사)
    - 면접이나 전화조사가 어려우면서 현재 경제활동자(대리응답)
    -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응답할 수 없는 성인(대리응답)

- 면접이나 전화조사가 어려우면서 현재 비경제활동자(개인용 응답대상제외)

#### 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 조사방법: 면접타계식 원칙(PDA 사용)
- 조사대상: 학생, 학부모, 담임교사, 학교행정가(교감 또는 교무담당 교사)
  - 학교조사에 대한 승인 후, 표본추출원칙에 의거하여 선정된 반의 담임교사와 학생 조사, 이후 학생의 가구를 방문하여 보호자 대상 조사
  - 조사과정 중 설문대상이 부적합자이거나 거부 의사를 보여 설문 진행이 어려운 경우 대체원칙에 따라 설문대상 대체

#### 6. 패널의 조직·인력 및 표본관리

- 조직은 패널조사를 설계·주관하는 조직과 실사 담당 조직으로 구성
  - 주관기관 내 전담팀: 연구책임자 1인 + 연구진 2~6인
    - 한국노동패널(노동패널팀), 고령화연구패널(고령화연구패널조사팀), 청년패널(고용조사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고용조사팀), 교육고용패널(패널조사팀), 청소년패널조사(조사·미래연구팀) 등
    - 전담팀은 연구 설계 및 실사 전반을 총괄·기획
  - 패널조사의 실사는 외부의 전문조사업체와의 위탁계약을 통해 추진
    - 예, 한국노동패널조사(한국리서치), 고령화연구패널조사(TNS Korea) 등
    - 마케팅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조사업체들이 패널조사의 실사를 대행함으로써 인해 문제점 발생
- 표본관리: 화폐적·비화폐적 보상 실시
  -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전화접촉, 우편물 발송, 경품추첨, 거절표본 대상 설명, 관련 도서 발송 등
  - 청년패널: 노동부 공문, 조사 후 감사카드, 1만원 상당 선물(1~2차년도 조사 후)
  - 한국노동패널조사: 노동부 공문, 편지, 조사 완료 후 선물, 축하편지(가구원의 생일, 결혼기념일, 회갑 등), 소식지, 3만원 응답사례금(4차년도 조사부터)

## 7. 국내패널 비교분석의 시사점

- 지나친 패널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패널들 간의 목적, 조사주제, 모집단, 표본추출틀 및 표본추출방법 등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수행 연구기관간의 긴밀한 협의와 조정 필요
- 표본규모는 각 패널들이 조사 목적에 따라 주로 파악하고자하는 내용들이 대표성을 갖도록 설정
- 조사원에 의한 직접면접조사 방법은 조사 정밀도 제고와 표본관리 차원에서 중요
- 패널의 기획과 결과분석 등은 연구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고, 실사업무는 전문적인 조사기관에서 수행하는 이원적 체계 유지
  - 현재 국내에는 학술적인 전문조사기관이 부재하여, 학술패널들의 신뢰성 문제 우려
- 국내 패널들의 표본설계 및 자료수집방법 유사
  - 조사결과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패널 수행기관간의 공동연구 및 협의 체계 구축 필요
    - 그 일환으로 각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포럼 개최를 통한 경험과 새로운 지식의 상호 교류 필요

## V. 한국인구패널 구축 방향

### 1. 인구패널 구축 배경 및 목적

#### 가. 인구패널 구축의 배경

- 인구문제와 정책수립의 한계성
  - 과거 1960년대 이래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인구증가억제에 기여
  - 그러나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도달 후 인구정책의 방향성 상실 및 그로 인하여 저출산현상 고착화 및 초저출산현상 초래

- 저출산과 인구구조 고령화는 미래 한국사회의 커다란 위협 우려
- 정책의 불분명한 방향성과 실행은 인구변동과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미흡
- 인구변동과 사회현상간의 관계에 대한 인구감시체계(population surveillance system) 작동 마비
- 인구증가억제에 정책 집중 및 그로 인하여 출산율 급감의 성공에 도취
- 그 후 인구관련 정책과 조직이 쇠퇴해지고, 학문의 분야에서도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급기야는 인구 변동과 그 원인 및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고갈
- 지난 수십년 동인 인구변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의 부재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준 최근의 혼동과 향후 사회경제적 영향을 감안해 볼 때, 인구관련 진단 및 인구변동과 사회현상간 연계분석은 지속 필요
- 미래에는 저출산 지속, 고령화 급진전, 국제결혼 및 노동이민 증가 등으로 급격하고 다양한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되어, 이에 대응한 자료 구축 필요
- 기존 자료의 한계성
-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태, 표본조사 등 횡단면적 인구자료의 한계성
- 인구관련 횡단면적 조사자료는 인구규모와 구조 및 분포의 정지된 그림을 보여줄 수는 있으나, 인구변동 관련 정태적·동태적 통계조사의 제한적 항목구성으로 인구현상과 사회현상간의 종합적·시계열적 변화 분석에 한계
- 출산 등의 인구학적 요인과 개인의 경제활동참여 및 노동시장 이동과정, 소득과 소비 변화 등과의 관계를 동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한계
- 노후생활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관련한 분석을 위한 조사항목들을 불포함
- 국내의 다양한 패널조사는 특정한 영역과 집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인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항목(성, 연령 등)들만 포함
- 중장기적으로 성장,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이동, 질병, 사망 등 인구동학적인 차원에서 인구변동요인의 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예측하고, 인구현상과 사회현상간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는 부재

#### 나. 인구패널의 기본목적 및 장기비전

##### □ 인구패널의 분석적 목적

- 인구패널은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간의 연계 도모
- 시간의 경과 및 정부정책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 또는 가구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양식 변화 측정
- 인구동태 분석,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상호 연관성, 정책의 효율성 평가 등에 있어서 ‘관찰 불가능한 변수의 효과적 제어’

##### □ 인구패널의 정책적 목적

- 인구감시체계 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인구현상의 변동추이 파악, 사회경제적 원인 규명, 향후 변동 및 과급효과 진단 등을 통한 시의적절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 도출
  - 이를 통해 원인·수요에 적합한 정책의 수립이 가능하여 정책의 시의성, 비용효과성 내지 효율성 제고
- 정책 평가환류(feedback)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정책의 실효성 제고 등

##### □ 인구패널의 향후 발전 방향

- 장기적으로 인구패널은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패널과 국민의료비패널과 통합적으로 연계, 운영
  - 이러한 통합적인 운영은 동일한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표본규모를 증가시켜 인구, 보건, 복지의 다양한 주제의 유기적·통합적인 분석 가능
  - ‘인구·보건·복지 통합패널’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종합적인 자료 생성 가능

#### 다. 인구패널의 법적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 제23조 및 제29조

-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

-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②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 제29조(조사 및 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실시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저출산 원인분석, 사회경제적 변화와의 인과관계 규명 등 인구정책 수립·추진의 과학적 분석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구패널 구축 포함

## 2. 인구패널 조사주제 설정방안

- 기본조사와 특별조사(부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기본조사: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제
  - 일정한 주기 또는 특정 시점에 한정하여 발생하는 주제

### 가. 기본조사 주제

- 인구변동-사회현상간의 관계성은 형성하는 요소들은 사회구조적 요인, 개인 및 가족 행태, 인구동태적 요인, 인구 변동의 4가지 요인으로 구분
  - 4 요인들은 인과관계적인 순환고리 형성 (개인·가족 행태는 광의의 인구동태적 요인 포함 가능)
  - 인구패널의 기능 내지 역할은 4가지 요인의 인과관계적 순환모형을 통해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조사주제와 설문문항으로 구체화 가능
- 조사주제
  - 인구패널은 매년 실시하는 기본조사와 일정 간격의 특별조사(부가조사) 병행 실시
  - 기본조사 주제는 인구변동-사회현상간의 관계성을 형성하는 요소들인 사회구조적 요인, 개인 및 가족 행태, 인구동태적 요인, 인구변동의 인과관계적 순환모형을 통해 도출

- 인구패널의 분석틀로는 사회·문화·경제현상과 인구변동간의 상호작용 파악, 출산·양육 및 노후생활 영향 진단 등을 통한 적정 인구구조 유지, 성장동력 확보, 삶의 질 제고의 거시적인 국가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의 기초적 과학적 근거 제시
- 인구패널 분석틀에 입각한 조사주제 모듈(module)로는 개인·가구의 출산·양육(하위영역으로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성장·교육, 가치관, 취업, 결혼, 임신·출산, 보육, 교육, 안전, 건강 등)과 노후생활(하위영역으로 생활영역 기준에 의거 소득보장, 건강보장, 생활환경(교통·주거), 사회참여(문화·여가) 등) 포함
- 외생변수적인 조사주제들로 사회·경제변동, 제도·정책 변화, 사회규범 및 문화 변화 등 포함

나. 특별조사(부가조사) 주제

- 특별조사(부가조사)의 주제로는 노후생활, 인구이동, 삶의 질, 보육·교육·훈련 등을 고려하되, 기존의 횡단면적인 조사와 연계 실시

3. 인구패널 조사대상 설정방안

가. 조사 대상

- 조사대상: 표본가구 및 모든 가구원
  - 가구용설문서와 개인용설문서로 구분
    - 조사표는 가구원별 연기식으로 설계
    - 개인용설문서의 경우 가구의 대표응답자가 모든 가구원에 질문하여 응답하는 것을 원칙(다만, 일부 조건들에 한정하여 대리응답 허용)
- 조사대상 및 추적조사
  - 원표본가구: 원표본가구원, 원표본가구원의 출생아 및 결혼배우자
    - 추적조사: 원표본가구원의 결혼(분가), 이혼(별거), 이동(취업·취학 등) 등

- ※ 추적조사 여부는 용이성, 예산 가용성 등 종합적 고려
- 조사제외: 원표본가구 제외(이동 후 거주지 불명, 1인 원표본가구의 사망),  
원표본가구원 제외(조사 거부, 사망)
- ※ 표본대표성 유지 차원에서 가구 대체 검토

#### 나. 모집단 및 표본추출

- 표본추출틀: 통계청의 인구및주택총조사에서 파악한 보통조사구(일반가구)
- 표본규모: 예산 규모, 조사항목 선정, 표본이탈률, 기본하위집단 정보의 분석결과와 전국 대표성 등 종합적 고려
- 향후 검토과제: 관련 전문가들간의 충분한 검토 필요

#### 4. 인구패널 조사방법 방안

- 조사방법: 조사원 직접면접조사방법
  - 인구패널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응답자와의 친밀도(rapport) 형성, 유지 차원에서 중요
  - 직접면접조사에서 조사정도(精度)를 높이고 결과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적용 고려(단, 조사환경, 예산 등 충분 고려)

#### 5. 인구패널 조사수행체계 방안

- (1안) 연구기관에서 기획, 현장조사, 자료처리, 결과분석 등 전담(일원화)
  - 여러 패널과 조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규모경제의 효과성 제고 차원
    - 외부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 해소 가능
- (2안) 기획과 분석은 연구기관 담당, 현장조사는 외부조사기관 의뢰(이원화)
  - 규모경제의 효과가 없는 경우 독자적인 조사수행조직을 운영하는데 예산상 한계 존재



- 연구기관이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
- ※ 인구패널 담당 조직은 적절한 인력구조를 갖추고, 오랜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패널관련 전문가들을 정규직으로 채용 검토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인구변천 과정의 초기에는 출산율이 높으나 사망률 역시 높아 인구증가율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구도 아주 젊다. 이후 보건의료 발달로 사망률이 먼저 낮아지나 출산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사회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이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보편화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이 발생하면서 1960년대 초 합계출산율이 6.0명으로 아주 높았다. 그로 인하여 인구증가율이 3% 수준에 근접하여, 경제발전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1960년대 초 정부는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약 35년에 걸쳐 가족계획을 중심으로 한 출산억제정책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실시되었고, 전사회적 계몽운동의 성격으로 발전되었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제어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는 다른 한편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출산억제정책의 결과로서 소자녀관이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규범으로서 뿌리박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동의 역사를 면밀히 살펴보면, 정부 주도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을 중심으로 한 출산억제정책의 효과 등으로 인하여,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 2.1명)에 도달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래 약 10년 동안에는 1.6명 내외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때에도 미래에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재앙이 우리의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는 인식이 부족하였고, 오히려 출산억제정책이 강도 높게 계속되었다.

피임법의 보편적 보급으로 출산이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게 되면서, 많은

서구 학자들은 이론적으로 출산율이 아주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쉽게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현상의 회귀를 기대하면서 출산율이 실제 인구 대체수준 이하로 낮아질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한국사회에서 출산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제2의 출산율 감소'를 겪고 있다. 특히, 2005년도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 이론적으로 인구대체수준의 50% 정도에 이르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대체미만의 저출산현상을 이미 20년 이상 동안 경험한데다가, 최근 추이를 감안하면 그 추이가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1세기 이상의 긴 기간에 걸쳐 고출산사회에서 저출산사회로 이행한 것과 달리, 한국의 출산율 변천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그 수준이 아주 낮다는 데에서 더 큰 심각성이 있다.

저출산현상은 노동력 부족과 인구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 등 우리의 미래사회 전반에 거대한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선 노동 공급이 감소하여 노동력 부족이 심화될 것이다. 노동력 자체가 고령화되면서 노동이동성 감소, 신기술 분야의 인적자본 부족, 인력재배치 및 직업훈련의 효과성 감소 등으로 인하여 노동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래의 성장동력의 기반이 붕괴될 것이다. 노인인구 증가로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저출산으로 가입자가 줄어들어 사회보험의 안정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세입기반은 감소하나 사회보장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여 정부의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이다. 결국 저출산·고령화로 대내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구현이 어려워지고 개인의 삶의 질도 크게 저하될 것이다.

인구구조의 불균형으로 야기될 고령사회에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사회체질을 변경시키고, 성장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각종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인구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완화시키고 더 나아가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을 강화하여 가족과 사회·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제고하고,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를 확대하여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고령사회에서 증가하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개별 소득보장제도의 내실화를 통한 다층 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활동을 촉진하여 노인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치료·요양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주거·교통·여가·문화 등 각 분야에서 고령친화적 사회기반을 구축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노년생활의 활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여성·고령자·외국인력 등 잠재인력의 활용 기반 구축, 인력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노동력 손실을 예방하며, 고령친화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노인의 생활 편익 및 안전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노력들이 체계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구현상과 사회경제현상간의 인과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인구자질과 노후생활 및 인적자원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등의 정책 수립·추진의 과학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현상 변화와 사회경제현상간의 인과관계 등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로 인하여 저출산현상의 장간 지속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억제정책이 계속 지속되었으며,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기본계획의 수립에도 많은 어려움을 직면한 바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근 정부는 제1차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5~2010)에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인구패널 실시를 포함시켰다. 정부는 2007년에 인구패널 구축을 위한 준비사업을 실시하고, 2008년부터 본 조사(1차 웨이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구패널 구축은 한 번도 실시한 경험이 없는데다가 인구현상과 사회경제현상간의 연계를 도모하는 방대한 사업으로서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 현재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단위 패널조사의 경우 오랜 준비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강석훈, 2006).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인구패널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조사 이전단계에서부터 인구패널의 개념과 필요성을 정립하고, 사전조사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각종 패널들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인구패널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인구패널 구축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기존의 국내외 패널들과 목적 및 배경이 다르고 주어진 환경(자원 등)이 달라, 예비조사를 직접 거치지 않고서 표본추출 비율, 조사수행기관 등에 관한 방안들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제 2 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패널에 관한 이론 등을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국내외 주요 패널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구패널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 인구패널의 구축 방향을 제시한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건의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과 비교분석(comparative analysis) 및 전문가회의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적용하였다. 우선 국내외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패널들에 관한 문헌들을 조사하여, 이론적 및 방법론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인구패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패널에 관한 관점들을 토대로 비교분석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비교분석대상 패널 선정, 체계적 비교분석 실시 등을 추진하였다. 끝으로 전문가회의 및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여,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본 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한국인구패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일반적인 패널의 특성에 관해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패널의 정의 내지 개념, 기능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어서 인구현상과 사회경제현상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인구변동의 한 사례 즉, 출산을 예시로 고찰하고자 한다.

### 제 1 절 패널의 특성에 관한 고찰

패널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일정 시간동안 간격을 두고 인터뷰를 한 개인의 그룹에 대한 장기적인 통계연구”라고 되어있다. 신동균(1998)에 따르면 패널연구란 횡단면적인 단위(예를 들어 개인, 가구, 기업, 산업, 국가)의 표본을 추출하고 표본 구성원들을 복수년도에 걸쳐 관찰·조사하면서 여러 가지의 정보를 얻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패널조사는 자료의 획득과 획득된 자료를 이용한 연구분석의 두 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양자는 상호 연계되어 진행된다(신동균, 1998).<sup>주1)</sup>

패널자료에 대한 이용가능성의 증대는 지난 30년간 응용사회과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전이었다고 일컬어진다(이상호, 2006). 패널의 기능 내지 역할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여러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수간의 상호연관성 또는 인과관계를 측정케 해준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고 있다.

---

주1) 설문지 구성을 포함한 데이터 획득의 모든 과정에는 연구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 요구되며 데이터 분석 및 연구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요구사항들은 다시 다음의 데이터 획득 과정에 반영된다(신동균, 1998).

구체적으로 금재호(1998)는 패널자료는 횡단면데이터의 모든 장점을 갖추고 있으며, 더불어 횡단면데이터로는 파악할 수 없는 추가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즉, 패널자료를 통해 시간의 경과 및 정부정책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인 또는 가구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양식이 어떻게 변동하여 가는지 그 동태적 변화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으며, 횡단면자료에서는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간의 변이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패널자료의 특징들은 연구자로 하여금 횡단면자료에서 얻을 수 없는 추가적인 장점을 가짐으로써, 경제현상의 분석, 정책의 효과성, 노동시장의 분석 등을 가능하게 하며 특정 기간의 효과, 특정연령 효과, 그리고 동시태생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해 준다고 한다(금재호, 1998).

신동균(1998)도 패널자료는 미시적인 단위(개인, 가구, 기업)의 동태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사회·경제적인 변수들의 상호 연관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혹은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관찰 불가능한 변수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패널자료는 경제분석, 기업의 재무데이터, 주가 자료, 각 제품의 마케팅 자료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노동시장 분석, 정부정책의 효과성 측정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중요성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Deaton(2000)은 패널자료는 개인에 대해 반복적인 관찰을 한 자료로서, 횡단 조사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여러 가능성들을 열어주며, 특히 다른 환경(상황) 아래에 있는 동일한 개인을 비교함으로써 그/그녀 자신의 개인적인 통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허용해 이상적인 실험 상황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하였다.

이상호(2006)에 따르면, 패널자료는 다양한 이슈들을 광범위하게 다루면서도 동일한 표본을 반복적으로 조사한다는 점에서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장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즉, 시간의 경과나 환경의 변화에 따른 동태적 변화 및 상태간 변이과정을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관측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통제하므로 보다 엄밀한 조건에서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한다.

패널의 기능 내지 역할은 역사가 깊은 외국 패널의 목적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84년부터 시작된 유럽 최초의 패널로서 독일 가구패널조사(GSEP)의 주된 목적은 교육, 고용, 자산 및 정부정책에 관한 개인의 신념 등 조사, 정부정책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sup>주2)</sup> 1991년부터 시작된 영국의 가구패널조사(BHPS)는 그 목적을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 추세 관찰, 21세기 정치·사회·경제 구조 예측, 정책수립 기초 자료로 제공 등에 두고 있다.<sup>주3)</sup> 1993년부터 시작된 캐나다 노동패널(SLID: Stud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의 경우에는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인 풍요(well-being)와 이러한 풍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소득, 노동시장, 가족 등의 다방면에 걸쳐 그 동태적 변화의 양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기본 목적을 두고 있다.

20세기 전후 영국 복지국가의 형성은 부스와 라운트리 등의 노동자의 삶과 빈곤 조사를 통해 가능했으며, 이후에도 조사연구는 학술연구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사회복지정책을 비롯한 국가정책은 국민의 경제적 상황, 소비문화, 가치관, 빈곤실태 등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여야 하나, 횡단면조사는 한계가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미국의 PSID, 영국의 BHPS, 독일의 GSOEP, 캐나다의 SLID 등 국가를 대표하는 패널조사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패널자료의 분석결과는 정책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김미곤 외, 2006).

## 제 2 절 인구동학요인-사회현상 연관성 고찰(출산 사례)

고출산시대에 패러다임은 자본주의이며 물질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인구와 관련해서는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환경 악화, 식량 위기, 빈곤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에서 많

주2) 국립경제연구기관으로서 DIW(Deutch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의 주관 하에 프랑크푸르트대학, 만하임대학, 베를린 대학에 공동수행하고 있다.

주3) Essex 대학의 사회미시변화연구센터(ESRC Research Centre on Micro- social Change) 주관하고 있다.



은 정책적 노력들이 투입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출산억제를 위한 가족계획이 공동의제로 부각되었다. 개인적으로도 적은 수의 자녀를 갖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자아실현 등에 대한 기회비용을 줄이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결국, 국가나 사회적인 목적과 개인적인 이유가 부합하여, 출산율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이삼식, 2005).

1960년대 이래 유럽의 대부분 국가에서 출산력은 2.0명 수준 이하로 낮아졌으며, 심지어 이태리 등 일부국가의 경우에는 1.0명에 근접한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유럽사회에서는 1960년대 이래 진행된 출산력의 변천을 “제2의 인구 전환(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으로 설명하고 있다. 당시 인구학자들은 출산력은 계속 낮아지지만 인구대체수준인 2.0명에 도달하면 그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은 무너졌으며, 주된 이유로 가치관의 변화가 제시되고 있다. 반 드카와 론 레스티지는 자율성과 자기실현을 중시하는 시대적 변화 및 물질적 가치관에서 탈물질적 가치관의 변화 등을 배경으로 가치관체계가 변화하면서 자아실현 등을 추구할 수 없는 경우에 결혼 연기·포기, 동거, 이혼, 혼외 출산 등의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은기수, 2005). 이러한 가치관체계의 변화는 피임의 보편화에 의해 더욱 가능해지고, 결국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신가정경제이론(New Home Economics theory)의 입장에서 출산율 감소는 결혼, 출산 및 자녀양육을 둘러싼 경제사회 현상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장기간의 불경기, 그리고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래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인하여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다고 한다(이삼식, 2005).

대부분 여성들은 풀타임 직업 및 승진을 추구하는 동시에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으나, 일반적으로 결혼 및 자녀 출산시 취업을 중단한다고 한다. 이들 여성이 자녀성장 후 재취업을 원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직업/소득을 가지는 것이 아주 어렵다. 따라서 고학력 전문직 여성 등을 중심으로 혼인/출산 기피 경향이 증대한다(Atoh, 1998).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가사에 대한 남성의 역할이 변

화하지 않고 있어, 자녀양육과 일간의 양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결국 여성은 만혼 또는 만산 및 소자녀 또는 무자녀 선호가 증가한다(Beets, 1997). 이에 대해 Palomba et. al.(1997) 등은 남녀간 평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가시켜, 출산율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고용상태의 불안정 및 불경기도 출산 의욕을 줄인다고 한다. 실례로 영국에서 1970년대 초이래 직업의 불안정으로 인해 출산율이 저하된 바 있으며, 스웨덴에서는 경기와 출산율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였다는 지적도 있다(Hoem과 Hoem, 1996).

취학 전 교육부터 대학까지의 교육에 드는 비용이 엄청나므로 부부는 양보다 질을 우선시 여겨 저출산 심지어 무자녀를 선호하게 된다고 한다. 자식이 더 이상 노후보장을 위한 투자로 인식되지 않고, 단지 부부(특히, 여성)의 시간과 소득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Atoh, 1998). 자녀양육이 주거, 교육 등의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모의 소득활동기회를 상실시키는 간접비용을 발생시키는 것도 출산 기피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한다(Roussel,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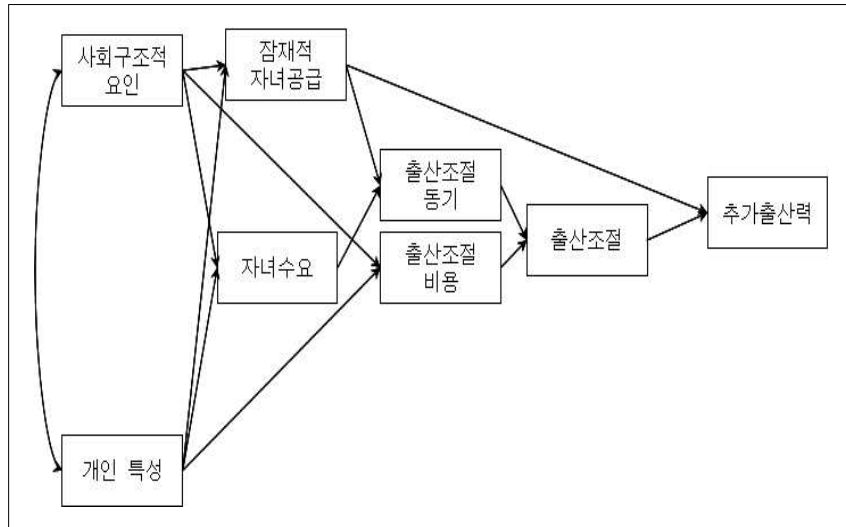
경제성장으로 생활이 풍족해지면 안정주의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지배적으로, 젊은 미혼층의 소비활동이 급격히 증가하여 결국 결혼과 출산을 연기한다고 한다(Lesthage et al, 1988). 부모의 집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에 다니고 일상생활을 어머니에 의존하며 소비생활을 즐기고 가족부양의무를 지지 않는 귀족적 미혼(aristocratic singles) 또는 기생충적 미혼(parasite singles)이 증가하고 있다(Atoh, 1998). 소득을 중요시하는 물질주의 만연과 개인주의 사상은 자녀 출산에 대한 이익을 찾지 못하는 여성들의 출산 감소 또는 무자녀 경향을 증대시킨다는 연구도 있다.

문화적 효과(cultural effects)로 사회계층간 규범의 차이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Roussel, 1994). 역사적 동태 및 생활주기 효과(historical dynamics, life style factors)로 출산행태가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해 경험된 전기적 모델(biographical model)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Roussel, 1994).

자녀 출산은 자녀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Hermalin, 1983). 자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 여성(또는 부부)은 추가출산의 동기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동기가 실천되는 여부는 소요비용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러한 비용은 금전비용 이외 시간, 사회규범, 건강, 심리적 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사회구조적 특성들과 개인적 특성들의 기능으로서 경제적 위치나 사회적 지위까지 포괄한다. Hermalin은 출산력 결정요인에 관한 모형을 도시화 하였다(그림 2-1 참조).

[그림 2-1] 인구동학요인(출산)과 사회구조적 요인간의 연관성에 관한 모형



자료: Hermalin, "Fertility Regulation and Its Costs : A Critical Essay", 1983.

## 제 3장 외국의 주요패널 사례

외국의 경우 오랜 전부터 패널연구를 수행해 왔다. 패널연구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이미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다양한 계층에 대한 패널조사를 구축·운영 중이다. 본 장에서는 외국의 주요 가구패널조사인 미국의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영국의 BHPS(British Household Panel Study), 캐나다의 SLID(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를 중심으로 사례 분석을 실시한다.<sup>주4)</sup> 이들 사례패널들은 가구패널로서 인구동학적 요소와 가족, 가사, 노동, 육아, 보건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제안될 인구패널의 속성에 근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례는 패널의 연혁, 표본, 조사도구 및 방법, 최근의 조사현황 등의 관점에서 정리하며, 그 결과는 제5장에서 한국인구패널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 제 1절 미국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존슨대통령 재직시 빈곤에 대한 전쟁의 일환으로 OEO(Office of Economic Opportunity)는 통계국에게 국민의 경제적 복지 수준을 얼마나 향상시켰는가를 평가하게 하였다. 소위 SEO(Survey of Economic Opportunity) 연구는 1966~1967년에 3만 가구를 조사하였다. OEO는 미시간대학 부설 SRC(Survey Research Center)로 하여금 SEO자체의 표본에서 저소득계층 약 2,000가구를 추출하여 계속 조사할 것을 권유하였고, 연구책임자 모건(Morgan)은 기존 SRC표본에서 새로운 대표 표본을 추출하여 기존의 SEO표본에 추가하였는데 이것이 PSID이다.

주4) 이들 외국패널의 표본, 조사도구 및 방법, 조사현황과 관련된 내용은 주로 이상호(2006)의 ‘서구 주요 패널의 조사전략 변화와 시사점’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표 3-1> 미국 PSID의 핵심주제

영역	주요 내용
소득원천 및 소득액	가족구성원들의 소득; 사업·농업소득; 전문업 및 상업소득; 농업 및 조경업 소득; 임대소득; 주식배당, 이자, 신탁 및 로열티; 각종 사회보장프로그램에서의 소득; 퇴직금, 연금; 직장에서부터의 비금전적 소득; 위자료; 육아 지원금; 친척 및 친지들로부터의 보조금; 그 밖의 소득
빈곤	가구빈곤상황
양식·주거면에서 공공지원	식권사용실태; 주거와 관련된 공공지원(공공 주거 사업 대상자인지의 여부, 임대인 경우 공공지원을 받는지의 여부, 난방비의 정부지원)
기타 재정 문제	연방세 납부 금액; 자가 및 임대 이외의 거주에 대한 재정지원
가족 구성 및 인구학적 통계	결혼 행위 및 혼인상태; 임신; 양자; 자녀수(총수 및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자녀수); 민족; 인종
고용에 관한 정보	일한 주의 수, 실업된 주의 수,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주의 수, 자신의 병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병구완으로 빠진 일, 휴가(주 단위), 파업한 주의 수 등에 대한 월간 및 연간 정보; 주직장과 부 직장에 대한 직종 및 산업; 공무원 여부, 임금률, 주간 근무시간 수, 주 직장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 여부, 자영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여부; 일 경험에 대해서는 총경험연수와 현직장에서 경험연수; 고용상황에 대해서는 면접시의 고용상태, 구직활동 여부와 방법; 이전의 고용상황 변화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변동된 경우, 고용주는 불변이나 직위가 변동된 경우, 직종 및 산업의 변동, 각 고용주하의 일한 시작과 끝의 보수와 작업량, 고용주를 바꾼 이유
가사 종사 시간	
주거	주거하는 곳의 구조와 규모;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임대인지의 여부; 소유하고 있으면 집의 자산가치; 남아있는 모기지(mortgage)액수
지역이동	지난해 동안의 이사(언제와 왜); 장래의 이사계획(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왜); 주거하는 곳의 주와 카운티; 가구주와 성장한 곳(도시 혹은 비도시, 주 및 카운티); 현재 주거하고 있는 곳(주 및 카운티); 가구주가 살아왔던 모든 주들; 가구주가 전직을 위해서 이사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
전직관련 이사 여부	
사회경제적 배경	총교육과정; 부모의 교육 수준; 자녀수; 인종 및 민족; 아버지의 직업; 부모의 빈곤상황
보건·종교·군복무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상황 및 장애상태; 종교; 군복무경험
국가단위 데이터	실업률;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수요 상황

자료: 신동균(1998), 미국패널데이터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노동패널연구.

PSID 변수들을 나열하면 300페이지가 넘는 광대한 분량이나, 이 중에서 핵심 주제들은 소득, 빈곤층, 가족구성, 고용, 가사, 주거 및 사회·경제적 배경 등이

다. 인구동학적 주제들로 출생, 사망, 결혼, 이혼, 재혼 등에 의한 가족구성의 변화, 친족망, 10대 임신부 등이 포함된다. 그 밖에 연구과정에서 공공요금, 교통이용 상황, 육아, 보건 등 추가주제가 포함된다. 핵심 주제나 추가 주제 모두 그 대상 시간이 다양하다. 또한 가구주, 배우자, 가족 구성원 또는 가족 전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하기도 한다(신동균, 1998).

〈표 3-2〉 미국 PSID의 추가된 주제

연도	추가된 주제
1968-72 1977-87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공요금
1969-86	통근 수단
1968-72	거주 및 이웃특성, 태도 및 행동양식, 직장 외에 스스로 하는 활동, 저축, 가족 구성원들의 장애상태, 임신 및 가족계획, 육아, 시간활용
1972	성취, 동기, 인식력(문장테스트)
1973-74	육아
1975	이웃에 대한 만족과 주거문제, 태도, 가구주의 장애상태
1976	아내에 대한 면접: 고용경험, 임신과 가족계획, 직업의 특징(요구되는 직업훈련 포함), 노동력 참가 실패, 육아, 태도
1977	육아, 가구주의 장애
1978	직업훈련, 직업을 갖게 된 방법, 은퇴 계획 및 경험, 가족 구성원들의 장애 상태
1979	직장 외에 스스로 하는 활동, 육아, 인플레이션의 영향, 저축, 은퇴계획, 가구주의 장애상태
1980	위급할 때 시간적, 금전적 도움, 식권/사회보장소득 수혜자격 여부, 인플레이션의 영향, 육아, 가구주의 장애상태, 확대가족(extended family), 저축
1981~83	은퇴계획(1983년에 가장 세밀함), 실업기간 및 노동력으로부터의 이탈 기간, 연간입원상황, 가족 구성원의 장애 및 병
1984	부(여러 가지 자산의 가치), 금전 외 소득, 연금계획과 연금 수혜권, 은퇴계획, 유산, 저축, 직업훈련, 실업기간 및 노동력으로부터의 이탈기간, 가구주와 아내/아내의 장애 및 병
1985	아내에 대한 면접: 출산에 대한 회고, 양자, 양녀에 대한 회고, 대리부모 역할에 대한 회고, 결혼 내역에 관한 회고, 전 교육과정에 대한 회고, 육아, 가사, 가족계획, 가구주, 아내/아내의 장애와 병, 직업훈련
1986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 일일 활동 상황, 연간 입원상황, 키·몸무게, 흡연, 운동
1988	확대 가족원들간의 연계: 부모의 재정상태, 부모의 건강, 시간 및 금전적 지원, 시간 및 금전적 지원
1989	부(여러 가지 자산의 가치), 저축행위(1984-89)
1990	노령자들의 건강과 의료 행위

자료: 신동균(1998), 「미국패널데이터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노동패널연구』.

PSID가 처음 설계되기 전 미국의 통계국은 존슨 정부의 ‘빈곤과의 전쟁’과 발맞추어 기초 자료 수집에 나섰다. 이를 위해 30,000가구를 표집하여 1966년과 67년 두 차례에 걸쳐 SEO(Survey of Economic Opportunity)를 실시하였다. 이듬해인 1968년 통계국은 미시간 대학 SRC(Survey Research Center)에 의뢰하여 SEO에서 빈곤층 2,000가구를 추출하여 5년 동안 추적 조사할 것을 의뢰하였다. 이에 SRC는 빈곤층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표 표본을 구축하기 위해 추가로 3,000표본을 구성하였으며 그 결과 PSID의 기본축이 되는 5,000가구에 이르는 원표본이 구축되었다. 이후 추가표집에 따라 2001년에 표본이 두 부분으로 분리되었다. 첫 번째는 원표본인 1968년 표집가구 및 분가가구들로서 이들을 2001년 기준으로 7,255가구였다. 두 번째는 1968년 이후 미국으로 이주한 표본으로 792가구가 1999년 조사부터 새롭게 추가되었다(이상호, 2006).

PSID의 조사도구와 관련된 변화는 세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1968~1972년 기간 동안은 면접원이 종이로 작성된 설문지에 응답자와 직접 대면하여 기입하는 PAPI(Paper and Pencil Interviewing)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1973년부터 1992년까지는 PAPI를 유지하되 전화를 이용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1993년부터는 컴퓨터에 설문지 프로그램을 내장하여 전화로 수집된 정보들을 면접원이 입력하는 CATI(Computer-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방식으로 이행했다. CATI와 같은 컴퓨터 지원 면접시스템은 조사원이 응답을 입력하는 순간 곧바로 데이터베이스화되기 때문에 면접시간 및 데이터 가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sup>5)</sup>되어 2003년부터는 새로운 CATI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였다. 즉 주거사항의 변화 및 직업력의 변화과정을 EHC(Event History Calender)기법을 이용하여 기록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면접원이 2년간의 직업력 변화를 각 시점별로 정확하게 입

주5) CATI를 도입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테스트하는 등 15개월의 준비기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시작 시기가 두 달여 가까이 지연되었다. 현장실사기간 중에는 시스템 에러가 발생하여 면접 진행이 상당기간 중단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수많은 에러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면접원과 응답자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결과적으로 응답률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데이터 편집, 최종 데이터 공개 등 일련의 모든 과정들도 연기되었다.

력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다 정확한 정보수집이 가능해졌다.

PSID 2003년 조사는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조사는 SRC조사팀에 소속된 약 90여명의 면접원들에 의해 96.8%정도가 CATI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1968년 표본의 경우 직전 조사 대비 96.8%(7,870가구)의 성공률을 보였으며, 이주민 표본은 94.3%의 성공률을 기록했다. 평균 조사시간은 68.7분이며, 응답 사례금으로 \$55가 지급되었다.

## 제 2절 영국 BHPS(British Household Panel Study)

영국은 1991년부터 BHPS라는 가구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BHPS는 영국의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추세를 관찰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21세기 영국의 정치·사회·경제구조를 예측함으로써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BHPS는 Essex대학의 ESRC 사회미시변화 연구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에는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통계학, 인구학, 지리학, 그리고 컴퓨터 및 정보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또한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국의 교수 및 연구원들로 구성된 40여명의 자문위원회가 1년에 두 번씩 개최되어 자문위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표 3-3〉 영국 BHPS의 주요 주제

영역	내용
가구	가구구조의 변화, 가구형성과 해체의 원인 및 결과, 가구경제의 의사결정, 가구소비의 양식
노동시장	직업이동 및 노동시장
소득과 부의 분배	생활수준의 변화, 생활주기(life cycle) 효과, 소득과 가족구성, 부의 축적과 저축
주거	주거비용, 주거이동의 원인 및 결과
건강	건강과 가구경제와의 관계, 의료서비스의 이용 실태와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불평등 정도, 가구의 건강상태와 질병의 종류
사회경제적 가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치(행위)와의 관계



BHPS는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추세를 연구하는데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주제는 가구 동학, 노동시장, 소득과 부의 분배, 주거, 건강 그리고 사회경제적 가치 등이다(표 3-3 참조). 설문지는 가구용·개인용 설문지, 자기기입 설문지·대리용 설문지로 나뉜다(표 3-4 참조). 가구용 설문지에는 가구원 중에서 주거상황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가구원이 응답하며, 개인용 설문지는 만 16세 이상의 모든 가구 구성원이 응답한다. 자기기입 설문지는 면접조사를 마친 모든 가구 구성원이 기입하며, 대리 설문지는 집을 떠나 있는 가구원이나 지나친 고령으로 응답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대신 한다.

〈표 3-4〉 영국 BHPS의 주요 조사내용

영역	내용
가구용 설문서	
주거상태	- 현주거지의 소유상태 - 현주거지의 소유방식(완전소유 혹은 담보/대출에 의한 소유) - 세입자인 경우: 세입액(주거비 포함) 및 세입액의 기간
소비지출	내구재 및 자가용 소유여부, 생활비용
개인용 설문서	
이웃과 개인의 인구학적 정보	출생지, 주거지, 가정과 이웃에 대한 만족도, 이사의 이유, 인종, 교육적 배경과 학력, 최근의 교육경력, 결혼상태의 변화
현재의 고용상태	고용지위, 직업, 직장탐색행위, 직업/임무, 근무지, 직장규모, 직장까지의 교통수단, 이용하는 교통수단, 근속년수, 근무시간/근무초과시간, 노동조합원 여부, 전망과 직장교육, 연금계획, 일에 대한 태도, 임금 태도, 수입에 대한 만족도, 보육시설
재무관련	수당, 연금, 연금, 임대료, 이직, 배당금소득, 연금계획, 저축과 금융자산투자, 결혼만족도, 소비자신뢰, 내외부의 소득이전, 배우자의 역할, 가구지출의 운영, 육아, 자동차 소유 및 사용, 차의 가치, 면접시 특이사항
건강과 보살핌	개인의 건강상태, 일에 대한 장애정도, 의사반문빈도, 병원/의원 사용, 건강 및 의료복지서비스 이용현황, 전문의 상담, 건강진단, 흡연, 친척이나 가족의 보살핌, 타인 보살핌에 쓰는 시간
고용역사	작년의 고용지위, 고용지속기간, 근무하는 직장의 크기, 산업, 직업 및 책임, 임금/수입/공제, 이직이나 취직의 이유
가치와 의견	참여정도, 정치에 대한 만족도, 종교, 이해집단예의 소속여부
[rotating core]	
건강과 보살핌	의료비와 의료비 지급에 대한 태도
가치와 의견	부의 분포, 사회정의, 정부의 기능과 역할, 환경, 개인지출

자료: 강석훈(1997), 유럽의 패널조사 현황과 시사점-가구패널조사와 국제비교학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BHPS는 엑세스 대학의 ISER(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에서 실시하는 가구패널조사로 1991년 1차년도가 시작된 이래 현재 13차(2003년) 자료까지 공개되고 있다. 1994년 조사에서는 BHPS조사 응답가구 중 11~15세까지의 청소년을 추출하여 청소년패널(BYP: British Youth Panel)을 시작하였다. 1997~2000년에는 유럽단위의 가구패널조사인 ECHP에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환으로 원래 EHCP 중 영국에 할당된 표본들(북아일랜드 포함, 빈곤층 표본)을 통합시켰다. 1999년부터는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지역이 표본수 확대 및 잉글랜드와의 정부정책 효과성분석을 위해 추가되었다. 이로써 기존에 400~500가구에 그쳤던 이 지역 표본에 2,000가구가 추가로 표집되었다. 2001년에 북아일랜드 표본(약 2,900가구 5,200여명)이 추가되면서 영국의 전 지역을 포괄하는 표본을 가지게 된다.

BHPS는 9차년도(1999년) 조사부터 CAPI시스템을 도입하였다. CAPI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ISER은 실사업체인 NOP와 긴밀한 협력관계의 형성과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CAPI프로그래머와 조사연구팀원들 간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도입 첫해에는 가구용 및 개인용 설문에만 CAPI를 사용하고 다른 설문에는 PAPI를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13차조사(2003년)부터는 대리용 설문에도 CAPI를 적용함으로써 이행을 완결 지었다.<sup>주6)</sup> BHPS는 기본적으로 모든 조사가 대면접촉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면접을 허용하고 있으며, 3차 년도부터는 전화조사도 일부 도입되었다. 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설문에 대해서는 ‘자기기입식’설문도 사용하고 있다.

BHPS의 현장실사는 민간 조사업체인 NOP에 위탁하고 있다. 1차 년도에 243명의 면접원들이 250여개의 표본지역을 포괄하였으며, 2차년도 이후부터는 가급적 동일한 지역에 대해서는 동일한 면접원이 조사하도록 하였다. 면접원 교

주6) ISER에서는 CAPI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신중한 이행과정을 거쳤다. 우선 가구용과 개인용 설문만을 CAPI로 전환하고, 청년층, 전화조사 등은 기존의 PAPI방식을 유지했다. 또한 가구용과 개인용 설문에 대해서도 PAPI면접을 함께 실시함으로써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즉 CAPI로 제작된 설문지 구조가 잘못되어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이중구조를 통해 각각의 데이터를 별도로 구축함으로써 정보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다.

육은 ISER과 NOP가 공동으로 실시하였는데 기존 면접원의 경우 1일, 신규 면접원의 경우 2일의 프로그램을 별도로 가동시켰다. 9차 년도부터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CAPI 설문지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였으며, 모든 교육과정은 ISER직원이 참석하였다. 조사는 매년 9월 첫째 주부터 12월 첫째 주까지 이루어지며, 대체로 80%이상의 조사가 9~10월 완료된다. 응답자 관리에서 특징적인 것은 현금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1~5차년도 기간 동안은 5파운드 상당의 상품권이었으나, 6차년도 조사부터는 7파운드로 인상되었다. 또한 기존에 응답했던 개인에 대해서는 응답 후가 아닌 응답 전에 조사대상 표본에 대해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신규 응답자나 이전 차수에 응답하지 않은 개인, 청년층조사 응답자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BHPS는 표본 유지를 위해 원표본가구 구성원 모두를 추적(미국 PSID와 동일)하며, 일시적 거주자도 추적하여 탈락표본 보충 및 이동 분석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참고로 1차년도(웨이브)의 조사응답률을 살펴보면, <표 3-5>와 같다.

<표 3-5> 영국 BHPS의 조사응답률(1차 웨이브)

표본설정조사구내 가구	8,166	최종표본가구의 총가구원수	13,830
빈집·비거주지역·외국인가구제외	938	16세 미만	3088
다가구에 의한 추가가구	103		
유효 표본가구	7,331	16세 이상	10,742
실시 전 거부	124	응답거부	428
실시 후 거부	1,319	접촉불가, 부재	48
접촉 불가	275	언어장애 등	12
언어장애, 연령, 부적합	110	면접성공	9,904
최소응답가구	4,849(66%)	대리응답	350
평균응답가구	5,130(70%)		
최대응답가구	5,503(75%)	총개인설문	10,254

### 제 3절 캐나다 SLID(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

캐나다 통계청은 개인 및 가족의 노동시장활동에 관한 패널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는데 1980년대 후반의 LMAS(Labor Market Activity Survey)는 캐나다 노동패널조사의 기원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1986~87년까지의 제1패널과 1988~1990년까지의 제2패널 둘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를 발전시킨 것이 현재의 SLID이다. SLID는 1993년 1월에 제1차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1차년도에는 응답자의 부담을 줄이고 면접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구학적·개인적 배경에 관한 질문들이 주된 내용을 이루었다. SLID는 국민들의 경제적 풍요를 측정하기 위해 종전의 LMAS에서는 묻지 않던 소득에 관한 항목들을 추가하고 있고, 자산에 관한 질문, 개인 및 가족들의 노동시장활동,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내용들을 질문하고 있다. SLID는 소득, 노동시장, 가족 등의 다방면에 걸쳐 그 동태적 변화의 양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기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실업, 임금, 직장생활 등에 관한 다양한 횡단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주제로는 고용 및 실업의 동태적 변화, 노동시장에서의 이동과정, 직장생활, 가구경제의 동태적 변화, 저소득층 가구의 동태적 변화, 가족사, 학교와 직장의 연계 등이 포함된다. 4영역의 16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3-6>와 같다.

<표 3-6> 캐나다 SLID의 주요 조사내용

영역	주요 내용
개인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인종 및 문화적 특성, 장애인, 자녀, 지리적 특성, 가족정보,
교육	교육활동, 학력
소득과 자산	소득원, 사회보장(실업급여), 자산과 부채
노동시장의 활동	노동시장활동, 직업경력, 실직기간, 직업정보(직업특성, 일시적 직장이탈, 사업장특성)

SLID의 표본은 캐나다 노동력조사에서 추출되었기 때문에 표본설계 역시 LFS와 공유한다. LFS 표본은 6개의 독립된 표본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각각을 ‘순환집단(rotation group)’이라 하여 매월 1개 그룹씩 교체한다. 따라서 두 조사

의 모집단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SLID의 표본은 모든 연령을 포괄하는 데 반해 LFS는 15세 이상의 인구만을 포괄한다. 둘째, SLID의 표본이 모든 연령을 포괄하지만 노동 및 소득에 관련된 조사는 15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셋째, 모집단이 포괄하는 지역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추출된 SLID 표본은 다시 두 개의 하위패널로 나뉜다. 각 패널은 두 LFS 순환집단으로 구성되며 약 15,000가구를 포함한다. 한 패널이 6년 동안 조사되며, 새로운 표본이 3년마다 교체된다. 따라서 두 패널들은 항상 조사기간이 중첩된다. 결국 다른 가구패널조사와는 달리 SLID의 원표본은 6년이 지나고 나면 완전 교체되는 것이다(이상호, 2006).

SLID의 독특한 표본구성으로 인해 표본가구는 6년 동안 최대 12번의 면접을 수행하게 된다. 1월 조사에서는 주로 지난해의 노동시장 경험, 교육 및 가족관계와 관련된 정보들이 수집되며, 5월 조사에서는 소득에 관련된 정보가 수집된다. 무엇보다 응답부담을 줄이기 위해 캐나다 통계청이 갖고 있는 조세정보를 매칭(응답자의 약80%)이 이루어지며, 이들은 5월 조사에서 제외된다. SLID는 첫 조사인 1993년부터 CAI를 이용하여 설문지를 설계하였다. 이 때 사용한 프로그램은 오하이오 주립대의 CHRR에서 개발된 CAI와 자체개발한 FOXPRO라는 DB를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2000년에 들어서면서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모든 조사에 대해 전면적인 CAI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SLID는 이러한 시도의 첫 번째 사례로 선택되었으며, 소프트웨어도 Blaise로 결정하였다. 약 1년 동안 설문지 분석, 디자인, 테스트 끝에 최종적으로 2001년 1월 CATI설문지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CATI프로그램이 7개의 지방사무소에서 실행되었을 때 프로그램상의 문제로 실행되는 시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나, 날짜와 관련된 정보들(고용스펠, 미취업스펠, 퇴직시점 등)과 관련된 정보들의 정확성이 매우 향상되었다.

SLID는 면접원에 대해 다양한 유인체계를 갖고 있다. 특히 CATI 조사로 인한 면접원과 조사팀과의 괴리감을 없애기 위해 면접원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조사 후 면접원에게도 감사편지를 보낸다. 면접원 대부분은 LFS조사를 겸임하고 있으며, 가급적 매년 같은 응답자가 접촉하도록 하고 있다. 응답자 유인체계

에 대해서는 현금보상이 응답률을 높이는데 그다지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보고 응답자에게 조사에 대한 안내책자나 편지, 자료의 조사결과를 요약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SLID는 종단면 및 횡단면적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표본관리 또한 양자를 모두 나누어 실시한다. 조사 또한 1년에 두 번(1월과 5월)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응답자 또한 두 기간 모두 거부한 개인으로 정의된다.

지금까지 논의한 외국의 가구패널조사 즉, 미국의 PSID, 영국의 BHPS, 캐나다의 SLID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표 3-7>와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표 3-7> 외국의 주요 패널 비교

구분	PSID	BHPS	SLID
최초 표본수	4,800가구	5,500가구	패널당 15,000가구
시작연도	1968	1991	1993
조사기관	SRC	엑서스대학 ISER	캐나다 통계청
실사기관	자체조사	NOP	통계청 지역사무소
조사주기	격년(1997년 이후)	매년	매년
조사대상	가구주	모든 가구원	가구주
표본지속주기	제한없음	제한없음	6년마다 교체
청소년부가조사	있음	있음	있음
조사도구	CAPI	CAPI	CATI
CAI도입시점	1994년	1999년	2001년
가중치 형태	횡단면/종단면	횡단면/종단면	횡단면/종단면

자료: 이상호, '서구 주요 패널의 조사전략 변화와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2006.

## 제 4 장 국내패널 비교분석

### 제 1 절 비교분석틀

국내에서는 1993년 대우경제연구소에 의해 수행된 일명 ‘대우패널’(정식명칭: 한국가구패널조사, Korea Household Panel Study, 이하 KHPS)이 시작된 이래 최근에는 여러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시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특히 KHPS는 조사체계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한국의 상황에 커다란 도전이었으며, 최초의 패널조사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으나, 1998년 7차 조사를 끝으로 중단되었다. 이후 개인표본이나 특정집단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패널조사들이 시도되고 있다.

2006년 현재 한국사회에서 진행 중인 패널들은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8차 웨이브), 고령화연구패널조사(1차 웨이브) 및 사업체패널(4차 웨이브),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중단연구(2차 웨이브),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5차 웨이브)과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1차 웨이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교육고용패널(3차 웨이브)과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1차 웨이브),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패널조사(3차 웨이브), 국민연금연구원의 노후소득보장패널(1차 웨이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1차 웨이브)과 의료비패널(2007년 예비조사), 한국여성개발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예비조사), 한국개발연구원의 소득패널(예정),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아동패널(예정), 중소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패널(예비조사), 산업연구원의 산업경쟁력패널(미정)이 있다.<sup>주7)</sup>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빈곤패널 및 자활패널과 서울대의 한국복지실태조사를 통합한 것이다. 이와 같이, 최근 각종 패널들이 실시되고 있거나 예정 중이다.

---

주7) 종료된 패널들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활패널(4차 웨이브), 대우경제연구소의 대우패널(5차 웨이브),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복지패널(2차 웨이브)이 있다.

〈표 4-1〉 비교분석대상 국내 패널, 2006년 기준

구분	국내 패널	비고
분석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패널조사(3차, 한국청소년개발원)</li> <li>◦ 한국교육중단연구(2차, 한국교육개발원)</li> <li>◦ 교육고용패널(3차, 한국직업능력개발원)</li> <li>◦ 청년패널(5차, 한국고용정보원)</li> <li>◦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1차, 한국고용정보원)</li> <li>◦ 한국노동패널조사(8차, 한국노동연구원)</li> <li>◦ 한국복지패널(1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li> <li>◦ 여성가족패널조사(예비조사, 한국여성개발원)</li> <li>◦ 고령화연구패널조사(1차, 한국노동연구원)</li> <li>◦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1차, 국민연금연구원)</li> </ul>	10 패널
분석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패널(예정, 육아정책개발센터)</li> <li>◦ 소득패널(예정, 한국개발연구원)</li> <li>◦ 차상위·빈곤패널(통폐합, 한국보건사회연구원)</li> <li>◦ 자활패널(통폐합, 한국보건사회연구원)</li> <li>◦ 한국복지실태조사(통폐합, 서울대학교)</li> <li>◦ 의료비 패널(2007년 예비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li> </ul> <p>&lt;사업체·기업 패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체패널(4차, 한국노동연구원)</li> <li>◦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1차, 한국직업능력개발원)</li> <li>◦ 중소기업패널(예비조사, 중소기업연구원)</li> <li>◦ 산업경쟁력패널(미정, 한국산업연구원)</li> </ul>	10 패널

이 장에서는 이들 패널들을 비교분석하여 새로이 시작할 예정인 인구패널과의 중복성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중복성이 있다면 많은 패널들이 소수의 패널들로 통폐합이 가능한지, 그리고 새로이 시작될 인구패널의 위치와 기능 등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모든 패널들이 비교분석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관점에서 일부 패널들은 비교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첫째, 국내 패널들은 조사대상 단위에 따라 크게 개인패널, 가구패널, 사업체패널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사업체패널들은 사업체의 특성에 관한 것으로 인구패널과는 성격이 아주 다르므로, 비교 대상으로 포함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한 패널들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



본기업패널조사, 중소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패널(예비조사), 산업연구원의 산업 경쟁력패널(미정)이 있다.

둘째, 개인 또는 가구 패널들이나 일부 패널들은 아직 예정 중에 있거나 준비 단계에 있어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한 패널들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소득패널(예정),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아동패널(예정)들로 본 비교분석에서 제외한다.

셋째, 일부 패널들은 충분한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패널정보에 관한 접근성의 한계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이 가능한 선에서 비교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기준에 입각한 비교분석대상 국내 패널들은 <표 4-1>에 제시하였다. 즉, 본 분석의 대상으로는 청소년패널조사(3차, 한국청소년개발원), 교육중단연구(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3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청년패널(5차,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1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패널조사(8차,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복지패널(1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예비조사, 한국여성개발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1차, 한국노동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1차, 국민연금연구원) 등 총 10종의 패널이다. 한편, 이후 설명 순서는 패널조사 대상의 연령순(앞의 순서)에 따르기로 한다.

비교 내용은 패널의 목적 및 대상, 조사주제(조사항목), 표본설계 및 가중치 부여방법,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조직·인력 및 표본관리로 구성된다. 목적 및 대상, 조사주제는 분석대상 패널 대부분에 걸쳐 비교한다. 다른 비교내용들은 패널들 간 유사성이 높으므로 대표적인 패널들에 대해서만 심층 분석한다. 예를 들어, 표본설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청소년패널조사, 청년패널, 여성가족패널조사, 교육중단연구,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가 분석대상에 포함된다. 가중치 부여방법과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한 분석은 한국노동패널조사와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조직·인력 및 표본관리에 대한 비교분석 대상 패널들은 한국노동패널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청년패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교육고용패널, 청소년패널조사가 포함된다. 이들 패널의 구체적인 정보는 개별 보고서를 참조한다. 한편, 각 패널의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본 보고서의 [부록 1]에 제시하였다.

## 제 2절 국내패널의 목적 및 대상 비교

청소년패널조사는 사회화 과정에 있는 과정적 존재로서의 청소년들의 향후 진로설정, 진로준비, 여가, 일탈행위 등의 태도나 행위의 여러 측면들의 횡단적 실태와 종단적 변화 양상 및 그러한 변화의 원인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해를 얻는 데 있다(이경상 외, 2006).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취미와 적성 그리고 능력에 맞는 적절한 진로지원 대책, 충분한 사회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여가활동 지원 대책, 성장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덜 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사회문화적 지원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 청소년개발원에서는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2003년 조사시작~2008년까지 추적조사)과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들(2004년 조사시작~2008년까지 추적조사)중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동일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진로, 여가, 일탈행위 등의 생활실태에 대해 전망적 패널조사의 방법으로 추적 조사하여 종단적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한다. 2006년 현재 중2 패널은 4차년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초4패널은 3차년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료수집방법은 개인별 추적에 의한 대인면접조사(일탈변수의 측정을 위해 self-reported + 면접조사원 editing 방식으로 수행), 학부모(보호자)에게는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관리는 크게 패널 상시 관리프로그램(장기적 접촉 유지, 자발적 정보 제공, 거점 관리)과 이탈위험패널 특별관리 프로그램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교육종단연구(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이하 KELS)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고등학교 졸업 시점까지, 학생들의 인지적·정의적 성장과 발달, 그리고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 교육을 매년 조사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대학 진학과 초기 직업획득 과정을 만 30세까지 추적 조사하는 종단 연구이다. 즉,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험의 결과가 학생들의 인지적·정의적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학교교육의 결과가 짧게는 상급학교의 진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길게는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직업을 얻고 생활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가정적 배경에 따라 학교교육의 경험과 결과에 어떤 차이가 있으며, 여기에 학교의 종류와 유형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05). KELS는 2005년부터 2023년까지 17년 동안 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렇듯 조사기간이 장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표집의 이탈 가능성,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그리고 직업 세계에서 개인의 경험의 상이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기간을 중등교육 기간, 고등교육 기간 및 직업 생활 기간으로 나누어 하부 조사 단계를 설정하였다. 제1단계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졸업시점까지를 조사대상으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매년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의 주된 목적은 중등학교 학교 효과 분석, 상급학교 진학 과정 분석, 교육정책에 있다. 제2단계 연구에서는 1단계 연구 종료시점인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매 2년 주기로 고등학교 졸업시점에서 만 30세 까지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효과 분석, 지위획득과정 연구, 사회이동과정 연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 효과 분석, 지위획득과정 연구, 사회이동과정 연구를 목적으로 만30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2023년까지 매년 1회씩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2005년에 제1단계 연구 중 제1차 조사가 150개 중학교 1학년 학생, 학부모, 교장,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05).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청년층의 교육관련 정보 구축을 통해 진학, 진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관련 연구 수행 및 학교교육과 직업훈련 등 교육의 성과가 실제 노동생산성과 취업 등 경제적 성과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구축하여 인적자원개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위하여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이하 KEEP)를 실시하고 있다. KEEP는 이러한 목적 하에 2003년 사업에 착수, 2015년을 사업 종료 예정년도로 설정하여 2004년 제1차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06년 현재 제3차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부자료, 2006). 동 패널의 조사대상은 중학교 3학년생(2,000명)과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생(2,000명),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생(2,000명)으로 설정되었다. 한편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가정과 학교의 환경을 조사하기 위하여 학생의 보호자(가구의 구성원 및 교육적·경제적 배경)와 학생의 담임교사(학업 성취와 학교생활), 학교행정가(학생의 일반적 학교 환경)를 동시에 조사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05).

청년패널(Youth Panel)은 청소년의 학교생활, 사회·경제활동, 가계배경 등을 반영하는 기초 자료 수집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의 수립 및 관련 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1년부터 시작하여 2006년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동 패널조사는 만 15~29세의 연령층에 초점을 맞춘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단위 패널조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동 조사는 노동부의 인력수급전망 인프라구축방안의 과제로 고용보험 연구사업비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며, 본 조사는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와 함께 통계청의 공식승인(통계청 승인번호: 38701)을 받아 수행되고 있다. 2001년에 실시된 1차년도 조사에서 청년층 8,296명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2002년 2차 조사에서는 원표본 중 5,956명(71.8%)을 조사하는데 성공하였다. 4차 조사에서는 원표본의 60.3%에 해당되는 5,001명의 표본을 유지하였다. 특히 4차 조사에서는 2차에 구축된 5,956명의 표본을 기본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 3차에서 탈락한 표본 중 305명을 재조사하는데 성공하였다(한국고용정보원, 2005).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제1차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을 실시하였다. 동 패널은 2년제와 4년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교교육, 직장경험, 직업훈련 등을 파악하여, 대학졸업자의 경력개발 및 직업(직장) 이동 경로를 장기 추적하고자 한다. 즉, 동 패널은 궁극적으로 교육-노동시장 간 신뢰성 있는 인력수급정보 정보를 구축하고 인력수급 불일치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한다.주8) 동 패널은 2004년 11월 국무조정실의 ‘인

주8) 구체적인 활용 분야로는 1) 청년실업 관련 교육·노동정책 수립의 기초통계자료 제공; 2)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과정(school to work transition)에서 나타나는 청년층의 직업별 노동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3) 청년층의 노동시장 행위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직업관련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 4) 대학교육에 있어서 교과과정별 투자에 대한 투자 회수율과 관련된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 5) 직업과 교육의

적자원개발·연구개발기획단'에서 인력수급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2005년 10월에 국무조정실의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5)」와 노동부의 「인력수급인프라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채택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2004년 8월 및 2005년 2월에 졸업한 50만 명 대졸자의 5%에 해당하는 25,000명이다. 조사원은 이들 조사대상을 직접 방문하여 면접타개식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교육과정, 현재 일자리, 졸업 후 일자리, 첫 일자리, 졸업 전후 일자리 탐색과정, 재학 중 취업, 훈련과정 및 자격증 등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포함된다(한국고용정보원, 2006).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노동시장 관련 기초적인 조사 자료의 미흡·부재의 문제 해소 및 분석적인 노동연구 활성화를 통한 고용정책 수립·평가에 기여하고자 1998년 처음 시작되었다. KLIPS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 표본구성원(5천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로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차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06년 9차년도 조사가 추진 중이다(남재량 외, 2005). 동 조사는 노동부의 고용보험 연구사업비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며, 통계청의 공식승인(통계청 승인번호: 33601)을 받아 수행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빈곤패널 및 자활패널과 서울대학교의 한국복지실태조사를 2006년에 통합한 것이다. 당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03년부터 저소득근로능력자 중심의 자활패널(보건복지부, 3억원)을 실시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양극화 심화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문제, 빈곤역동성 분석에 초점을 두고 차상위·빈곤패널(보건복지부, 7억원)을 각각 실시하였다. 한편, 서울대학교에서도 2005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의 한국복지실태 조사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3개의 패널은 분석목적이 다소 다를 뿐 조사대상이 유사하여 '예산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각각 패널의 예산

---

적정 수준 관련성 및 전공분야 관련 직업일치성 분석 자료로 활용하여 학력과잉 문제 해소.

이 적어 유효표본수가 적어 대표성 있는 자료의 생산에 한계가 있는 등 ‘목적 비효과성’ 문제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과 서울대학교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패널들을 통합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한국복지패널의 기본목적은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이들의 규모와 실태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 지원에 기여하고,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상태별, 연령별 등 각 인구집단의 생활 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정책형성과 환류에 기여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중위소득 60% 미만에서 3,500가구 그리고 그 이상의 가구에서 3,500가구 등 총 7,000가구이다.

여성가족패널조사(한국여성개발원)는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여성 개인과 가족의 변화를 종단적 자료형태로 조사·구축함으로써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여성의 일과 가족의 변화실태를 가시화하여 정책 자료를 제공하고자 여성가족패널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여성패널조사는 2006년도에 사업에 착수하여 기초연구와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2007년도에 제1차 조사를 시행하여 2027년까지 약 20년간 패널구축 사업을 지속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기존에 이루어진 각종 패널들은 주로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인력정책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초점이 있다고 보고,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여 기존패널과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이하 KLoSA)는 고령화에 관한 정책 및 학술 연구에 활용할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패널조사이다. 구체적으로 KLoSA는 크게 고령화 연구를 위한 기초통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고령화의 다양한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 구축 및 고령화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가 가능한 자료 구축을 그 목적으로 한다(신현구 외, 2006).<sup>주9)</sup>

주9) 미국은 1992년, 영국은 2002년, 유럽연합 11개국은 2004년부터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과 유럽연합 국가 조사는 가장 먼저 시작한 미국 패널조사를 모델로 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KLoSA도 조사 설계 당시부터 외국 패널

KLoSA는 2004년 초 당시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노동부 및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예산 확보 및 사업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여, 2005년부터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기금 출연금(7억원)을 지원하여 고령화에 관한 패널조사 사업을 추진키로 확정하면서 기초연구가 시작되었다. 동 패널조사는 현재 제1차 기본조사가 실시된 상태이나, 기본조사 실시 전 기초연구를 진행하면서 3차례의 예비조사를 통해 본 조사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즉, 제1차 예비조사(2005년 10월)에서는 45세 이상 중고령자 약 5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인쇄된 설문지를 통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설문 문항을 점검하였다. 다음으로 제2차 예비조사(2006년 2월)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 면접(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CAPI 방식<sup>주10</sup>)에 대한 면접원의 적응 정도와 응답자의 반응, 그리고 면접 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령자 30명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제3차 예비조사(2006년 4월~5월)는 제1차 기본조사에서 실시할 방식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하여 본 조사에 대한 최종적인 테스트를 완료하였다(신현구 외, 2006).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퇴직 이후 생활수준의 변화과정을 파악하고 퇴직준비 상황, 연금이 저축과 근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노후소득의 원천이 될 국민연금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 고령화 대책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동 패널은 2005년부터 실시하였으며, 2006년 현재 1차 웨이브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50세 이상 가구원과 그 가구원이 거주하는 가구로 표본가구수는 5,000가구(10,000가구원)이다. 조사대상의 연령기준을 50세 이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50대 중반에 정년을 적용하거나 임금피크제 등을 적용하는 직장이 많아지는 추세이며, 개인적으로도 노후에 대비하는 변화의 시점이기 때문이다. 조사방법은 개별면접조사이다.

조사들과 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신현구 외, 2006).

주10)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CAPI)방식은 사회조사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종이와 연필을 이용한 방식(Paper and Pencil Interviewing: PAPI)이 아니라, 면접원이 노트북 컴퓨터를 지참하고 조사 대상자에게 컴퓨터 화면에 나오는 질문을 읽어준 후 그 응답을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하여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다.

〈표 4-2〉 비교분석대상 국내패널의 기본목적 및 조사대상, 2006년 기준

구분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기관·재원
1. 청소년패널 조사(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의 향후 진로설정, 진로준비, 여가, 일탈행위 등의 태도나 행위의 기초자료 확보</li> <li>- 청소년들에게 취미·적성·능력에 적절한 진로지원대책 수립 자료</li> <li>- 충분한 사회화 경험위한 여가활동지원 대책 수립 자료</li> <li>- 성장과정에서 시행착오 최소화 위한 사회문화적 지원대책 제시</li> </ul>	초4와 중 2 학생	한국청소년개발원
2. 한국교육중단연구(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의 인지적·정의적 발달과정, 학교 교육의 효과, 교육정책의 효과, 입시제도와 교육기회의 획득, 사회적 지위획득과 사회이동, 삶의 질 등 연구</li> <li>○ 교육정책 수립과 국가인적자원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li> </ul>	150개 중학교 1학년 학생(30세까지 조사), 학부모, 교장, 교사	한국교육개발원
3.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층의 교육관련 정보 구축</li> <li>○ 진학, 진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관련 연구 수행</li> <li>○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의 노동생산성과 취업 등 경제적 성과에 기여정도 실증적 자료 구축</li> <li>○ 인적자원개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li> </ul>	중3 2,000명, 인문고3 2,000명, 실업고 3 2,000명, 담임교사, 학교행정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4. 청년패널(5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실업 해소 위한 노동정책의 수립 및 관련 연구 발전</li> <li>○ 청소년의 학교생활, 사회·경제활동, 가계배경 등 파악</li> </ul>	15~29세 개인(개인패널) - 1차: 8,296명 - 2차: 5,956명 - 4차: 5,001명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서 필요성 인정, 노동부의 인력수급전망 인프라구축방안 과제로 고용보험에서 예산 지원
5.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노동시장간 신뢰성 있는 인력수급정보 정보 구축</li> <li>○ 인력수급 불일치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li> </ul>	2004.8 및 2005.2 50만명 대졸자의 5%인 25,000명	한국고용정보원 ※2004.11 국무조정실 '인적자원개발·연구개발기획단'에서 인력수급체계 개선 과제로 제시 2005.10 국무조정실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5)」, 노동부 「인력수급인프라구축」 사업 일환으로 채택
6. 한국노동패널조사(8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적 노동연구 활성화 및 고용정책 수립·평가</li> <li>○ 가구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 파악</li> </ul>	도시의 약 5,000가구와 가구원(15세 이상 13,000명)	한국노동연구원



구분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기관·재원
7. 한국복지패널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 등 동태적 파악</li> <li>정책 지원 및 이의 효과성 제고</li> <li>정책효과성 평가 및 정책형성과 환류에 기여</li> </ul>	7,000가구 (중위소득 60%미만 3,500가구 + 60% 이상 3,500가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복지부 수탁→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으로 전환) ※보사연 자활패널, 차상위·빈곤패널과 서울대 복지패널 통합 구축
8. 여성가족패널조사 (예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파악, 여성의 일과 가족의 변화 실태 파악 등 정책자료 제공</li> </ul>	19~64세 여성가구원과 기혼여성의 배우자	한국여성개발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
9.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화관련 정책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 마련</li> </ul>	6,000가구의 중고령자(45세 이상 개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기금 출연금(노동부 지원)
10.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퇴직 전후 생활수준 변화과정, 퇴직준비 상황, 연금이 저축과 근로에 미치는 영향 등 파악</li> <li>국민연금의 장기적 발전방향 모색, 고령화대책수립에 기초자료</li> </ul>	50세 이상 가구원 거주 5,000가구 및 50세 이상 가구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원

### 제 3 절 패널의 조사주제 비교

국내패널들은 외국 패널이나 횡단면 조사와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가구용과 개인용 조사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부록 1]에 제시하였으며, 여기에서는 조사주제와 핵심문항을 비교 분석하였다(표 4-3). 국내 패널들의 조사주제는 크게 가구단위와 개인단위로 구분될 수 있다. 가구단위의 조사주제로는 가구변동, 가족관계, 주거환경, 보육실태, 가구(가족)경제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편, 한국교육종단연구는 학교단위의 조사주제로 학교 및 교사에 관한 실태도 포함하고 있다. 개인단위의 조사주제로는 조사대상의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외에 학교·가정·사회생활, 사교육, 진로·직업교육훈련, 결혼·출산, 경제활동, 건강상태, 사회보장(노후준비) 등이 나타난다.

국내 패널들 대부분은 가구단위 조사주제들로 가구변동, 가족관계, 주거환경, 보육실태, 가구(가족)경제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설문문항의 수나 깊이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각종 횡단면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가구변동의 조사주제는 주로 조사대상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가구원의 변동 즉, 신규진입(출생, 전입)과 이탈(사망, 전출)에 관한 설문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 패널은 비동거 가족에 대한 설문문항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패널조사 등 개인패널의 경우에는 가구원에 관한 설문문항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족관계의 조사주제는 주로 다른 조사주제와 가족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된다. 국내패널 대부분은 가족관계의 조사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교육관련 조사주제를 다루고 있는 패널들의 경우에는 학생의 보호자로서 부모의 배경(학력, 직업, 소득 등)에 대한 설문문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과 사회보장(노후준비)을 조사주제로 다루고 있는 패널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로 배우자의 특성, 노부모 또는 자녀와의 접촉빈도와 경제적 상호교환, 건강상태, 수발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 패널은 형제자매의 관계까지 파악하고 있으며, 여성가족패널조사는 가족관계의 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간 교류와 명절·제사, 노부모 돌봄 등에 관한 설문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패널 대부분은 주거환경의 조사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설문 문항들은 대체적으로 과거 거주지, 이사(계획·이유), 주택유형, 소유여부, 임차 형태, 임차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복지패널은 주거복지의 조사주제를 강조하여, 주거시설현황, 주거서비스수준, 복지욕구 등에 관한 많은 설문항목들을 조사하고 있다.

보육실태의 조사주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와 한국복지패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 등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패널은 보육에 대한 전문적·세부적인 설문문항을 포함하기보다 다른 조사주제와 관련하여 일부 설문 문항만이 조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고령자의 돌봄노동을 파악하는 설문문항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국내패널 대부분이 다루고 있는 가구(가족)경제의 조사주제는 주로 가구의 소득, 자산·부채, 소비·지출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교육관련 패널들에서는 부모의 자녀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그리고 고령화연구패널조사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는 노후보장과 관련하여 가구(가족)경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는 개인의 자산을 조사하여 부부간의 재산권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는 노후보장과 관련하여, 자산 등에 관한 아주 상세한 내용들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교원종단연구는 학교단위의 조사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학교 현황(교원현황, 예산 현황, 수업방식 등), 교장 및 교사의 인적사항 및 태도 등을 설문문항으로 포함하고 있다. 국내패널 중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한국교원종단연구가 유일하다.

국내 패널들은 조사대상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 연령, 학력, 혼인상태, 군복무경험, 생활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교육관련 패널들은 학교·학년·반·번호 등도 설문문항으로 포함하고 있다.

국내 패널들 중 일부는 조사주제로 학교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관한 설문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관련 패널들은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에 보다 중점을 두어 학생-부모관계, 학교수업, 여가활동(자원봉사, 아르바이트 수련, 동아리, 컴퓨터·휴대폰 이용, 친구 등), 용돈, 성적, 수업방식·이해도, 학습방법·능력,

학습태도, 근로경험, 학교·전공, 독학, 건강생활, 고민·이탈행위, 등록금, 편·입학·전학·휴학, 학비부담, 해외연수 등을 설문문항으로 조사하고 있다. 노동관련 패널들은 졸업학교에서의 생활, 재학학교, 경험 일자리, 어학연수 등 노동시장 진입이전 단계에 관한 정보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노후보장 관련 패널들은 자원봉사, 기부금, 종교, 친구·친인척 친밀성, 사회단체활동 등 사회생활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일부 패널들은 사교육과 관련하여 과목, 시간, 비용, 부담, 효과성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며, 특히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에서는 EBS 수능 특강 시청여부, 시간, 소감 및 평가에 관한 설문문항들을 추가하고 있다.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는 가정생활 주제와 관련하여 부부관계(만족도, 결정권, 형평성, 성생활, 갈등, 이혼고려 등), 가사노동(시간, 노동자, 비용, 부분담, 갈등, 환산비용 등) 등을 파악하고자 하며, 직장생활 주제에 대해서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간의 영향, 일에 대한 의견, 여가활동, 차별경험, 성희롱경험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진로·직업교육훈련 조사주제는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패널들 중 청소년패널조사, 한국교육중단연구,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청년패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등에서 동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설문문항들로는 희망 학교급·직업·산업(사업체규모, 중소기업기피), 진학계획, 진로준비, 진로관련 태도, 자격증, 진로 정보 접근성, 교육지속성(휴학·복학·중퇴), 해외연수·유학, 군입대, 교육훈련, 현장실습, 업무수행능력 등이다.

경제활동의 조사주제는 국내패널에서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다만, 패널조사 대상의 연령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에 아직 어린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경우에는 부모의 직업 등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학생대상 패널조사인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와 청년패널의 경우에도 교육과 고용을 연계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향후 노동시장 진입과 관련한 의향이나 일시적인 일의 경험 등을 질문하고 있다. 경제활동조사주제는 진로 및 직업교육훈련 등의 조사주제와도 연계되어 분석될 것이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와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경제활동 조사주제를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국

복지패널이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및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도 가구원과 조사대상의 노동활동에 관한 설문목록들을 포함하고 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와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 경제활동관련 질문문항은 은퇴 전후의 경제활동 특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경제활동의 조사주제를 구성하고 있는 설문문항들은 크게 취업 준비, 비취업(구직활동), 비경제활동자, 취업 등으로 구분되며, 취업자에 관한 정보는 다시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자영업) 등으로 구분된다. 취업자에 관한 설문문항들은 구체적으로 지난 1주간의 일자리(종사상지위, 직위, 업종, 근무시기, 직위, 고용형태, 종사상지위, 근무형태, 기업체유형, 사업장규모, 근로계약, 사회보험, 근로시간 규칙성, 정규·초과근로시간, 임금·수당, 임금방식, 성과급제, 노동조합, 교육·기술의 직무 적합성, 학력·전공·기술 적합도, 정규학교의 능력 향상, 임금체불, 복리후생, 구직방법, 직무만족도, 은퇴계획 등), 주된 일자리의 계속성 여부(진학·이직 계획, 준비 등) 등을 포함한다. 비취업자에 관한 설문문항들은 구체적으로 일자리경험 일거리, 퇴직, 구직활동, 희망일자리, 희망수입, 구직기간, 구직방법, 구직어려움, 자활지원프로그램 유형별 필요성 및 참여정도, 노동제한 원인 등을 포함한다.

결혼과 출산에 관한 조사주제는 국내패널들 중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 부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동 패널에서는 구체적으로 여성의 결혼력, 출산력, 자녀관, 피임, 인공유산, 이혼별거, 입양, 가치관(결혼, 자녀, 성평등) 등을 설문문항으로 포함하고 있다.

건강에 관한 조사주제는 조사 대상의 연령이 비교적 높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와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다른 패널들에서도 건강관련 설문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극히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국복지패널도 건강보장과 관련하여 건강상태, 질병, 의료기관이용, 건강검진 등에 관한 설문문항들을 조사하고 있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건강상태, 노인돌봄(수발, 부담 등), 환자돌봄(수발, 부담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건강에 관한 많은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주관적 건강, 장애판정, 활동제한, 만성질환, 건강상태, 운동, 영양, 흡연, 음주, 우울증, 신체계

측, 일상생활 능력, 도구적 일상 활동 수행능력, 간병수발 현황, 의료보장, 의료 시설이용, 지남력·악력 등이 있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도 육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및 장애에 대한 일부 문항들을 조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및 노후보장의 조사주제에 대한 것이다. 동 주제는 한국복지패널, 여성가족패널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등에서 다루지고 있다. 특히, 한국복지패널은 동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문문항들로 생활여건 및 주관적 생활수준, 기초보장 수급현황, 각종 사회보험 유형별 가입여부, 미납이유, 급여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 패널에서는 노인, 아동, 장애인, 가족 등의 복지 분야별로 서비스의 필요성, 이용경험 및 만족도 등도 조사하고 있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사회보험수급, 모성보호제도 등 인지도, 미래설계(노후생계, 거주, 자녀동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은퇴 및 노후준비와 노후보장에 관한 설문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한 특화된 문항들보다 일반적인 생활여건에 관한 일부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이상 국내 패널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부분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조사 주제와 설문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 패널에서도 보육실태, 교육, 진로·직업교육훈련, 학교생활, 가정생활, 사회활동, 경제활동, 결혼·출산, 건강상태, 사회보장·노후보장 등의 모든 주제를 집중하여 다루고 있지는 않다. 즉, 각 패널은 여러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나, 대부분 패널의 목적과 관련한 중점 주제와의 연관분석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설문문항의 구성이나 내용(깊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단순히 일부 조사주제 및 설문문항들이 부분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들을 통폐합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구분	청소년 패널조사	한국교육 중단연구	한국 교육고용 패널조사	청년패널	한국노동 패널조사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한국복지 실태조사	여성가족 패널조사	고령화 연구 패널조사	국민 노후보장 패널조사
환경		수업방식 제망활동 자율학습 보충수업 의견조사 학생검사 진로상담 <교장·교 사> 인적사항 태도 등								
개인										
기본 특성	성·연령 거주지	학교·학년 반·번호 성별 생년월일		학교유형 재학여부 군복무 혼인상태	혼인상태 사회보험 생활만족도 주관적 계층의식	성 혼인상태 군복무 가구주관계 성장지 <부모> 동거여부 학력 직업·소득	성장환경	혼인상태 연령 학력 등	생년월일 학력 혼인상태 (배우자 포함)	
학교· 가정· 사회 생활	부모와관계 학교수업 전학경험 인탈행위 운동 자이관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생활시간 <여가활동> 자원봉사 아르바이트 수련·동아리 PC·HP이용 친구 등	성격 수업방식 수업이해도 학습방법 학습능력 학습태도 여가활동 근로경험 등	입학·현황 학교·전공 학교생활 만족도 수업 독학 성적 학교활동 건강생활 고민 이탈행위 <여가활동> 근로경험 생활만족도 등록금	편입·입학 전학·휴학 성적 학비부담 학교·전공 근로경험 해외연수 <여가활동>		졸업학교 재학학교 재학중 일경험 여가연수 졸업전 취업목표	인터넷사용 생활만족도 자원봉사 기부금	<부부관계> 만족도 결정권 형평성 성생활 갈등 이혼고려 <가사노동> 시간·비용 노동자 부부분담 갈등 환산비용 <직장생활> 가정·직장 생활영향 일관된의견 여가활동 차별경험 회통경험 자녀교육 계입제한 기술·체별 불화	종교 친구·친인척 친밀성 사회단체 활동 등	
사 교육	과목, 형태, 시간, 효과, 비용		사교육경험 <EBS수능 특강>	과목, 시간, 비용, 효과			사교육기관 사교육비용 부담정도			
진로 직업 교육 훈련	희망학교급 희망직업 진학계획 진로준비 진로태도 자격증	희망학력 희망직업 부모희망	희망학교 희망직업 진학계획 진로지도 진로정보 휴학·복학 중퇴 해외연수	희망학교 희망직업 희망산업 (사업체·규 모, 중소기업) 취업준비 진로지도	직업교육 직업훈련 자격증 군복무	취업준비 직업훈련 자격증 향후진로		목적달성 이수여부 자격증		



구분	청소년 패널조사	한국교육 중단연구	한국 교육고용 패널조사	청년패널	한국노동 패널조사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한국복지 실태조사	여성가족 패널조사	고령화 연구 패널조사	국민 노후보장 패널조사
			유학 군입대 교육훈련 자격증 현장실습	직업교육 직업훈련 자격증 업무능력						
경제 활동			구직활동 일거리 구직방법, 종사상지위 상용직 시간제 소득 근무기간 근무시간 근무시간 그만둔이유 직장형태 연금·보험 임금·수당 임금제 노동조합 업무만족도	1주 경활 직무내용 고용형태 근로시간 소득 퇴직 직무만족도 학력·전공 기술적합도 능력향상 <지속성> 1년후 현직장계속 근로여부 진학·이직 계획, 준비 등 <구직활동>	1주 경활 주된일자리 업종·직위 근로시간 고용형태 종사상지위 근무형태 기업체유형 근로계약 사회보험 근로시간 규칙성 정규·초과 근로시간 근로시간 임금액 임금방식 성과급제 노동조합 교육·기술 직무적합성 <구직활동>	업종 근무시간 직위 고용형태 종사상지위 근무형태 근로시간 직무내용 소득 <첫 직장> 직업 후 일 자리 <구직활동>	근로능력 무능력사유 경활상태 고용형태 근로시간 업종·직종 사업장규모 <구직활동> 희망수입 구직기간 구직어려움 <자활지원> 프로그램 유형별 필요성 참여정도 <비경상태>	<경활> 일자리 업종·직위 근무시간 고용형태 종사상지위 근무형태 기업체유형 근로계약 사회보험 근로시간 규칙성 정규·초과 근로시간 임금액 임금방식 노동조합 근로조건 (휴가, 부리 후생 등) - <구직활동> 일만족도	<노동경협> 사업장 취업시기 종류·직위 고용형태 근로시간 지속가능 정기휴무 임금결정방 식/임금액 사회보험 노동조합 만족도  노동제한 원인 구직활동 은퇴계획 희망인자리 부업 및 아르바이트	근로 및 소득활동 주된일자리, 고용형태 종사상지위 근무시간 근무형태 근무기간 소득 중단이유 퇴직금 사회보험 정년제 마지막직장 경력 건강보험료 월부담액 현구직활동
결혼 출산							결혼력 출산력 자녀관 페인 인공유산 이혼별거 임양 가치관(결 혼, 자녀, 성평등)			
건강 상태							-건강상태 -의료기관 이용현황 -입원 -이용의료 기관형태 -검진횟수 -질병 -유해환경 작업경험 -흡수·흡연 ·우울증	건강상태 노인들봄 (수발·부담 등) 환자들봄 (수발·부담 등)	주관적건강 장애판정 활동제한 만성질환등 <건강상태> 운동, 영양, 흡연, 음주, 우울증, 신체계측 <일상생활 능력, 도구적 일상활동수 행능력> 간병수발 현황 <의료보장> 시설이용등 <지남력·악 력>	육체적건강 심리적건강 만성질환 장애

구분	청소년 패널조사	한국교육 중단연구	한국 교육고용 패널조사	청년패널	한국노동 패널조사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한국복지 실태조사	여성가족 패널조사	고령화 연구 패널조사	국민 노후보장 패널조사
사회 보장 · 노후 준비							공적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건강보험 의료보호 생활여건 주관적생활 수준 기초수급 복지서비스 (유형별) <노인복지> 서비스 필요성·경 험·만족도 <아동복지> 저체중·기 형여부 <장애인부 지> 서비스 필요성·경 험·만족도 <가족복지> 근심·갈등· 부부갈등· 가정폭력등	사회보험 모성보호제 도 등 인지 <미래설계> 노후생계 노후거주 자녀등거 등	주관적경제 기대수명 생활수준 정부기대감 삶의만족도	삶의 여건 만족도 은퇴 태도 노후준비 <노후보장> 생활비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보험· 각종보험

## 제 4절 패널의 표본 설계 및 가중치 부여

### 1. 표본설계방법 및 표본추출

청소년패널조사는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조사시기가 상이하여 때문에 모집단 및 표집틀, 표집방법이 다소 상이하다. 먼저 중2패널의 경우에는 2003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을 모집단으로 한다.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2003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2003년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한다. 반면 초4패널에서는 200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초등학교4학년 청소년들을 모집단으로 하며, 이를 위해 2004년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한다. 중2패널과 초4패널의 세부적인 표집방법은 다소 상이하나 전체적으로는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한다(이경상 외, 2004).

교육중단연구는 체육 중학교와 분교를 제외한 전국의 2,929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모집단으로 한다. 조사 대상으로 추출된 학생의 학부모가 학부모 표본이 되고, 1학년 담당 교사 전원이 교사 표본이 된다. 표집추출방법은 층화집락 확률추출법으로, 1단계에서는 비례층화추출법으로 목표 표집 학교수를 결정한다. 즉, 전국을 도시 규모에 따라 층(stratum)으로 나누어 목표 표집수를 계산하고, 도시규모는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의 네 개 층으로 분류하여 각 층별 학생 수 비율에 따라 목표 표집 학교 수를 결정한다. 2단계에서는 각 층으로부터 군집(cluster)인 학교를 무작위 추출하고, 3단계에서는 추출된 학교로부터 학생을 무작위 추출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05).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는 2004년 현재 중학교, 일반계·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모집단으로, 2003년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조사대상 중학교 2,903개 학교 중 제주도, 도서벽지, 2학년이 30명 이하인 학교를 제외한 시·읍·면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1,167개와 실업계 고등학교 128개 학교를 합한 1,295개 학교가 조사 모집단이다. 표본추출은 1단계에서 전국을 지역별로 층화하고(실업계 고등학교는 학교유형별로 층화), 2단계에서 지역별 학생 수 비

율에 따라(실업계 고등학교는 학교유형별 학생 수 비율에 따라) 학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에서 학급 및 학생을 추출하는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을 사용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청년패널은 2001년도부터 실시된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의 부가조사 형식을 취한다. 따라서 패널조사만의 표본추출틀을 갖고 있지 않으며, OES조사에서 사용된 표본추출방법을 모태로 한다. 즉, OES조사를 위해 선정된 50,000가구 중 조사구별 무작위추출법을 사용하여 20%인 약 10,000가구를 대상가구로 선정한다. 평균 가구원수를 3.12명으로 추정하고 이 중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인구비율을 25%로 추정하여 8,000명을 조사대상 표본으로 선정한다. 이처럼 OES조사의 부가조사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지역별, 연령대별 패널분포가 실제 모집단의 분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어수봉, 2002).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표본틀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졸업생취업조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지역, 전공, 성별, 학교(대학교, 전문대)를 층화하여 50%씩 전공대분야별로 무작위추출 하였다. 이와 같은 표출방법에 의거하여, 전국의 전문대 이상 졸업생 중 25,000명이 표본으로 추출되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전체 도시 조사구(시부 동부와 시의 읍·면부)에 거주하는 가구를 모집단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에서 사용한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인 전국의 21,938조사구 중에서 제주도의 263조사구를 제외한 21,675조사구를 1차 대상으로 했다. 이 중에서 군부지역(2,650 조사구)을 제외한 전국의 도시지역(시의 동부 17,353조사구와 시의 읍면부 1,672 조사구)의 19,025 조사구를 표본틀로 한다. 이러한 표본틀을 토대로 1단계에서 조사구를 선정하고 2단계에서 가구를 선정하는 2단계층화집락계통추출법을 사용한다(한국노동연구원, 2006).<sup>주11)</sup>

주11) 한국노동패널조사의 2단계층화집락계통추출법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 층화 과정에서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동일지역 내에서는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층화방법을 사용하였다. 지역은 서울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등 15개로 구분하였으며, 이렇게 구분된 지역 내에서 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층화방법을 이용하여 조사구를 층화하였다. 1단계 조사구 추출과정으로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경우 층화된 조사구들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구에서의 전국도시조사구(19,025개) 대비 해당지역의 도시조사구의 비율을 이용하

한국복지패널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27만여 개 조사구 중 90%인 243천 조사구 중 예비조사구를 포함하여 517개 조사구를 지역별 조사구 규모에 따라 층화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16), 조사구형태(2), 주택유형(30) 등을 사용하여 총 96개 층으로 나누고, 각 층별로 확률 비례 추출하였다. 이렇게 표출한 전체 517개 표본조사구 중 문제조사구를 제외한 487개 조사구에 대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 7,000가구를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인 3,500가구와 중위소득 60% 이상인 3,500가구를 각각 표출하였다. 저소득층과 일반가구층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가구소득을 이용하여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공공부조이전 경상소득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공공부조이전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저소득층 가구의 비율은 약 25%로 추정되나, 저소득층 표본가구는 패널마모율을 고려하여 과대표본추출 하였다(김미곤 외, 2006).

여성가족패널조사는 현재 조사 설계 단계로 구체적인 조사 설계는 추후 연구를 통해 재확인이 요구되나,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집단가구와 외국인 가구를 제외한 전국의 일반 가구 중 19~64세 여성 가구원과 기혼 여성의 배우자를 모집단으로 한다. 표본추출을 위한 표집틀은 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와 가구수 및 2001년 이후 신축된 아파트 가구수에 관한 자료를 표집틀로 활용할 예정이다. 자료 조사 단위는 가구단위이지만, 관찰 단위는 개인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위해 다단계 층화확률추출법을 통해 표본을 추출한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6).<sup>주12)</sup>

---

여 추출할 도시조사가구수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2단계 가구추출 과정으로 추출된 조사구 중에서 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에서 조사에 성공한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 및 경기도의 읍면부 지역에서는 6가구, 기타지역은 5가구를 추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추출된 5,000가구 중 실시과정에서 표본 조정 과정을 거쳤다.

주12) 1단계에서는 16개 시도를 1차 층으로 설정하고, 2단계에서는 시도별로 동과 읍면 등 거주지역을 2차 층으로 하여, 3단계에서는 아파트와 일반주택의 주택유형을 3차 층으로 모집단을 3차원으로 층화하고, 표본할당을 각 차원층별로 하여 가구의 경제상황이나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을 거주지 및 주택유형 추출에 의하여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부자료, 2006).

〈표 4-4〉 국내 패널조사의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방법 비교

패널 구분	모집단	표본추출틀	표본추출방법
청소년패널조사	◦ 전국의 중교 2학년 ◦ 전국의 초교4학년	◦ 2003년 교육통계연보 ◦ 2004년 교육통계연보	층화다단계집락표출
한국교육종단연구	전국의 2,929개 중학교 1학년 학생	2004년 교육통계연보	층화다단계집락표출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전국 중학교, 일반계·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003년 교육통계연보	층화다단계집락표출
청년패널	전국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15~29세 이하 개인	19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 중 제주도, 시설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보통 조사구	무작위추출법(OES표본의 20%) *OES표본추출법:층화다단계집락표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전국의 전문대 이상 졸업생	한국교육개발원의 졸업생취업조사	층화무작위추출법
한국노동패널조사	전체 도시 조사구에 거주하는 가구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 중 제주도, 군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도시지역	층화다단계집락표출
한국복지패널	전국 일반가구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90% 일반조사구의 가구	층화다단계집락표출
여성가족패널조사	전국 일반가구 중 19~64세 여성 가구원과 기혼여성의 배우자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와 가구수 및 2001년 이후 신축아파트 가구수	층화다단계집락표출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전국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개인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중 제주도 제외 일반가구 거주 개인	층화다단계집락표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전국 일반가구의 50세 이상 개인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구(일반조사구)가구	층화다단계집락표출

자료: 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7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2006.  
 2) 이계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표본설계', 한국노동연구원, 2006.  
 3) 어수봉, '고용구조 및 청년패널의 조사 설계', 중앙고용정보원, 2002.  
 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부자료, 2006.  
 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년도 조사(2004) 사용자 지침서」, 2005.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인구를 모집단으로 한다. 45세 이상의 일반가구 거주자 10,000명을 최대 유효 표본크기로 정하였으며, 가구당 45세 이상 인구가 1.67명 정도임을 고려하여 전체 조사대상 가구는

6,000가구이다. 조사수행의 편의와 표본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구당 표본조사 대상 가구는 6가구로 하였고 표본조사구의 수는 1,000개 이다. 이러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지역과 주거행태를 고려하여 층화변수로 이용하였다. 즉, 지역의 층 구분은 15개 특별시·광역시와 도별로 동부와 읍면부로 층화하였다. 그리고 지역층 내에서는 아파트지역과 일반주택지역으로 층화하였다. 이처럼 시도별·동부·읍면부·주거형태별로 추출된 본표본조사구의 가구명부와 조사요도를 이용하여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수행여부를 판단한 후에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층에서 예비조사구로 교체한다(이계오, 2006).<sup>주13)</sup>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표본추출방법을 보면,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중 24,995개 일반조사구(1,420,2999)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추출 하였다. 즉,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시 직업 및 산업 등 주요 특성에 관한 조사는 10% 표본조사구에서만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를 추출틀로 하여 확률비례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을 활용하여 500개의 표본조사구를 추출한 것이다. 다만, 신축아파트 조사구와 관련하여서는 원 표본과의 시점간 불일치로 인해 500개의 원표본 조사구에 완전히 반영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일반주택과 신축아파트의 비율을 고려하여 34개의 신축아파트(2000년 11월에서 2004년 10월까지 신축)를 조사대상 조사구로 별도로 구성하였다. 한편, 신축아파트 조사구를 제외한 표본조사구(500개 조사구)는 2000년 기준이므로, 실태조사과정을 거쳐 일부 표본에 대해서 보완 및 대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500개 조사구 중 표본조사구 조사 및 예비조사 과정을 거쳐 대체된 표본은 총 57개 조사구로 나타났다. 본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현장에서 발생할 새로운 조사구의 유실문제 및 조사응답자의 분포 불균형(성, 연령 등) 현

주13) 실제 현장조사에서 표본조사구의 조사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본 표본의 20% 정도의 예비표본조사구를 층별 할당표에 추가한 후에 조사모집단에서 계통추출법으로 표본조사구(본표본과 예비표본을 통합)를 추출하였으며 추출과정에서 조사적격가구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조사적격가구수가 20가구 미만인 조사구는 다음 조사구로 대체하였다. 이외 같이 추출된 표본조사구 리스트에서 예비조사구를 계통추출법으로 선정하여 본표본 조사구와 예비표본조사구를 분류하였다.

실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차이는 사후가중치를 활용하여 보정할 예정에 있다(이용하 외, 2005).

이상 국내 패널들의 모집단과 표본추출틀 및 추출방법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3개 패널(청소년패널조사, 한국교육종단연구,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은 교육통계연보 상 전국 학교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출하여 조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모집단을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청소년패널조사), 중학교 1학년(한국교육종단연구),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으로 서로 다르다. 이들 패널들을 종합하면,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전체 학년(1~3학년), 고등학교 3학년으로 구성된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졸업생취업조사에서 파악한 전국 전문대 이상 졸업생을 모집단을 대상으로 층화무작위추출법을 적용하여 조사대상을 설정하고 있다. 앞서의 패널들이 재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표출한 반면,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경우에는 전문대 이상 졸업생을 표출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청년패널,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복지패널, 여성가족패널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및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모두 가구패널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를 이용하여 전국 일반가구의 모집단에서 조사대상 가구를 층화다단계집락표출하였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차이점으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도시조사구의 도시가구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청년패널의 경우 무작위추출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조사대상을 가구원 중 일부로 한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청년패널은 15~29세 가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5세 이상 가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는 19~64세 여성가구원과 배우자,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45세 이상 개인,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50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한, 패널의 시작 시기와 연관된 것으로 표본추출틀로서 인구주택총조사의 연도가 다르다. 즉, 청년패널과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5인구주택총조사,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2000인구주택총조사, 한국복지패널, 여성가족패널조사 및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2005인구주택총조사를 이용하였다.



## 2. 가중치 부여

종단면조사는 1차년도 조사의 경우에는 횡단면조사와 동일하나, 2차년도 이후부터는 종단면조사의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가중치부여에 있어서도 1차년도 조사와 이후의 조사와 가중치 부여에 있어 방법론적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모집단이 가구 또는 개인인가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패널조사 중 가구와 개인을 표본대상에 포함시켜 분석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2차년도 이후의 가중치부여방법은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가중치부여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가. 1차년도 방법 비교: 한국노동패널조사와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모든 횡단면조사가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가중치가 계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3단계 과정을 거친다. 대부분의 횡단면 조사는 표본추출확률이 상이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 1단계에서는 표본추출확률을 계산한다. 이 때 표본의 모집단에 대한 부분포함(incomplete coverage)의 문제도 동시에 고려한다. 다음으로 2단계는 무응답(non-response) 조정단계이다. 여기서는 무응답을 조정하기 위해 표본이 속한 지역에 대한 자료를 통해 표본을 분할하는 방법, 모든 표본의 알려진 성질을 이용하여 회귀분석(또는 로짓분석)을 실시하는 방법 등이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가중치를 구하는 3단계이다. 주14) 1단계와 2단계를 거친 후 나타난 표본의 성질을 외부적으로 알려진 전체모집단의 성질과 근사시키는 과정이다(강석훈, 2003).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1단계인 지역별 도시조사구의 추출확률을 산출하기

주14) 사후층화방법은 벤치마킹 가중치 보정방법 중 하나이다. 벤치마킹 가중치는 패널조사와 같이 다년간에 걸쳐 동일한 표본을 계속 사용함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모집단 변동이 표본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센서스, 주민등록 자료 또는 다른 대규모 조사에 의해 얻어진 인구사회 변수에 따른 모집단 구성비율과 표본에서 가중치를 적용해 얻은 추정결과가 일치하도록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는 사후층화방법 이외에 ranking ratio법 등이 있다(이계오, 2006).

위해 지역별 전체조사구 중에서 도시조사구의 비율을 이용하며, 도시조사구 중에서 표본조사구로 추출될 확률은 도시조사구 중에서 표본조사구의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sup>주15)</sup> 즉, 서울·6대 광역시, 도의 동부 및 읍면부의 표본조사구 추출확률은 해당 시·도의 표본조사구수 또는 동·읍면부 표본조사구수를 해당시의 조사구수 또는 도의 동·읍·면부 조사구수로 나눈 값에 0.1을 곱한 것이다.<sup>주16)</sup> 최종표본가구 추출확률은 총접촉시도가구를 조사구내에서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에서 응답한 가구수로 나눈 값이며, 이를 조사구추출확률과 곱한 것이 가구추출확률이 된다. 다음으로 응답률조정을 위해서는 무응답가구에 대한 특성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경우에는 무응답가구의 지역과 조사구(Enumeration districts: ED)를 이용하여 응답률을 계산하였는데, ED내에서 응답자와 무응답자의 특성이 같다는 가정 하에 ED내에서의 응답률(최종조사가구수/ED내 총접촉가구수)을 면접확률로 이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출된 추출확률과 응답확률을 이용하여 가구가중치를 계산한다. 특정한 가구의 가중치를 산출하면 가구추출확률과 가구가 속한 지역의 응답률의 곱의 역수로 나타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3단계인 가구단위와 개인단위에서의 사후층화방법이 있으나,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고려하지 않아 동일한 가구내의 가구원은 모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받는다(한국노동연구원, 2006).<sup>주17)</sup>

주15) 한국노동패널조사는 개인과 가구 모두를 분석단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가중치와 가구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추출확률이 동일하므로 가중치를 추출확률로만 계산하는 경우 개인가중치와 가구가중치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또한 가구가 응답한 경우 대부분의 가구원이 응답하였으므로 응답확률을 고려하더라도 개인가중치와 가구가중치는 동일하게 된다(강석훈, 2003).

주16) 0.1을 곱하는 것은 전국 모집단의 동부 및 시의 읍면부의 비율과 10%표본에서의 동부 및 시의 읍면부 비율이 같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강석훈, 2003).

주17) 사후층화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먼저 가구단위의 정보는 1995년 센서스에 의한 자료가 1차 조사에 가장 최근의 자료로 이를 이용한 사후층화는 시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통계청의 인구추계자료가 있으나, 지역별, 연령별 세분화가 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나 고용구조특별조사의 결과를 이용하여 사후층화를 고려할 수 있으나, 양조사 모두 표본조사이므로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사후층화하는 것은 사후층화의 의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강석훈, 2003).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의 1차 조사의 가중치부여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 조사에서는 학생과 그 학생의 가구, 학교행정가, 담임교사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표본학생에 대한 횡단면학생가중치, 표본가구에 대한 횡단면가구가중치, 표본학교에 대한 횡단면학교가중치 그리고 표본담임교사에 대한 횡단면담임교사가중치를 구분하여 고려한다.

먼저, 학생 가중치를 산출하기 위해 학교의 추출확률, 추출된 학교에서의 학급 추출확률, 추출된 학급에서의 학생 추출확률들을 곱으로 계산하며, 학생의 추출확률 보정 가중치는 학생의 추출확률의 역수로 계산한다. 그러나 1차 조사에서는 모든 학생이 응답함에 따라 모든 학생의 응답률이 동일(=1)하여 학생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고려하지 않았고, 학생의 가중표본크기의 합에 대한 2004년 3학년 전체 학생소의 비율로 사후층화하였다.

다음으로 가구 가중치는 가구의 추출확률 산출, 무응답 보정, 사후층화 단계를 거쳐 산출하였다. 먼저 가구의 추출확률은 학교의 추출확률, 추출된 학교에서의 학급 추출확률, 추출된 학급에서의 가구(학생) 추출확률들의 곱으로 계산하며, 가구의 추출확률 보정 가중치는 가구(학생)의 추출확률의 역수로 계산한다. 또한 가구의 응답률은 추출된 학급의 표본 가구 수에 대한 실제 조사된 가구 수의 비율로 계산하며, 가구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가구의 응답률의 역수로 계산한다. 그리고 가구의 사후층화 가중치는 가구의 가중표본크기 합에 대한 2004년 3학년 전체가구 수의 비율로 계산하였다. 이외 담임교사 가중치도 동일한 과정을 통해 산출하였다.

〈표 4-5〉 한국노동패널조사 및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의 가중치 비교

구분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교육패널조사
표본추출확률 계산	○	○
무응답 조정	○	○
벤치마킹 가중치(사후층화)	×	○

자료: 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7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2006.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년도 조사(2004) 사용자 지침서」, 2005.

나. 2차 조사 이후의 가중치 부여 방법: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중심으로

가구와 개인을 동시에 고려한 패널조사에서 1차 조사에 대한 가중치는 앞에서 살펴본 한국노동패널조사와 같은 횡단면가중치부여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2차년도 조사 이후부터는 종단면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종단면가구가중치 및 종단면개인가중치 등의 가중치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횡단면조사에서 발생하지 않는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먼저 각 연도별 조사 간에는 표본탈락(panel attrition)이 발생하게 된다. 표본탈락은 가구차원에서 발생하거나 개인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항목무응답도(item non-response) 수 있다. 이러한 항목무응답의 경우는 가중치부여 방법보다는 보정(imputation)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결혼, 이민, 출산, 사망, 실종 등으로 인해 표본가구에 새로운 개인이 포함되거나 탈락하기도 한다. 이처럼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가구구성이 달라져 종단면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가구의 개념이 모호해진다. 이러한 개념상의 문제로 인하여 2차 웨이브 이후부터는 종단면가구가중치를 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미국의 PSID와 동일한 추적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가중치부여를 위해 Duncan방법론(표 4-6 참조)을 사용하였다(강석훈,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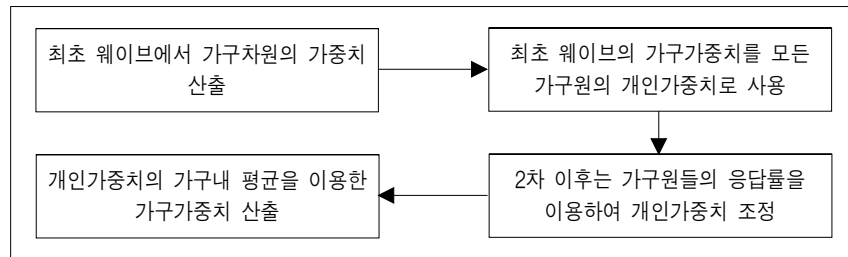
〈표 4-6〉 Duncan의 가중치와 사용방법

구분		가중치	참고
개인 차원	종단면분석	개인가중치	◦ 표본수 감소(비표본가구원 제외됨) ◦ 사용 가정 약함
		가구가중치	◦ 표본수 최대(비표본가구원 포함) ◦ 비표본가구원의 추출확률을 표본가구원과 동일시
	횡단면분석	개인가중치	◦ 표본수 감소(비표본가구원 제외) ◦ 사용 가정 약함
		가구가중치	◦ 표본수 최대(비표본가구원 포함) ◦ 비표본가구원의 추출확률을 표본가구원과 동일시
가구 차원	종단면분석	가구가중치	◦ 종단면가구와 동일한 가구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 개념이 정의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음
	횡단면분석	가구가중치	

자료: 강석훈, 「KLIPS의 가중치 부여방안 연구」, 『한국노동패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3.

보다 구체적으로 가중치부여 방법론을 살펴보면 먼저 최초 조사년도에서 가구차원의 가중치를 구한다. 이 때 표본추출과정에서 사용된 상이한 추출확률을 감안하여야 하며, 가능한 경우 상이한 응답률로 보정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외부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집단의 정보가 있다면 이러한 사항들을 비율조정(ratio estimating procedure)을 이용하여 적용한다. 최초 조사년도에서 작성된 가구가중치를 연령이나 응답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원의 가중치를 사용한다(한국노동연구원, 2006).

[그림 4-1] 한국노동패널조사의 2차년도 이후의 가중치부여 절차



자료: 강석훈, 「KLIPS의 가중치 부여방안 연구」, 2003을 재정리한 것임

2차조사 이후부터는 가구원들의 상이한 응답률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조정한다. 이 단계에서는 가구와 가구원의 정보를 모두 이용한다. 반면, 1차조사에 응답하지 않았던 비표본가구원이나 1차조사 후 새로 진입한 가구원은 개인차원의 무응답조정과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2차년 조사에서 산출된 가구원가중치 평균을 이용하여 2차조사의 가구가중치를 산출한다. 평균을 구할 때는 원시가구원의 가구원가중치의 합을 전체 가구원수(비표본가구원과 표본가구원의 합)로 나누어 계산한다. 원시표본가구원과 결혼 등의 사유로 새롭게 진입한 비표본가구원의 경우에는 0의 가구원가중치를 부여한다. 새롭게 태어난 가구원의 경우에는 가구가중치를 계산할 때 제외되며, 이 가구원이 속한 가구의 가구가중치를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가중치부여과정을 거치게 되면 가구 차원에 무응답조정가중치가 산정되며, 최초 조사에 존재했던 가구원의 개인차원의 무응답조정가중치가 산출된다. 비표본가구원의 경우는 0의 개인가중치를 가지고 새로

태어난 가구원은 이들이 태어난 조사년도에서의 가구가중치를 개인가중치로 부여받는다. 2차년 이후 조사에서도 동일한 방법이 이용된다. 1차조사를 기준으로 이후 조사에 존재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위 과정을 반복한다. 진입·탈락을 반복하는 원시표본가구원의 경우 위 방법을 적용하며, 비표본가구원의 경우에는 조사년도의 가구가중치의 평균을 부여받는다(한국노동연구원, 2006).

마지막으로 이렇게 산출된 가중치는 스케일 조정을 거친다. 1998년 가구가중치는 이미 조정된 것으로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연도의 경우에는 통계청의 가구추계자료(2000~2005)의 5년간 총가구수 증가율을 평균한 값을 한국노동패널조사 1차년도 가중치합계에서부터 매년 곱하여 산출한다. 개인가중치의 스케일 조정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농가 생산가능인구(1998~2002)의 5년간 평균증가율을 이용하여 1차년도 개인가중치 합계에 평균증가율 값을 매년 곱해주는 방식으로 산출한다(한국노동연구원, 2006).

〈표 4-7〉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가구가중치 및 개인가중치 특성

	구분	사례수	합계	평균(표준편차)
1차년도	가구가중치	5,000	11,276,899	2,255 ( 415, - )
	개인가중치	13,321	30,039,370	2,255 ( 416, - )
2차년도	가구가중치	4,508	11,453,518	2,541 ( 575, - )
	개인가중치	12,039	30,503,448	2,533 ( 577, 676)
3차년도	가구가중치	4,266	11,632,899	2,727 ( 721, - )
	개인가중치	11,205	30,974,696	2,764 ( 726, 879)
4차년도	가구가중치	4,247	11,815,100	2,782 ( 850, - )
	개인가중치	11,051	31,453,224	2,846 ( 854, 1056)
5차년도	가구가중치	4,298	12,000,165	2,792 ( 946, - )
	개인가중치	10,966	31,939,145	2,913 ( 964, 1215)
6차년도	가구가중치	4,592	12,188,092	2,654 (1001, - )
	개인가중치	11,543	32,432,573	2,810 (1029, 1314)
7차년도	가구가중치	4,762	12,378,982	2,599 (1063, - )
	개인가중치	11,661	32,933,624	2,824 (1117, 1446)

주: 평균(표준편차)에서 표준편차는 횡단면 표준편차와 종단면 표준편차를 나타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7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2006.

## 제 5 절 패널의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 1. 예비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중심으로<sup>주18)</sup>

패널조사는 일회적인 횡단면조사와는 달리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기간에 걸쳐 동일 가구 또는 개인을 추적 조사한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의 패널 설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sup>주19)</sup> 예비조사는 본조사를 대비하여 면접원 교육, 설문방식, 실시관리, 문항구성 및 내용 등 모든 사항을 본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개선 및 보완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사회생활에 관한 제도개선과 정책 수립을 위한 심층자료 수집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예비조사 과정을 고찰하고, 향후 패널조사 실시를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가.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예비조사 개요

고령자연구패널조사는 3차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는 조사문항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고, 2차 예비조사는 주로 CAPI를 이용한 조사방법의 적합성을 위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3차 예비조사는 본조사를 대비한 최종 점검을 목적으로 면접원 교육, CAPI설문, 실시관리 등 모든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3차 예비조사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동 조사는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중고령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인구, 가족, 건강, 고용, 소득, 자산, 주관적 기대감 및 삶의 만족도 등 7개 조사 영역으로 구분하여 2006년 7월부터 6개월간 실시하고 있다.

주18) 예비조사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 고령화연구패널팀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3차 예비조사 실시보고서’를 재정리한 것이다.

주19) 특히, 조사항목이 중장기적인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지 않아 익년조사에서 추가되거나 제외될 경우 패널조사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시계열적 분석 자체가 곤란하게 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3차 예비조사는 2006년 4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요도 복사, 리스트 정리, 조사구 탐색, 면접원 교육, 실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방법은 CAPI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각 8개 조사구(아파트 조사구 3개와 일반주택 조사구 5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5개 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는 광역시 전체에서 조사구를 추출한 반면, 5개 도(경기, 경남, 경북, 전남, 충남)는 조사 편의와 효율적인 실사관리를 위해 TNS KOREA<sup>주20)</sup>에서 시군을 1차로 선택하고, 선택된 시·군 내에서 조사구를 추출하였다. 투입 면접원은 총 29명으로 지역별로 할당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조사일정별 추진내용

조사구의 가구주소가 담긴 명부와 조사구내 가구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요도를 4일간에 걸쳐 복사하였는데, 예비조사용뿐만 아니라 본조사에 필요한 분량까지 동시에 복사를 하였다. 동 작업은 조사의 용이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조사구의 재개발·철거 여부, 해당 가구의 가구원 거주 유무 등 조사 실시 이전에 해당 조사구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86개 조사구에 40여명의 탐색요원을 투입(1개 조사구 당 평균 0.8일 소요)하여 조사구 탐색작업을 실시하였다. 최초 80개 조사구 중 6개 조사구는 대체가 요구되는 상황이 발견되어 예비조사구로 대체하였다. 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요구된다.

조사구 탐색 결과를 통해 작성된 조사구 리스트를 바탕으로 600가구(5개 광역시: 조사구당 8개 가구/320가구, 5개 시군: 조사구당 7개 가구/280가구)를 표본추출하였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예비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구·부산, 광주, 서울·대전 등 3개 지역에서 면접원, 지도원, 교육자, 참관인(연구진) 등이 참여한 면접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조사개요, 설문 구성 및 내용 소개, CAPI 실습 등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2006년 4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실사를 진행하였

주20) 대부분의 국내패널조사는 조사주관기관 자체의 면접원 등 조사인력이나 조직체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으로 조사의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외부조사기관을 조사수행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고흥자연구패널조사의 경우 TNS KOREA가 조사수행기관으로 실조사하고 있다.



다. 실사과정에서 면접원들은 공통적으로 응답대상자 부재, 밤늦은 시간 면접의 어려움, 설문길이 부담, 다단계 승낙 받기 곤란 등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이처럼 예비조사에서는 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본 조사와 동일한 조사표, 조사방법, 조사절차 등을 적용하여 조사설계 및 실사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조사로, 제한된 시간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번의 예비조사 실시가 요구된다.

〈표 4-8〉 고령자연구패널 3차 예비조사 결과

(단위: 가구, %)

추출가구수	가구접촉률 <sup>1)</sup>	적격가구율 <sup>2)</sup>	조사성공률 <sup>3)</sup>
600	98.5	61.6	71.9

주: 1) 가구접촉률: 전체 접촉가구수/전체 할당가구수

2) 적격가구율: 전체 적격가구수/전체 접촉가구수

3) 조사성공률: 면접완성사례수/응답대상자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3차 예비조사 실시보고서’, 2006을 재정리함.

## 2. 본조사방법·과정: 한국노동패널조사와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의 비교

### 가.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조사방법 및 과정

한국노동패널조사는 크게 가구용 설문과 개인용 설문으로 구분된다. 가구용 조사 대상은 원표본 가구인 5,000가구와 원가구에서 분가한 신규 분가가구이다. 설문은 직접 면접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면접원은 주로 가구주 본인이나 가구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면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으로 개인용 설문 대상은 각 연도별 조사대상 가구에 소속된 만 15세 이상의 개인이다. 이 중에서 1차년도 조사 당시 원가구원들이 분가하여 새로운 가구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분가가구원 조사추적 원칙’에 따라 추적 조사한다.주21) 조사기간 동안 유

주21) 반드시 추적해야 하는 가구원은 1998년 조사 가구원과 그 자녀이다. 예를 들어, 1998년 서울에 사는 한 가구가 원가구로 선정되었는데 2000년 12월 형과 아우가 같이 대전으로 분

학, 출장, 여행, 입원, 실종, 행상 등의 이유로 함께 거주하지 않아 면접조사에 응할 수 없는 가구구성원에 대해서는 <표 4-9>의 원칙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다.

<표 4-9>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가구구성원 추적조사 원칙

구분	추적조사방법
◦ 실시기간 중 가구로 일시 또는 완전 복귀하는 사람	직접조사
◦ 가구로 복귀하지 않은 사람	전화조사
◦ 면접이나 전화조사가 어려우면서 현재 경제활동자	대리응답
◦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응답할 수 없는 성인	대리응답
◦ 면접이나 전화조사가 어려우면서 현재 비경제활동자	개인용 응답대상 제외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7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을 재정리한 것임

질문형태는 면접원이 설문문항을 응답자에게 구두로 질문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면접원이 기록하는 '면접타계식'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심야귀가 등의 원인으로 면접원이 조사대상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치조사방법을 사용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 처음으로 조사된 신규조사자의 경우는 개인용 조사방법과 동일하게 조사한다.주22)

<표 4-10>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각 연도 조사방식별 분포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면접조사	64.4	77.7	83.0	83.7	83.8	86.8	88.0
유치조사	21.7	7.6	5.1	3.3	2.6	1.7	1.8
전화조사	1.5	7.4	5.3	4.6	3.9	3.8	4.1
면접조사+전화조사	2.6	4.7	3.8	4.9	6.4	5.7	3.7
유치조사+전화조사	3.7	2.5	1.4	1.2	1.0	0.9	0.4
면접조사+유치조사	2.6	-	0.9	1.8	1.0	1.3	1.6
면접조사+유치조사+전화조사	-	-	0.2	0.5	1.3	0.4	0.5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7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2006.

가하고, 이후 형이 부산으로 재분가하였을 경우 형과 동생 모두를 추적조사한다. 반면 원 가구원이 아닌 경우는 추적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로 1998년에 선정된 가구가 2001년 12월에 아들내외와 잠시 함께 살다가 2003년 재분가한 경우, 이들 가구는 추적대상에서 제외된다.

주22) 신규조사대상자는 지난해 만14세였다가 조사년도에 만15세가 된 개인, 전년도에 조사대상이었으나 군복무 등의 이유로 조사를 하지 못한 개인, 분가를 발생하게 된 신규가구원 중 만15세 이상인 개인 등이다.

이러한 현장 실사는 전문 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가 1차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조사 기간은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연인원 100여명 정도의 전문 면접원이 투입되어 조사가 진행된다. 면접원 교육은 매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지역별로 설문지의 내용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을 받은 면접원 중에서 패널조사의 어려움으로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육에 투입되는 면접원의 수는 실질적으로 조사수행에 필요한 면접원수보다 20~30%가량 많다.

〈표 4-11〉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실사 개요

구분	내용	비고
조사담당	한국리서치	1차년도 이후 계속 담당
조사기간	매년 5월~9월(5개월간)	
면접원규모	연간 100여명	
면접원 교육	지역별로 구분하여 실시	면접원 중도탈락률 20~30% 고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7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을 재정리한 것임

#### 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의 조사방법 및 과정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의 조사대상자는 학생, 학부모, 담임교사, 학교행정가(교감 또는 교무담당 교사)이다. 동 조사의 조사방법 역시 한국노동패널조사와 동일하게 면접타계식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를 위해 PDA를 사용한다.<sup>주23)</sup> 단, PDA조사가 곤란한 경우 종이와 연필을 이용한 조사를 병행한다.

조사를 위해서 학교행정가(교감 또는 교무담당 교사)를 통하여 학교조사에 대한 조사 승인을 받은 이후, 표본추출 원칙에 의거하여 선정된 반의 담임교사와 학생을 조사한다. 학교 및 학생조사가 완료되면 학생의 가구를 방문하여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과정 중 설문대상이 설문조사 부적합

주23) PDA조사의 기존 조사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을 가진다. 현장조사 통제의 실패에 따른 데이터의 신뢰성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모순된 응답을 시스템 내에서 검증하여 경고문을 보여주는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데이터의 질 제고가 가능하다. 부호화, 자료 입력, 검증 등에 따른 비용 지출을 절약할 수 있으며, 데이터 생성까지의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PDA 사용방법 숙지를 위한 면접원 교육이 필요하다.

자이거나 설문응답거부의사를 보여 설문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 원칙에 따라 설문대상을 대체한다.

[그림 4-2]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의 조사 과정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년도 조사(2004) 사용자 지침서', 2005.

## 제 6 절 패널의 조직·인력 및 표본관리

### 1. 조직 및 인력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패널조사의 담당조직은 패널조사를 설계·주관하는 조직과 실사 담당 조직으로 구성된다. 국내의 대부분의 패널조사들이 주관기관 내에 연구책임자 1인과 2~6인 정도의 연구진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전담팀은 연구 설계 및 실사 전반을 총괄·기획한다.

반면, 패널조사의 실사는 외부의 전문조사업체와의 위탁계약을 통해 추진한다. 예를 들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조사는 한국리서치가 1차 년도부터 조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TNS Korea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주관 연구기관의 전담조직이 패널조사를 총괄·기획하고는 있으나, 패널조사와 같은 학술적 차원의 조사는 일반적인 마케팅조사와 상이한 면이 많다. 따라서 마케팅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조사업체들이 패널조사의 실사를 대행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sup>주24)</sup>

〈표 4-12〉 국내 주요 패널조사의 조직 및 인력 구성(2006년 12월 현재)

패널조사명	기관명	전담팀명	인력구성(명)			비고
			책임자	연구진	전체	
한국노동패널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팀	1	5	6	-
고령화연구패널	한국노동연구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팀	1	3	4	-
청년패널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팀	1	2	3	팀장
대졸자직업이동 경로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팀	1	2	3	1인이 2개 조사 담당
교육고용패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패널조사팀	1	6	7	-
청소년패널조사	한국청소년개발원	조사·미래연구팀	1	4	5	-

주: 연구진에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전담인력만을 포함한 것으로 해외협력 연구진, 표본추출 연구진, 자문위원, 실사연구원, 실사 수퍼바이저, 실사전산연구원, 실사 담당 면접원은 제외됨  
 자료: 각 연구원 홈페이지 조직도

주24) 영국의 경우 학술서베이만을 특화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회사로서 NOP가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Infratest가 있다(강석훈, 2006).

또한 실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접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 청년패널의 경우 1차 년도에 OES조사의 부가조사로 실시되면서 조사 당시 면접원은 노동부 소속의 직업상담원들로 구성되었다. 전체 투입된 면접원은 222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조사과정 중 각 고용안정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었다. 당시 한국리서치(2차년도 이후 실시기관으로 선정)가 중앙 및 지역별 관리감독자를 두어 각 지역별 면접원들을 관리하고 실시과정에 대한 조언을 하였던 것으로 파악되나 직접적인 통제수준은 미약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형태의 실사방법은 상대적으로 전문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직업 상담원들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은 채, 단기적인 교육만을 거쳐 현장에 투입하였기 때문에 애초부터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었다(이상호, 2006).<sup>주25)</sup>

패널조사는 1차 년도에 설계된 조사항목을 중심으로 다년간에 걸쳐 조사하는 종단면조사로서, 최초 계획단계뿐만 아니라 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하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패널조사 중 최초 기획자가 현재까지 연구책임자로 남아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경우 1차년도 이후 현재 8차년도 조사까지 연구책임자가 4번 바뀌었으며, 연구진도 연차별로 평균 2.29명이 바뀌었다. 이처럼 연구책임자가 바뀌는 경우 패널조사의 관심도가 변화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적절한 인력구조로 패널담당 연구진을 구축하고 구축된 연구진이 오랜 기간 동안 패널에 전념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강석훈, 2006).

〈표 4-13〉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연도별 인력 변화(2006년 12월 현재)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평균
연구진수	6	6	6	6	5	5	6	6	5.75
전년대비 책임자 변경여부	-	×	×	×	○	○	×	×	-
전년대비 연구진 변경(변경자 수)	-	○(3)	○(4)	○(2)	○(1)	○(3)	○(2)	○(1)	2.29

주: 연구진수는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각 년도 기초분석보고서 집필자수이다  
자료: 각 패널조사의 기초분석보고서.

주25) 1차년도 조사당시 직업상담원들은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별도로 청년패널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부담과 직업상담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실제로 이들이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이상호, 2006).

## 2. 표본관리

패널조사는 조사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응답자 관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응답자의 경우 조사에 투여되는 노력과 시간비용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투여되지 않는 한 조사에 투여되지 않을 것이므로, 조사주체는 가능한 예산 제약 하에서 정보공급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화폐적·비화폐적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역시 패널조사 대상들의 표본유지를 위해 전년도 조사 이후로 전화접촉과 우편물 발송, 경품추첨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패널관리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패널관리 도중 패널조사에 거절의 의사를 밝힌 표본들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도서(「2005 미래의 직업세계」)를 발송하는 등의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여 2차년도 조사에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청년패널의 경우에도 응답자 관리를 위해 조사전 미리 노동부 공문을 발송하여 조사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조사 후에는 감사카드를 보낸다. 또한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조사 후 1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여 조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조사응답에 대한 사례로 별도의 현금보상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며, 생일카드발송이나 조사의 이용도나 정책반영 등을 소개한 안내책자의 발행 등과 같은 노력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상호, 2006).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경우 실사 전에 노동부 공문 및 조사의 필요성을 기술한 편지를 발송하고 조사목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구 전체가 이사하거나 일부 가구원이 분가할 경우 변동사실을 알려줄 경우에 대한 보상도 실시하고 있다. 조사가 완료되면 소정의 선물을 지급한다. 그 외에도 가구원의 생일, 결혼기념일, 회갑 등이 있을 시 축하편지를 발송하고 수집된 자료가 학술 및 정책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소식지도 발송한다. 4차년도 조사에서부터는 각 가구에 대해 3만원의 응답사례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보상을 통한 응답률 유지에도 노력하고 있다(이상호, 2006).

이처럼 응답자에 대한 화폐적·비화폐적 보상은 패널조사의 표본관리에 중요

한 작용을 한다. 미국 PSID의 경우 이주 시 새 주소를 통지한 경우 5\$, 이사 간 조사대상자를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가 지불된다. 영국 BHPS의 경우에도 면접에 응답한 가구에 대해 10\$상당의 선물증서 등을 제공하며, HRS의 경우에는 20\$상당의 현금보상을 실시한다(금재호, 1998; 신동균, 1998).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노동패널조사의 4차년도 조사부터 응답가구에 대해 3만원의 현금보상을 실시함에 따라 4차 년도부터 6차년도 기간동안의 표본이탈률이 1% 이내로 표본관리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이상호, 2006).

[그림 4-3]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2005년도)의 실사전 표본 유지활동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2005.



## 제 7 절 국내패널 비교분석의 시사점

본 장에서는 국내패널들의 목적, 조사대상, 조사주제(조사항목), 표본설계 및 가중치 부여방법,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조직·인력 및 표본관리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편, 표본설계, 자료수집방법, 조직 등에 대해서는 일부 대표적인 패널들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이들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 패널들은 수행 연구기관의 존립 목적에 부합한 주제에 대한 정책적·학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기존의 횡단면적 자료에 의존하기에는 사회현상이 복잡·다양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각종 패널들이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다음 장(제5장)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둘째, 표본설계는 패널조사의 고유한 목적이나 조사대상 등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으나, 대체적으로 가구단위 패널들은 기본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조사구)를 모집단으로 하고 있다. 개인단위 패널들의 모집단은 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교육통계자료에서 파악한 학교나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하고 있다. 표본규모는 각 패널들이 조사 목적에 따라 주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대표성을 갖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률적인 규칙을 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비합리적이라고 하겠다.

셋째, 패널들의 자료수집방법은 예외 없이 조사원에 의한 직접면접조사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일부 패널의 경우에는 전화조사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방법은 어디까지나 표본관리 차원에서 보완적인 수단으로 이용될 뿐이다. 조사원의 기능은 조사의 정밀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며, 표본가구의 관리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넷째, 조직 및 인력에 관한 비교분석 결과에 대한 것이다. 패널담당 조직과 수행인력 구조는 각 패널조사를 직접 수행 또는 관장하는 연구기관의 특성 및 예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리적으로 여건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에서 조직체계를 일반화하는 것은 어렵고, 한편으로는 무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공

통적인 점은 패널의 기획과 결과분석 등은 연구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고, 실사업무는 전문적인 조사기관에서 수행하는 이원적 체계를 보이고 있다. 전문조사기관의 조사업무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경우, 이원적 체계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장점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각각의 고유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조사기관의 수행결과가 부실할 경우 또는 부실하다고 염려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 인력은 항상 긴장하고 조사현장까지 쫓아 다녀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하였듯이, 현재 국내에는 학술적인 전문조사기관이 부재하여, 학술패널들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패널들의 표본설계 및 자료수집방법은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패널 수행기관들 대부분은 외부의 조사기관에 현장조사와 표본가구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조사결과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이들 문제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해서 패널 수행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협의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각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하여 이 분야의 경험과 새로운 지식을 상호 교류할 필요가 있다.

## 제 5 장 한국인구패널 구축 방향

이 장에서는 한국인구패널(KPDP: Korea Population Dynamic Panel)의 배경 및 목적,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수행체계, 조사표 설계, 자료처리 등을 검토하여 향후 구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인구패널의 위치와 관련하여, 앞의 장에서 분석한 국내패널들의 비교 결과를 토대로 패널들간의 중복성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국내 10개 패널(개인 및 가구 단위)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 제 1 절 인구패널 구축 배경 및 목적

#### 1. 구축 배경

##### 가. 인구문제와 정책수립의 한계성

1960년대 초반 해도 합계출산율은 6.0명으로 아주 높았고, 사망률은 서구의 보건의학기술 등이 도입되면서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인구동태는 인구변천이론상 전형적인 다산소사의 형태를 유지하여, 인구가 연평균 증가율 3% 수준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당시 국가의 경제수준을 감안하면, 높은 인구증가율을 유지한 채 성장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빈곤의 악순환과 함께 국민의 삶은 황폐화 되었다.

인구증가억제정책은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함께 시작하였다. 당시 새로이 발족된 경제기획원(현 재정경제부 전신)의 주도 하에 인구부문이 경제발전계획의 중요한 부문으로 통합되었으며, 여기에서는 향후 출산율 변동에 따른 인구전망과 그 변화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진단되었다.

가족계획사업(family planning)과 각종 인센티브(incentives)-디스인센티브(disincentives)

의 수단들이 동원되었고, 특히 의식 전환을 위한 국민계몽운동(KAP)이 전개되는 등 정부 주도의 경력한 인구증가억제정책은 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가져왔다. 1960년 6.0명의 합계출산율은 약 20년이 지난 1983년에 2.1명의 인구대체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그로부터 다시 약 20년이 지난 최근에는 1.0명(2005년 1.08명)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사회학적으로 피임법 보급의 보편화로 출산율의 감소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으나,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초기에 학자들 사이에서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그 후 저출산현상의 원인에 대한 신가정경제이론의 입장과 사회문화적 입장의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이와 같은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평균수명의 상승이라는 다른 한 축의 인구동태적 사건(event)과 맞물리면서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진전되어 왔다. 특히, 출산율 차이에 따른 세대(cohort)간 인구규모의 차이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 인구고령화의 속도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2050년경에 그 수준면에서도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실로 저출산·고령화가 미래 한국사회의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인구정책을 포함한 사회정책의 변천과정을 면밀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1960년대 이래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뽑힐 만큼 노력의 정도가 클 뿐 아니라 그 효과성도 높았다. 당시 교육수준 상승과 경제발전 등의 효과도 컸으나, 이들 사회경제현상의 변화도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억제되었기 때문으로 본다면, 결국 정부의 인구정책과 사회정책의 힘입은 바가 지대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에 이른 이후에 인구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정책은 그 방향성을 점차 상실하고 있었다.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체수준에서 198년 1.75명으로 더 급락하였으며,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1.5~1.7 수준에서 불규칙하게나마 안정세를 이루어,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현상이 고착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족계획사업 등 정책의 실적에 매진하는 등 인구증가억제정책에 집착하고 있었다. 즉,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저출산현상이 향후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출산현상이 10년 이상 지속된 후인 1996년에 이르러서 정부는 인구증가억 제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하였으나, 여전히 인구의 양적인 측면에서 뚜렷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인구의 복지와 자질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정부가 인구문제를 포함한 가족과 출산에 정책적 관심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1997년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가족해체 현상뿐만 아니라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현상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출산율은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즉, 1996년 당시 1.6명 수준에 머물렀던 합계출산율은 1998년에 처음으로 1.5명 이하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2001년에는 1.30명 그리고 2005년에는 1.08명까지 낮아졌다.

이와 같이, 정책의 불분명한 방향성과 실기는 인구변동과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미흡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인구 규모 및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혼, 출산, 사망, 국제이동 등 인구동태적 요인의 변동에 대한 전망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는 이들 요인들과 사회경제현상의 변화를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거의 부재하였다. 또한, 출산 등 인구변동요인의 변화에 따른 인구 변동 전망과 이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예측하는 노력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요컨대, 인구 변동과 사회경제현상 간에 불가분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인구감시체계(population surveillance system)가 전혀 작동되지 못했다. 그 원인으로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일방향성에 대해서만 정책이 집중되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를 통해 정책 성공이라는 의식에 도취되어 있었다. 따라서 인구정책 자체의 기능은 불필요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인구관련 정책과 조직이 쇠퇴해지고, 학문의 분야에서도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급기야는 인구 변동과 그 원인 및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고갈로 이어지게 되었다.

2002년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저출산현상이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서두르게 되었다. 그러나 인구관련 데이터베이스 부재로 인하여 저출산 원인이나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고 진단하는 일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책연구소들을 중심으로 긴급하게 인구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저출산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

으며, 장기적인 인구 변동 추이를 전망하고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진단하는 등의 노력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해 많은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인구변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의 부재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준 최근의 혼동과 향후 사회경제적 영향을 감안해 볼 때, 인구관련 분석과 진단 및 이들 인구변동과 사회경제현상간의 연계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미래사회에는 저출산현상의 지속, 인구고령화 급진전, 국제결혼 및 노동이민 증가 등으로 인하여 급격하고 다양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예상되어, 이에 대응한 예비적 사회투자 개념의 사회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인구 변동과 사회경제현상을 연계하여 감시(surveillance)하는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미래의 인구구조를 고려한 바람직한 대응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 나. 기존 자료의 한계성

##### (1) 횡단적 자료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관련 자료로는 전국 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동태통계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가 있다(표 5-1 참조).

이 중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 주기로 인구의 규모, 구조 및 사회경제적 특성, 일부 인구변동요인(출산, 이동, 혼인) 관련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조사단위기간이 길어 거시적 수준 변화 파악 또는 한시점의 상황을 제시해 줄 뿐, 급격한 인구변동 및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인과관계 분석 곤란 등 비용효과성이 결여되어 있다.

인구동태조사는 매년 주기로 호적신고에 의거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건수 등을 파악하는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출산통계의 경우, 출생건수 이외 출생

아의 일반적인 특성들, 즉 출생시기, 장소, 혼외출산여부, 태수, 출생체중, 출생 순위, 모의 총출생아수, 부와 모의 연령, 부와 모의 직업, 혼인시기, 부와 모의 교육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에 의거하여, 출생·사망·혼인·이혼의 전체 건수와 일부 특성별(지역별, 연령별, 성별, 월별 등) 건수를 인구동태통계연보에 수록하여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동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현상의 복합적인 구조와 변동의 원인 등을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표 5-1〉 국내의 인구관련 자료 현황

자료명	연혁	주요 내용	한계점
인구주택총조사	1925년 이래 매 5년 주기로 실시(주관기관: 통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의 규모, 구조 및 사회경제적 특성, 인구변동요인(출산, 이동, 혼인)관련 정보 제공(2000년 총 50개 항목 조사: 인구 29, 가구 16, 주택 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간격 장기적, 인구동태 파악 곤란, 인구변동의 원인 및 파급효과의 사회·경제적 인과관계 분석 곤란</li> <li>출산력 결정요인 등 미시적 원인 접근에는 한계</li> </ul>
인구동태조사	1970년 이래 호적 신고 자료에 의거 인구동태자료 작성(주관기관: 통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생, 사망, 혼인, 이혼 건수 파악</li> <li>출생의 경우 12항목(출생시기, 장소, 혼외출산, 태수, 체중, 출생순위, 모의 총출생아수, 부모 연령, 직업, 혼인시기,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생·사망·혼인·이혼의 인구구조 변동 요인 파악</li> <li>인구변동요인의 사회경제적 원인 및 예측 불가능</li> </ul>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의실태조사	1970년 이래 매 3년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산, 가족보건 실태관련 기초자료 제공	개인의 가치관 및 생활변화가 인구변동요인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제한적
전국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005년 1차 조사 실시(향후조사 미정)	미혼남녀(20~44세) 및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 및 출산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활용</li> <li>횡단적 조사방식의 한계로 동적차원의 분석 곤란</li> </ul>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70년 이래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는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시기에 정책의 성과와 평가를 위해 실시되었던 대표적인 조사이다. 동 조사는 현재 국가지정통계로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출산력 측정과 모자보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

나 가족단위의 조사로 인해 개인의 가치관 및 생활실태의 변화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동 기관에서는 결혼·출산 행태 등과 사회경제현상과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동 자료는 결혼 및 출산의 지연·포기 이유 및 정책수요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정부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동 조사는 횡단적 특별조사(ad hoc) 형식으로 실시되어 동적 차원의 분석에 한계가 있다.

이상 대표적인 인구관련 통계조사들은 모두 일정시점(또는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횡단면적(cross-sectional) 조사로서 인구규모와 구조 및 분포의 정지된 그림(snapshot view)을 보여줄 수는 있으나, 인구변동 관련 정태적·동태적 통계 조사의 제한적 항목구성으로 인구현상과 사회현상간의 종합적·시계열적 변화 분석의 한계가 있다. 특히, 동적 측면에서 출산 등의 인구학적 요인과 개인의 경제활동참여 및 노동시장 이동과정, 소득과 소비의 변화 등과의 관계를 동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노후생활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관련한 분석을 위한 조사항목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 (2) 종단적(패널) 자료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패널조사가 계획 중이거나 실시되고 있다. 앞서 비교 분석한 바와 같이, 많은 국내 패널들은 교육, 직업교육훈련, 경제활동, 사회보장, 여성, 건강상태, 노후보장 등 다양한 주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각 패널에는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 연령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들만을 이용하여 인구변동요인의 변화와 원인 및 영향을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즉, 여러 영역이나 집단에 대해 패널자료가 생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이동, 질병, 사망 등 인구동학적인 차원에서 인구현상과 사회현상을 연계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의 생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 2. 인구패널의 기본목적 및 장기비전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과 인구고령화가 중요한 국가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는 단순한 인구학적 현상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의 문제는 단기간 치유가 어렵고, 어떤 면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향후 몇 십 년 혹은 1세기 이상 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현상으로서 지속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구 변동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인구는 고정·불변적이지 않고, 제 사회경제 현상과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며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구체적으로 인구 정태적 특징 즉, 규모와 구조는 출생, 사망, 이동 등 인구변동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변경된다. 이들 인구 동태적 요인들은 사회경제현상 변화에 의해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사회경제 현상들은 인구의 정태적 및 동태적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인구현상과 사회경제현상 간에는 순환적인 연계 고리가 형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출산 등의 인구학적 요인과 개인의 경제활동참여 및 노동시장 이동과정, 소득과 소비의 변화 등과의 관계는 순환적이라는 것이다. 최근까지 분석된 한국 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은 복잡 다양하다. 거시적 차원에서 저출산 현상은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 교육수준 상승,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산업·직업 구조의 현대화, 주거 불안정 증대, 일-가정 양립 곤란, 육아지원 인프라 미흡, 핵가족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간주하고 있다.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회구조 하에서 사교육비를 포함한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원하는 수만큼의 자녀를 두기가 곤란하다. 만혼으로 인하여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하는 경우 자연유산이나 후천성불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녀를 갖지 못하거나 적게 갖은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는 등 미래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하여 출산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실업과 고용불안정은 혼인연령을 늦추어 출산을 축소시키는 데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가치는 사회경제적 현상에 의해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또한 여타 저출산 원인들과 상호작용을 한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아실현의 욕구가 높아지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취업여성이 결혼하는 경우 직장일과 가사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며, 더욱이 출산을 하는 경우 자녀양육까지 맡아야 하는 등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이 곤란한 이유로는 우리나라 고용문화가 출산과 가족에 친화적이지 못하며, 가족 내에서도 성분업적 역할규범이 지배적으로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성평등적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여성들은 일과 출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당하고 있으며, 그 경우 결혼의 필요성과 자녀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의식이 크게 약화되어 결혼 연기 내지 포기과 출산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결혼과 출산은 자아성취나 경제활동참여의 기회비용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출산 변동만 해도 장기적으로 교육, 노동시장, 소득과 지출(양육비용 등), 가족 문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인구 변동의 복합적인 원인과 영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효율적인 대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구 동학적인 자료의 구축과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개인의 결혼 및 출산 행태가 교육 및 노동시장 참여, 노동시장 지위변동, 소득과 지출(특히 양육관련 비용), 가족관계와 부부관계, 공식적·비공식적 지원망, 사회환경 등의 변화와 어떻게 맞물려 변동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가치관의 변화추이도 파악되어야 한다. 아울러, 코호트별·계층별 인구동태의 차별성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하여, 원인 규명 시 특정기간의 효과와 특정연령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표적성(targeting)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이와 관련해서 인구관련 패널 구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패널조사는 횡단면 조사의 단점들을 보완하면서 동적인 차원에서 가가와 개인의 장기간에 걸친 변화와 상태간의 이동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횡단면 자료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심도 있는 정책연구 및 정책평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인구 패널의 분석적 목적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인구패널은 가구를 매개로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간의 연계를 도모할 수 있다.

둘째, 시간의 경과 및 정부정책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인 또는 가구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양식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인구패널자료는 미시적인 단위의 인구동태분석을 가능케 해주며, 동시에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상호 연관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혹은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횡단면 자료에서는 수행될 수 없는 ‘관찰 불가능한 변수의 효과적 제어’를 가능케 한다.

인구패널의 구축은 학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인구학적 현상 변화와 사회경제 환경 변화간의 인과관계 규명은 향후 인구변동이 국가나 사회 및 개인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인구패널이 정책적 목적에 긴요한 이유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인구감시체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출산, 사망(질병), 결혼·이혼, 이동 등 인구현상과 관련하여 변동추이를 파악하고, 사회경제적 원인들을 규명하며, 향후 변동 및 파급효과 진단 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시의적절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의 도출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원인·수요에 적합한 정책의 수립이 가능하여 정책의 시의성(timeliness), 비용효과성 내지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이다.

셋째, 정책 수립과 평가·환류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다. 인구패널을 통해 시간의 경과 및 정부정책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인 또는 가구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양식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즉, 정책 평가환류(feedback)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인구패널은 기본적으로 인구동학과 사회경제현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정책 수립, 모니터링, 평가·환류의 기초 자료를 생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인구패널은 다른 패널과 마찬가지로 한 조사에서 다양한 주제 모두를 동일한

수준에서 심층적으로 다루는 데에는 조사가구 부담 증대, 표본 증가 등 조사특성상 제약성이 존재한다. 결국, 인구패널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근간으로 인구현상에 역점을 두게 되며,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반드시 감안하여야 할 복지와 보건에 관한 주제들은 기본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인구패널은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패널과 국민의료비패널과 통합적으로 연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합적인 운영은 동일한 비용(조사예산, 가구응답부담, 운영인력 등)을 투입하면서도 표본규모를 증가시켜 인구, 보건, 복지의 다양한 주제를 유기적·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이 경우, 한국사회에서 인구·보건·복지의 통합패널 구축이 가능해 질 것이다.

### 3. 인구패널의 법적 근거

인구패널 구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 제23조 및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동법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②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동법 제29조(조사 및 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에서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저출산 원인분석, 사회경제적 변화와의 인과관계 규명 등 인구정책 수립·추진의 과학적 분석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구패널 구축을 기본계획 상에 포함하였다(정부합동, 2006).

## 제 2절 인구패널 조사주제 설정방안

인구변동과 사회경제현상간의 관계는 아주 방대하다. 방대한 내용을 한번의 조사에서 모두 파악하는 것은 조사표 설계, 조사응답자의 부담, 조사비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불합리할 것이다. 인구-사회현상간의 관계는 매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가 하면, 일정한 주기 또는 특정 시점에 한정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동일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비효율적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패널에서는 매번 조사하는 기본조사와 일정한 주기로 조사하는 특별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 1. 기본조사의 주제

사회 환경, 개인·가족 행태, 인구현상 변화간의 인과관계의 예시를 들어보자. 노동시장에의 진입이 곤란하며, 교육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로 인하여 결혼 및 출산이 연기되어 저출산현상이 유발된다. 그 결과 중장기적으로 인구 규모 및 구조(고령화)가 변화하며, 이는 사회·경제·문화의 구조적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른 예로, 국내 경기가 불안하면 해외로의 이동이 증가하고, 그로 인하여 국외에서의 취업을 원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제이동이 발생하며, 그로 인하여 유출인구가 증가하여 전체적인 인구 규모 및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인구 규모 및 구조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사회경제현상에 영향을 미친다. 농촌에서 배출요인(push factor)의 예로 일자리 부족 등이 발생하면, 미혼여성들이 도시에 취업활동을 하고, 이를 위하여 국내이동이 발생하면 농촌인의 규모 및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등도 유사한 순환고리적인 연계성을 갖는다. 다른 예시들은 <표 5-2>를 참조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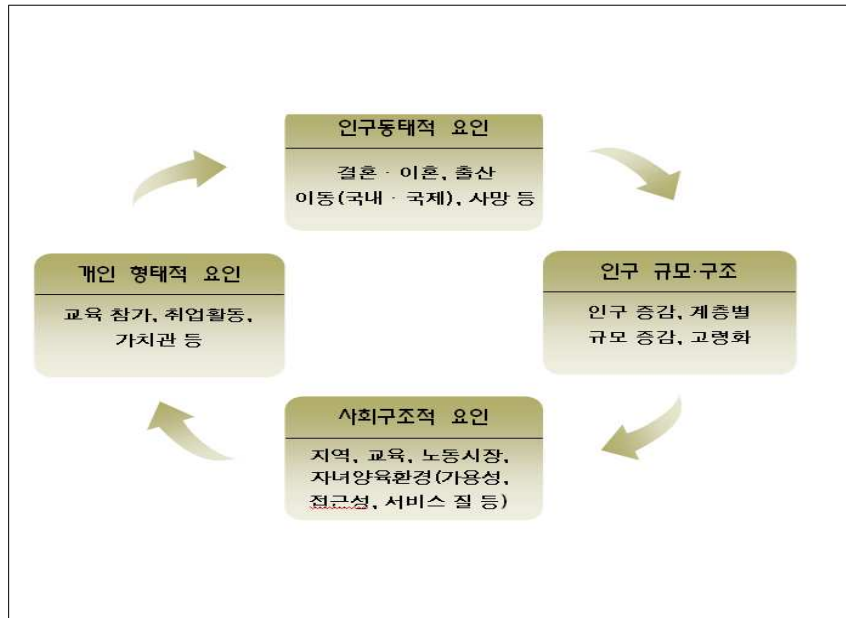
이와 같은 관계를 형성하는 요소들은 인과관계, 특성, 역할 등을 고려하여, 사회구조적 요인, 개인 및 가족 행태, 인구동태적 요인, 인구 변동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5-2〉 사회 환경과 개인·가족 형태 및 인구현상간의 관계 예시

사회구조적 요인	개인·가족 형태	인구동태적 요인	인과관계(예시)
교육·보육	가치관	출산	공교육·공보육 미흡으로 인하여 사교육비가 증가하면서 적은 수의 자녀에 몰입하여야하는 소자녀관이 형성되고, 그로 인하여 출산이 축소되고 있는가?
노동시장	가족 관계, 가치관, 취업활동	결혼, 출산	전문직종의 증가와 성차별적 고용문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일·가정 양립이 곤란하고, 그로 인하여 결혼 및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이 증대하여 결과적으로 결혼 감소 및 출산 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는가?
정책	가치관	결혼 출산	정부의 출산지원정책의 영향으로 소자녀관이 변화하여, 결혼하거나 추가적으로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가?
노동시장	취업활동	사망	노동시장에서 연령차별관행이 제거되어, 노인이 취업활동을 하며, 이에 따라 더 건강해졌는가?
교육	생활습관	사망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생활습관이 개선되는 등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는가?
노동시장	가치관	이혼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경제력을 갖추면서 가부장적인 결혼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이 증대하여 이혼이 증가하는가?
노동시장	교육 참여	결혼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의 진입이 곤란하여 교육을 연장하며, 그 결과 결혼의 연기 내지 기피로 이어지고 있는가?
지역사회	취업활동	이동	농촌여성이 지역사회에서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하여 도시로 이동하는가?
경기	취업 중단	결혼, 출산	경제위기 이래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 및 고용구조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결혼 및 출산을 연기하거나 기피하고 있는가?
노동시장 구조 변화	교육참여, 취업활동, 가치관 변화	결혼, 출산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치열하여, 여성의 고학력화와 함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면서 만혼화현상이 증가하고 있는가?
가족문화	가족관계	출산	성분업적 가족문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부부간 가사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로 인하여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가?
고용문화	취업중단 (경력중단)	결혼, 출산	직장 등에서의 혼인 및 출산여성에 대한 차별관행이 존재하여 경력단절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가?
경기	실업	이혼	경기 악화로 인한 개인의 실직은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어 가족해체(이혼)로 이어지는가?
사회보장	가치관	결혼, 출산 기피	사회보장체계 발달에 따라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감소, 개인 및 부부 중심의 인생관 증가 등의 가치관이 변화하여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가?

이러한 사례들을 정형화하여 관계모형을 설정하면, [그림 5-1]과 같이 도시화할 수 있다. 우선 사회구조적 요인(structural factors)은 지역사회, 교육구조, 노동시장, 가족관계(문화), 성평등 문화, 자녀양육환경(가용성, 접근성, 서비스 질 등), 정책 변화 등 사회, 경제, 문화의 영역을 망라한다. 이들 사회구조적 요인은 개인 및 가족의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행태들로는 가치관 변화, 교육 참여, 경제활동 참가 또는 이탈, 가족관계 변화 등이 해당된다. 개인·가족의 행태 변화는 기본적으로 출산, 이동(국내이동, 국제이동), 사망 등의 인구동태적 요인들에 영향을 미친다. 인구동태적 요인들의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인구의 규모와 구조를 변경시키는 역할을 한다. 인구 규모 및 구조의 변화는 총인구 및 연령계층별 인구 규모의 증감, 인구구조의 변화(고령화) 등으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이들 4 요인들은 인과관계적인 순환 고리를 형성한다. 한편, 개인·가족 행태는 광의의 인구동태적 요인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림 5-1] 인구현상과 사회현상간의 인과관계적 순환모형 도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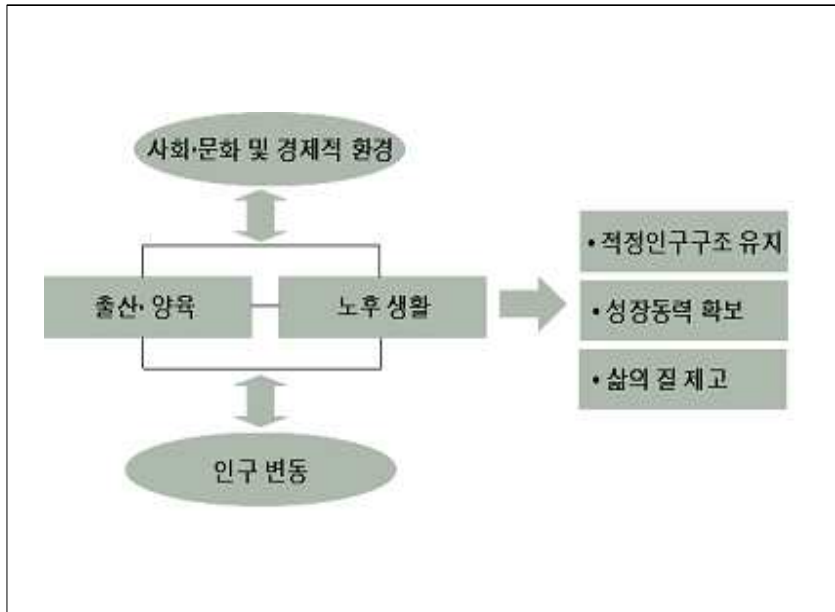
이와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 개인·가구 행태적 요인, 인구동태적 요인, 인구변동의 인과관계적 순환모형은 개인이나 집단간에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즉, 인구학적 현상과 사회경제적 현상간의 인과관계는 개인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속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인구패널의 기능은 우선 인구 규모 및 구조를 변경하는 직접적인 인구학적 요인들로서 결혼, 출산, 사망, 이동 등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들 인구학적 요인들의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인구현상과 사회환경간의 인과관계 규명을 통해 향후 사회경제 및 문화의 변화에 따른 미시적인 수준에서의 개인의 행태와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인구현상의 변화를 추정하는 것이다. 끝으로 인구 규모 및 구조의 변동이 개인과 가족의 행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총합적인 수준에서 인구현상과 사회경제현상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인구 변동에 관한 자료 집적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들 인구패널의 기능 내지 역할은 사회구조적 요인, 개인·가구 행태, 인구동태 및 인구변동의 인과관계적 순환모형을 통해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인구패널의 분석틀(analytical framework)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그림 5-2]에 제시되었듯이, 인구패널은 사회·문화·경제 환경이 출산·양육 및 노후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그 결과로서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도록 한다. 사회·문화·경제 환경과 출산·양육 또는 노후생활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분석을 통해, 여성이나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의 양적 그리고 질적 수준을 파악하고, 그 변화에 대한 예측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인구패널을 통해 사회·문화·경제현상과 인구변동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그 결과로서 출산·양육 및 노후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인구패널에서 도출되는 분석 결과는 궁극적으로 적정 인구구조 유지, 성장동력 확보, 삶의 질 제고의 거시적인 국가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의 기초적이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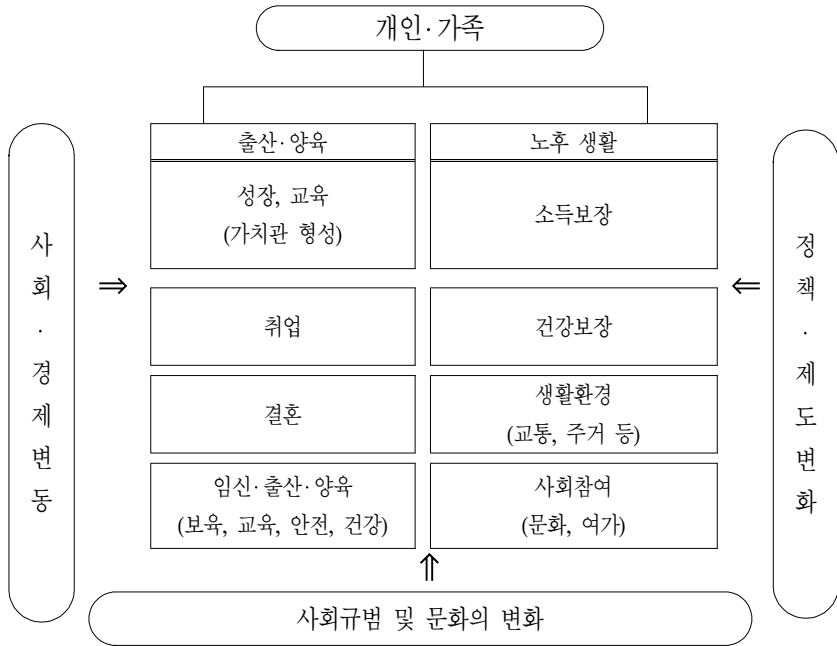


[그림 5-2] 인구패널 분석틀



인구패널의 분석틀에 의거하여, 패널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조사주제들을 모듈화(module) 하면, [그림 5-3]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사주제에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개인·가족의 출산·양육과 노후생활을 포함하도록 한다. 출산·양육의 하위영역으로서 세부 조사주제들은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성장·교육, 가치관, 취업, 결혼, 임신·출산, 양육(보육, 교육, 안전, 건강) 등 부문들을 포함하도록 한다. 노후생활의 하위영역으로서 세부 조사주제들은 생활영역을 기준으로 소득보장, 건강보장, 생활환경(교통·주거 등), 사회참여(문화·여가 등)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외생변수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출산·양육과 노후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주제들로 사회·경제변동, 제도·정책 변화, 사회규범 및 문화 변화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들 외생적 주제 각각은 여러 세부 조사주제들로 구성하도록 한다.

[그림 5-3] 인구패널 기본조사주제 모듈(안)



2. 부가조사(특별조사) 조사주제

시간의 개념을 적용하여, 어떠한 정보는 매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어떠한 정보는 일정 간격을 두고 수집하는 것이 더 비용효과적일 수 있다. 전자의 정보는 매년의 경상조사에 의해 수집하고, 후자의 정보는 특별 주제로 설정하여 부가조사를 수집하도록 한다. 일정 간격으로 조사하는 특별주제는 매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즉 매년 경상조사의 핵심설문서에 특별주제의 부가설문서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미혼상태에서 결혼으로 이행, 결혼에서 임신, 출산, 양육(출생순위별) 등의 일련의 생애과정은 연속적으로 발생한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러한 생애과정은 사회경제현상과 밀접한 인과관계를 맺으며 변화한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들은

인구패널의 핵심주제(또는 경상주제)로 설정하여 매년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반면, 이동이나 질병(이환) 및 사망 등도 생애의 연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구동태적 요소이나 매년 단위로 발생하지 않은 특성이 있다. 또한 한 개인이 노인층에 진입하기 이전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진입한 이후에도 제 상황들이 급격하게 변화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해 중년기부터 준비하는 과정이나, 노년기에 들어서 소득 확보나 건강보장 및 여가생활이 적어도 매년 단위로 변동이 크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들은 부가조사의 형식으로 일정간격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환언하면, 이들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들은 종단적으로 파악하고, 심층적인 상세내용들은 부가조사의 형식으로 일정간격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특별조사의 주제들에 대한 방안은 <표 5-3>에 제시하였다.

한편, 특별조사를 전국적인 횡단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의 장점으로는 첫째, 횡단조사는 인구패널의 기본항목과 연계하여 분석이 가능하므로, 보다 풍부하고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둘째, 표본규모를 확장시킬 수 있어 기본주제를 증가시킬 수 있고 동시성 심층적인 소단위 분석도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예산을 인구패널의 질 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어 보다 정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횡단면적 조사의 예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보건복지부에서 매 3년마다 실시할 예정인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인구가동심층조사(신규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고안한 인구패널의 부가조사 주제를 설정하면, <표 5-3>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인구패널과 횡단면적 조사의 대상으로서 표본가구를 어떻게 일치(matching)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예를 들어, 인구패널과 횡단면적 조사를 동일한 표본가구에 대해 실시하는 방안, 횡단면적 조사에서는 인구패널의 표본가구와 다른 표본가구를 설정하되 인구패널에 포함된 동일한 항목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전자의 표본가구설정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5-3〉 인구패널의 특별조사 주제(안)

특별조사 주제	주요 내용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중년 노후준비, 노인층 소득생활, 건강생활, 문화여가생활 등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출산수준, 출산영향 요인, 모자보건, 가족복지 등
인구이동 특별조사	이동과 사회경제환경간의 관계 등
보육·교육·훈련 특별조사	보육, 교육, 훈련관련 실태조사(시기, 비용, 기관, 수혜 등)
삶의 질 특별조사	건강, 질병, 생식보건, 사인, 문화(고용문화, 가족문화, 성평등문화 등), 여가, 직장생활, 가족생활 등 제 영역에서의 삶의 질과 환경간의 관계 등

### 3. 조사표 설계 방안

인구패널 조사표는 다른 통계조사의 조사표와 마찬가지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조사표 설계는 조사방법이나 조사표 형식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조사항목의 배열, 질문어귀 구성, 조사표 형식 등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설계한다.

조사항목을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한다. 즉, i) 처음의 항목은 응답자가 심리적으로 저항없이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항목, 즉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성별 등으로 시작한다. ii) 속성상 연속적으로 물어야 할 조사항목은 가급적 계속적으로 배열한다. iii) 앞의 조사항목이 다음에 계속되는 조사항목에 대해 일정한 응답내용을 유도하지 않도록 배열한다. iv) 응답이 곤란하거나 어려운 항목은 가급적 나중에 배열한다. v) 서로 같은 주제에 대한 항목(예: 출산력, 노후생활, 인구이동, 경제활동 등)들은 하나로 모아서 배열한다.

조사항목을 질문할 때, 즉 질문어귀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 한다. 즉, i)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및 교육수준을 감안하여 구성한다. ii) 쉬운 말을 사용하되 정확한 어귀를 사용하여야 한다. iii) 질문하는 문장은 간결하여야 하며, 또한 질문은 명확하여야 한다. iv) 애매하거나 유도적인 질문은 피하여야 한다. v) 가급적 한 번에 하나의 내용만을 질문하여야 한다. vi) 가정(assumption)은

피하여야 한다.

조사표 형식에 있어서도 조사자가 취급하고 실시조사를 수행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사표의 크기, 지질, 색상 등을 적절하게 선택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i) 조사표의 크기는 모든 조사항목 및 그 응답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 ii) 조사표 크기는 조사방법에 따라 적절한 크기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인쇄, 운반, 부호기입 등 자료처리 작업에도 수월해야 한다. iii) 종이의 지질과 색상은 응답자나 조사원이 쉽게 읽을 수 있고 다루기 쉽고, 견고해야 한다. iv) 조사표의 종류가 여러 가지(기본조사, 특별주제 조사 등)일 경우에는 색상을 달리하여 구분함으로써 조사 및 자료처리 시 혼동을 없게 한다. v) 일반적으로 필기구와 같은 색일 경우에는 같은 농도를 피한다. 조사표의 색깔은 필기구 색깔보다 옅은 색으로 인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i) 눈에 피로를 주는 색(빨강 등)은 피하여야 한다.

인구패널 조사표는 가구단위로 작성되도록 설계한다. 즉, 1매의 조사표에 일정한 수의 가구원에 대해 각각 기입 하도록 하며, 가구나 주택 등 가구 전체에 대해 질문은 가장 1매 조사표의 가장 앞부분에 위치하도록 한다. 조사표는 책자식(booklet)으로 만드는 방법과 시트식(sheet)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인구패널은 일반 횡단조사에 비해 조사항목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책자식 조사표로 설계한다. 책자식 조사표의 장점은 많은 조사항목을 수록할 수 있으며, 쪽별로 조사항목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알기 쉬우며 기입 방법이나 그 사례를 간단하게 삽입할 수 있어 조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가 있다. 반면, 각 조사 항목 간 관련내용을 한눈에 알기 어려워 조사현장 또는 자료처리시 조사내용을 점검하는데 어렵고 또한 조사표 취급에도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조사항목을 물어 그 답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는 답변가능 내용을 미리 열거해 놓고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케 하는 사전기입형과 답변가능 내용의 열거 없이 자유자재로 기술하게 하는 자유기입형 그리고 이 둘을 결합한 절충형이 있다. 사전기입형(pre-coding)은 조사와 응답이 간편하며, 집계, 부호기입 등 자료처리도 간편하다. 반면, 자유기입형은 조사자나 응답자에게 부담을 주며, 부정확하게 기입하거나 또는 조사 후 그 내용을 부정확하게 분류 및 부호화할 경

우에 정확한 조사결과를 얻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료처리과정도 지연된다. 그러나 보다 풍부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자유기입형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유기입형을 선택하는 이유는 i) 조사 후에 분류하여야 정확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분류가 가능한 경우(산업·직업 등), ii) 실수(實數)를 기입해야 하는 경우(연령 등), iii) 응답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얻고자하는 경우 등이다.

사전 기입형은 양자 택일방식, 다항 선택방식 등이 있다. 사전 기입형을 채택하는 경우에 주의할 점은 i) 하나의 질문에 나열한 응답 내용이 10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 ii) 응답내용(선택)수를 너무 줄여 질문 취지가 불명확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 iii) 선택할 응답 내용은 간결·명료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iv) 하나를 선택하는가 아니면 2개 이상 복수를 선택하도록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한다.

질문어귀 작성방법은 조사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원이 질문어귀를 그대로 읽으면 조사 대상에게 의사전달이 될 수 있는 구어체의 말로서 질문어귀를 작성해야만 조사원의 재량을 없앨 수 있다. 반면, 우편이나 조사원이 조사표를 가구에 전달하고, 그 조사표를 가구에서 직접 작성하는 우편조사법 또는 유치조사법(배포조사법)등 자계식 조사방법(self-enumeration)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응답자가 조사원의 설명 없이 조사표 내용에만 의존하여 조사항목에 응답하여야 하므로 질문내용이 이해가 쉽고 명료하여야 하고, 쉬운 항목부터 배열하여야 한다. 질문어귀도 응답자를 자극하거나, 잘못 해석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제 3 절 인구패널 조사대상 설정방안

#### 1. 조사 대상

앞서 제시한 인구패널 모형에서 사회구조적 요인, 개인·가족의 행태, 인구동태적 요인 등간의 인과관계적 순환은 궁극적으로 개인 또는 가족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대상은 당연히 개인과 가족(가구)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즉, 인구패널의 조사대상은 가구와 모든 가구원이 된다. 가구에 관한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구용설문서를 설계하고, 가구원에 관한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용설문서를 설계한다. 개인단위 조사표는 가구원별 연기식으로 설계한다. 개인용설문서의 경우 가구의 대표응답자가 모든 가구원에 질문하여 응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부 조건들에 한정하여 다른 가구원에 관한 내용도 응답(대리응답: proxy response)하는 것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조사기간 중 부재자 등이 해당된다.

한편, 개인이나 가족(family)을 조사하기 위한 매체는 가구(household)이다. 그러나 가구는 가족과 동일한 개념을 가지지 않는다. 가족은 혈연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반드시 한 집에서 살고 있을 필요가 없다. 반면, 가구는 혈연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으며, 단지 한 공간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이다. 인구패널에서는 가구(원표본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원표본가구원)를 조사대상으로 한다(표 5-4 참조). 원표본가구에 살고 있는 비혈연가구원도 가족생활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들은 원표본가구원으로서 일정 부문(질문)에 대해 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한편, 원표본가구를 구성하는 가족의 일부(비원표본가구원)가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부양관계에 있는 부모(비원표본가구원)가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와 취학 또는 취업을 이유로 자녀나 남편(비원표본가구원)이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다. 인구패널에서는 관련 질문(항목)들을 통해 분거 중인 직계존비속 가족(비원표본가구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원표본가구원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원표본가구원으로부터 태어난 출생이나 원표본가구원과 결혼하는 배우자는 원표본가구원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최초 패널 구축 당시 원표본가구원이었으나, 이후 결혼(분가), 이혼(별거), 이동(취업·취학 등) 등을 이유로 원표본가구로부터 이탈하거나 원표본가구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인구패널의 원표본가구 및 원표본가구원으로서 추적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캐나다의 SLID, 미국의 PSID 경우).<sup>주26)</sup>

그러나 추적조사는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결혼, 이혼, 이동 등으로 분가한 원표본가구원을 추적 조사하는 경우 새로운 원표본가구 하나를 편입시키게 되므로, 그 결과가 전체 표본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과학적인 표본기법에 의해 추출된 원표본가구가 아니므로, 조사시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결혼, 이혼, 이동 등으로 분가한 원표본가구원의 추적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결혼, 이혼, 이동 등으로 분가한 원표본가구원이 추적조사 자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혼의 경우 프라이버시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심한 거부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표본에 추가된 가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예산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원표본가구원에 대한 추적조사 여부는 추적의 용이성, 예산의 가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미국 PSID의 경우에는 18세 이상 구성원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에 기록을 보존하고, 이후 다시 돌아 온 이후부터 조사를 재개하고 있다.

한편, 원표본가구가 상실(panel attrition)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첫째, 원표본가구 전체가 이동하였으나, 그 거주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이다. 둘째, 원표본가구가 1인(단신)가구로서 유일한 원표본가구원이 사망하는 경우이다. 셋째, 원표본가구로 선정되었으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전체 표본의 대표성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표본의 대표성 유지 차원에서 새로운 가구로의 대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26) 미국의 NLSY(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가 1979년부터 14-22세 청소년을 계속하여 추적 조사한 바 있다.



<표 5-4> 인구패널 조사대상 검토

구분	원표본가구	원표본가구원	비고
포함	원표본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표본가구원</li> <li>◦ 원표본가구원의 출생아</li> <li>◦ 원표본가구원 결혼배우자 [추적조사]</li> <li>◦ 결혼(분가)</li> <li>◦ 이혼(별거)</li> <li>◦ 이동(취업·취학 등) 등</li> </ul>	추적조사 여부는 용이성, 예산 가용성 등 종합적 고려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 후 거주지 불명</li> <li>◦ 1인 원표본가구의 사망</li> <li>◦ 조사 거부</li> </ul>	사망	표본대표성 유지 차원에서 가구 대체 검토

한편, 표본가구를 새로이 대체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표본가구와 응답률 등에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는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표 5-5>와 같다. 따라서 인구패널에서 표본가구를 대체하는 경우 기존 표본가구와의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표본대체가구에 대한 집중관리 등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표 5-5> 기존 표본가구와 대체 표본가구간의 응답률 차이: 독일의 가구패널 조사(GSEP) 사례

구분	표본가구수	표본개인	전년도 응답가구 중 응답률	새로운 표본진입가구의 응답률
1984	5,921	12,245	-	-
1985	5,322	11,090	88	70.8
1986	5,090	10,646	91	78.6
1987	5,026	10,516	94	82.4
1988	4,814	10,023	92	76.3
1989	4,690	9,710	93	83.1
1990	4,640	9,522	94	76.8

주: 대우경제연구소 1차 웨이브 응답률 55.2%(무대체), 한국노동연구원 1차 웨이브 응답률 71.7%(최초 접촉 5,000가구 중 3,773가구 75.5%, 대체가구 접촉 1,976가구 중 1,227가구 62.1%)

자료: 강석훈(2006).

## 2. 모집단 및 표본추출

인구패널의 조사단위로서 가구는 통계청의 인구및주택총조사에서 파악된 전국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일정 비율을 표본으로 추출한다. 패널조사는 과학적인 표본추출이 전제되어야 한다(강석훈, 2006). 조사대상 표본가구는 인구및주택총조사 결과로서 지역간의 경계를 이용하여 일정한 수의 조사단위(가구)로 묶은 조사구(Enumeration District 또는 Enumeration Area) 단위로 추출된다. 한 조사구 안에는 평균 60가구(40~80가구)가 포함되어 있다.<sup>주27)</sup> 따라서 1개의 조사구가 표본지역으로 선정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가구들이 표본으로 선정된다. 일부 조사에서는 조사구를 선정하되, 그 안에 있는 가구 중 일부 비율(예: 1/1, 1/3 등)만을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한 조사구 내 가구들이 동질성을 가지므로, 표본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사구를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편, 통계청에서는 매 5년마다 인구및주택총조사를 실시하므로, 조사구 자료도 매 5년마다 경신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인구패널의 표본 조사구 및 표본 가구들이 변경되어야, 그 대표성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동일한 가구에 대한 반복적인 조사의 기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패널의 적합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강석훈(2006)은 학술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학술용표본들”을 학계와 통계청 등이 작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패널은 정책의 기획, 수립, 모니터링, 평가, 환류 등 정책적 성격이 강하여,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5년 이후에 표본가구를 변경하는 일은 변경 전후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실험적인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27) 조사구 설정의 주요 목적은 i) 전국을 중복이나 누락지역 없이 조사구로 분할하여 조사함으로써 조사대상인 가구나 주택의 누락 또는 중복을 방지할 수 있으며, ii) 조사원에 의한 가구면접 또는 조사표 배포 조사인 경우 조사원의 업무량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으며, iii) 소지역별 통계 즉, 조사결과를 소지역별로 생산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iv) 이외에도 센서스 완료 후 각종 표본조사에 필요한 표본들로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김민경, 2001).

표출가구의 비율은 예산 규모, 조사항목 선정, 표본이탈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인구패널이 의도하고 있는 자료(기본 하위집단의 정보)의 분석결과가 전국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 특히, cohort effect 효과를 진단하기 위해 그리고 동류집단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표본규모가 충분히 커야한다. 일단 표본가구가 설정되면, 최초 웨이브의 응답률은 낮고 불안정하나 이후에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표 5-6 참조). 표본이탈률이나 그 특성은 예비조사 등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2차년도 조사부터 표본 대표성의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5-6〉 외국패널의 응답률

웨이브	미국 PSID	독일 GSEP	영국 BHPS
1차	76	65	70
2차	89	88	88
3차	97	91	90
4차	97	94	95
5차	98	92	95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응답자들이 노화되어 은퇴, 사망함으로써 응답자수가 줄어들 것이다. 또한, 가구 자체도 노화되어 출산, 결혼, 취업 등의 발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전체 가구를 대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패널을 운영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 인구패널의 틀(표본추출 등)을 구성할 때,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캐나다의 SLID(Stud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은 표본가구를 6년 동안 유지하되, 4차 년도부터 새로운 표본을 시작하여 3년간은 3개의 패널이 동시에 유지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표출의 틀 하에서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센서스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10년마다 표본 재설계하고 있다. 동 방법의 장점으로는 표본의 대표성 보장, 조사내용의 유연성, 가구의 부담 경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다른 패널들은 한 번 선정된 표본가구를 패널이 계속되는 한 계속 유지하고 있다.

〈표 5-7〉 패널데이터 표본관련 이슈

구분	내용
가중치 부여 (패널데이터 1차 웨이브 가중치) <sup>1)</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표본추출확률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본추출확률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확률표본의 중요성</li> </ul> </li> <li>◦ 2단계: 무응답조정(nonresponse adjust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응답자의 정보획득 필요성</li> </ul> </li> <li>◦ 3단계: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적인 외부정보를 감안한 표본추출</li> </ul> </li> </ul>
가중치 추가 고려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본탈락(panel attr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적으로는 2가지 문제: 표본탈락(사망, 이민), 응답거부</li> <li>- 표본탈락확률의 계산문제</li> </ul> </li> <li>◦ 비원표본가구원(non-original sample household): 결혼, 합가 등으로 새롭게 원표본가구에 진입한 가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추출확률과 현재 웨이브까지 존재할 확률의 계산문제</li> <li>- 이를 계산하지 않고서도 불편추정량을 계산할 수 있는 기법 존재</li> </ul> </li> <li>◦ 기본적인 가중치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횡단면 가구가중치, 횡단면 개인가중치</li> <li>- 종단면 가구가중치, 종단면 개인가중치</li> </ul> </li> </ul>
가중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단면 가구가중치는 시계열적으로 동일한 가구가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HPS, GSEP는 종단면가구가중치 없으나, PSID, SIPP은 있음</li> </ul> </li> <li>◦ 가중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li> </ul>
표본오차 추정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의 패널조사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평균치에 집중하고 있으나, 조사의 정확도 차원에서 표본오차도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거의 모든 횡단면조사와 패널조사에서 표본오차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분석하는 경우에도 표본오차 산정에 단순임의표본추출(simple random sampling)에 기초한 계산방법 적용</li> <li>* 층화와 집락을 감안, 정확한 표본오차 계산 필요, 원시자료 제공단계에서 층화와 집락정보를 제공하거나 Jackknife에 근거한 replicate weight 제공 필요</li> </ul> </li> </ul>

주: 1) 모든 조사에서 3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님. PSID, GSEP는 1,2단계만 반영, BHPS, SLID는 1,2,3단계를 모두 거침

자료: 강석훈(2006).

과학적인 표본추출은 인구패널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가들에 의해 표본추출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동시에, 표본전문가들은 조사주제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조사주제의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는 표본추출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표 5-7>은 패널데이터의 가중치 문제를 제시한 것으로(강석훈, 2006), 인구패널에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제 4 절 인구패널 조사방법 방안

조사방법(method of enumeration)은 조사원 조사방법(canvasser or enumerator method)과 가구 기입방법(householder method)으로 구분된다. 조사원 조사방법은 개인과 가구에 대한 정보를 조사원이 수집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흔히 타계식(他計式) 방법이라고 한다. 조사원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가구(응답자)를 현지방문하여 면접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직접면접조사와 전화로 면접하는 전화면접조사로 구분된다. 전화면접조사는 전화통화를 통해 면접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결과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전화를 컴퓨터와 연계하여 조사하는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기법을 적용한다. 전화로 응답자의 접촉이 불가능한 경우,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기도 한다.<sup>주28)</sup>

가구기입 방법은 가구원과 가구에 관한 정보를 어느 한 가구원(주로 가구주)이 조사표에 기입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통 자계식(自計式) 방법이라고 한다. 가구기입 방법에서는 조사원이 조사표를 가구에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법과 우편으로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법(mail-out/mail-back)이 있다.

우편조사법은 회수율이 아주 낮아 조사표가 회수되지 않은 가구들에 대해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하게 되므로 조사과정이 복잡하고 추가 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다. 조사원 조사방법은 주로 국민의 상당부분이 문맹이어서 조사표 작성이 어렵거나 조사표의 작성을 꺼리는 경우에 이용된다. 문맹률이 매우 낮고 교육정도가 비교적 높은 국가에서는 가구기입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조사결과를 확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배포된 지침에 의거하여 가족(또는 가구원)이 서로 모여 상의하여 조사표를 작성함으로써 가구원 개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구기입 방식은 조사원에게 조사내용의 노출을 꺼리는 경우에도 적절한

주28) 미국 PSID의 경우 1973년 이후 전화면접을 실시하여, 가구를 대표하는 응답자(주로 성인 남자 1명)와 면접하여 자신을 포함한 모든 가구구성원에 관한 정보를 질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방법이다. 그러나 가구기입 방법에서 우편에 의해 조사표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경우에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나 우편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가구에 대해 최신의 정확한 주소명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조사원 기입방법은 조사원의 채용과 훈련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가구에 충분히 생각하거나 응답자가 아닌 다른 가구원에게 물어 응답할 시간을 주지 않음으로서 조사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은 조사 대상의 중복·누락을 방지할 수 있으며 조사표 회수율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조사방법은 비용과 자료의 질 측면뿐만 아니라 조사의 목적, 관련 기법의 변화, 조사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인구패널은 조사 내용이 방대할 뿐 아니라, 동일 가구를 최소한 수년간 반복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구패널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응답자와의 친밀도(rapport)가 형성,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구기입방식보다는 조사원조사방식이 더 적합할 것이며, 조사원 조사방식 중에서도 전화면접조사방법보다 직접면접조사방법이 더 적합할 것이다.

한편, 직접면접조사에서 조사의 정도(精度)를 높이고 결과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기법인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 많은 국내 패널(KRIVET의 KEEP,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한국여성개발원의 여성패널, 한국노동연구원의 KLIPS 등)에서 CAPI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정확성이 높은 자료를 생산한다는 실증적인 증거는 미약하며, 패널 구축 과정에서 방식을 전환하는 경우에 오히려 과거 웨이브와 단절될 가능성이 있다(강석훈, 2006). 따라서 동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조사환경, 예산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제 5절 인구패널 조사수행체계 방안

직접면접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조사원을 모집하고, 훈련 및 관리하는 등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는 조사 내용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가구의 조사거부를 방지하여 높은 응답률을 유지하는데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조사원의 모집·관리, 현장조사 실시 등을 수행하는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조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조사원 모집, 훈련, 현장조사 실시 등을 인구패널 주관기관(예로 연구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방안과 외부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와 조사의 일원화 방안은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조사 기획부터 조사 실시, 결과 분석 등 전반에 걸쳐 업무 중복이 발생하여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다. 이와 달리,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출 경우 연구 결과가 정확하게 조사에 반영되어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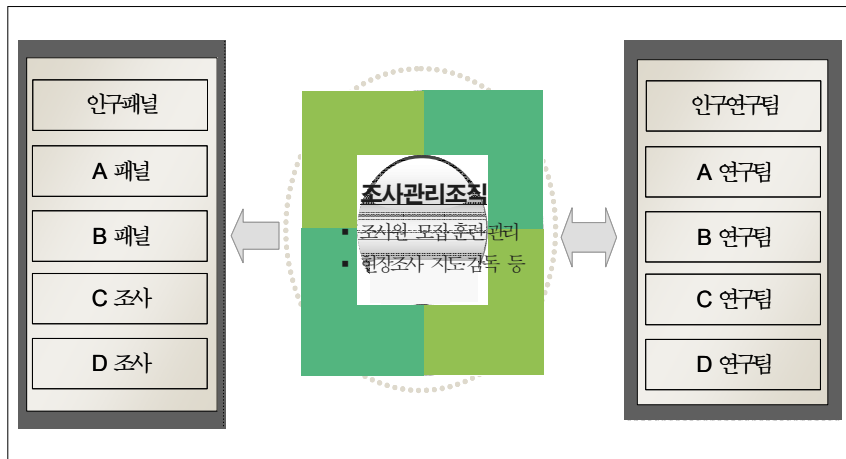
조사를 외부조사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연구와 조사를 이원화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별도의 조직이 전담하게 됨으로써 인력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연구 내용이 조사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할 경우, 연구와 조사가 별개로 진행되어 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모두 손상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외 많은 패널들은 외부전문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있으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에서 패널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조사기관(회사)들은 대부분 마케팅서베이 전문으로 학술서베이 전문회사가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그에 따라 가구, 청소년, 고령자, 청년 등 다양한 패널조사가 실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베이 자체에 대한 연구결과가 축적되지 못했다(강석훈, 2006).<sup>주29)</sup>

조사 수행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제안하고자 한

주29) 이에 대해 강석훈(2006)은 국내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패널조사를 담당한 학술서베이 특화 조사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예로 영국의 NOP와 독일의 Infratest를 들고 있다.

다. 하나는 연구기관에서 조사까지 수행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연구기관에서 인구패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패널이나 조사들을 수행하여 규모경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효율적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여러 패널과 조사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조사팀(센터)을 조직하여 조사 기획부터 조사원 모집, 훈련, 현장조사 지도·감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케 하는 것이다. 한편, 동일 연구기관 내 연구팀들은 조사 기획과 결과 분석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형태는 현재 통계청에서는 별도의 조사관리팀이 조사원과 표본가구를 관리하고, 조사 기획과 분석 등은 각 조사주체를 담당하는 실무팀에서 수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방안을 도시화하면 [그림 5-4]와 같다.

[그림 5-4] 인구패널 조사수행체계(안): 연구기관에 조사조직을 두는 방안



다른 한 방안은 조사 기획과 분석 등은 연구기관에서 담당하고, 조사원 관리 및 현장 조사 업무를 외부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여전히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가 문제가 된다. 연구기관에서 조사 과정과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연구기관의 인력이 현장을 지도·감독하는 낭비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연구기관에서 소수의 조사만을 수행하여 규모경제의 효과가 없는 경우 독자적인 조사수행조직을 운영하는데 예산상 한계가 있



다. 그 경우 동 방안은 불가피하게 채택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사전문기관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 동 방안은 연구기관이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물론이다.

반복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는 특성을 가진 인구패널의 성패는 전화조사방법이든 직접면접조사이든 관계없이 조사원이 응답가구(응답자)와 친숙한 분위기를 유지하여 조사협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동일한 면접조사원이 계속하여 가구(응답자)를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외국패널에서 비용투입이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조사사례금은 지불하지 않고, 대신 설득과 분위기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상품권이나 적은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한 생필품 등을 제공하는 성의를 보이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인구패널을 담당하는 인력은 가급적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유지하여 풍부한 전문성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오래된 패널조사의 경우 최초 기획자가 현재까지 연구책임자로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강석훈, 2006). 그 경우 패널조사에 대한 관심도가 변경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인구패널 담당 조직은 적절한 인력구조를 갖추고, 오랜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패널관련 전문가들을 정규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제 6 장 결론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하여 출산억제정책의 성공에 도취되었으며, 그 후에는 인구관련 정책과 조직이 쇠퇴해지고, 학문의 분야에서도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급기야는 인구 변동과 그 원인 및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고갈되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인구변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의 부재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현상을 여기하며, 미래 한국 사회의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최근의 혼동과 향후 사회경제적 영향을 감안해 볼 때, 인구변동 추정 및 인구현상과 사회현상간의 연계성 분석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래에는 저출산 지속, 고령화 급진전, 국제결혼 및 노동이민 증가 등으로 급격하고 다양한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성장,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이동, 질병, 사망 등 인구동학적인 차원에서 인구변동요인의 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예측하고, 인구현상과 사회현상간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로 기초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구패널의 효율적인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한편, 인구패널의 법적 근거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 제23조 및 제29조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이다. 연구를 위해 패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국내외 패널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 국내패널들은 현재 실시 중에 있는 가구 또는 개인 패널들로 청소년패널조사, 한국교육종단연구, 교육고용패널, 청년패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복지패널, 여성가족패널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등 10개 패널들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국내 패널들의 목적, 조사주제, 설문문항구성, 모집단 및 조사대상, 표본추출틀 및 표본추출방법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각 패널은 나름대로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요컨대, 현재 수행 중인 국내패널들은 적어도 수행기관의 기본목적과 정책기관의 수요가 총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패널의 목적과 조사대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자. 청소년패널조사, 교육종단연구 및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는 수행기관(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서로 다를지라도, 초·중·고 학생의 향후 진로와 청소년 문제해결 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들 패널 중 조사대상이 상급학교 학생일수록 교육과 고용을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중요시되며, 이러한 경향은 청년패널과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즉, 청년패널은 청년실업 해소와 관련하여 그리고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교육-고용을 연계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고용에 관해 특화된 패널로 고용에 관한 학술 연구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45세 이상 대상)와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50세 이상 대상)의 두 패널은 중고령자 이상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노동시장 이후 활동 등에 관한 자료 수집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고령화관련 정책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리고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은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장기적 발전방향 모색 및 고령화대책의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패널들은 생애경로의 각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이슈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복지패널과 여성가족패널조사는 특정한 생애경로에 중점을 두고 있기보다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패널로 앞서 제시한 여러 패널들이 취급하고 있는 주제들 대부분을 취급하고 있다. 물론, 한국복지패널은 저소득층의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여성가족패널은 19~64세 여성을 조사하여 성평등(여권신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구패널은 인구동학에 관한 주제를 주로 다루기 위한 것인 만큼 생애경로의 어느 특정한 과정이나 사회학적 또는 생물학적 어느 특정한 집단에만 중점들을 수 없다는 한계성이 있다. 따라서 인구패널의 조사주제는 아주 포괄적인 성

격을 가질 수 있다.

다음으로, 각 패널의 조사주제와 설문문항은 목적이나 조사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패널의 조사대상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관련 조사주제와 설문문항이 중점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조사대상 연령이 높아질수록 조사주제가 교육에서 경제활동으로 이동하여, 교육관련 설문문항들이 줄어들고 경제활동관련 설문문항들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경제활동관련 조사주제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에서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청년패널과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 더 많이 배치되어 있으며, 노동패널에서는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복지패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등에서는 교육관련 주제와 경제활동관련 주제의 설문문항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신 건강, 사회보장 주제와 관련한 설문문항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즉, 생애경로에 따라 중점 조사주제가 변경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패널조사의 주제가 교육에 집중되어 있어 대상이 젊은 층일 경우, 교육관련 항목들이 중복되어 나타난다. 그러한 패널들은 청소년패널조사, 한국교육종단연구,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청년패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등이 포함된다. 경제활동에 관한 항목들은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청년패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복지패널 등에서 중복적으로 나타난다. 노후보장에 관한 항목들은 빈곤패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등에서 일부 중복되어 나타난다. 한편, 어느 한 가지 패널에서도 보육, 교육, 진로·직업교육훈련, 학교생활, 가정생활, 사회활동, 경제활동, 결혼·출산, 건강상태, 사회보장·노후보장 등의 모든 주제를 집중하여 다루고 있지는 않다. 각 패널은 여러 주제들을 동시에 다루고 있으나, 이는 패널 목적과 관련한 중점주제와의 연관 분석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설문문항의 구성이나 내용(깊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궁극적으로 어떠한 패널도 목적과 중점주제가 다를지라도 사회구조적 변수들을 공통적으로 포함하여야 관심영역과 사회현상간의 연관성을 검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정책 수립·평가 등의 기초 자료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인구패널의 경우 인구동학과 사회경제현상과의 연관성 분석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변수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패널들의 사회구조적 변수들 중 일부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이들 패널을 동일하거나 중복적인 것으로 판단할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음으로 모집단과 표본추출틀 및 추출방법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대한 논의이다. 3개 패널(청소년패널조사, 한국교육종단연구,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은 조사대상을 교육통계연보 상 전국 초·중·고 학생의 모집단에서 층화다단계집락 표출하였다. 그러나 모집단은 초4와 중2(청소년패널조사), 중1(한국교육종단연구), 중3과 고3(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으로 서로 다르다. 이들 패널들을 종합하면,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전체 학년(1~3학년), 고등학교 3학년으로 구성된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전국 전문대 이상 졸업생을 모집단으로 층화무작위 추출하여 조사대상을 설정하고 있다. 청년패널,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복지패널, 여성가족패널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및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모두 가구패널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패널시작 당시의 가장 최근 조사연도)의 조사구를 이용하여 전국 일반가구의 모집단에서 조사대상 가구를 층화다단계집락 표출하였다. 단,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도시가구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청년패널은 무작위추출법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가구를 접근하고 있으나, 실제 조사대상은 가구원 중 일부로 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상의 종합적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패널들 각각의 목적은 나름대로 고유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과 조사주제 및 설문문항의 구성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부 패널간의 조사주제들이 유사하며, 설문문항도 유사하다. 예를 들어, 교육관련 패널(청소년패널조사, 한국교육종단연구,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청년패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과 경제활동관련 패널(청년패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노후보장관련 패널(고령화연구패널조사와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등이 해당된다. 이들 유사 패널들의 표출틀이나 표출방법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그러나 조사대상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교육관련 패널들은 학교급과 학년이 다르게 나타난다. 경제활동관련 패널들이나 사회보장관련 패널들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조사대상의 연령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면 한 패널에서 많은 조사주

제나 설문문항들을 한 패널에서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패널들을 통폐합하는 경우, 조사가구의 응답부담, 현장조사업무의 과중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부 항목들이 중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많은 조사주제와 설문문항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조사주제와 설문문항들을 한 패널에 집중시키는 경우 조사원이나 조사응답가구에 엄청난 부담을 발생시킬 것이다. 또한, 기존 패널들의 서로 다른 조사대상을 한 표본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며, 때로는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표본규모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존 패널간의 통폐합은 예산 절약이라는 단순 논리보다는 패널 구축의 고유 목적, 조사주제간 괴리, 조사항목수, 표본규모(한 표본에서 조사대상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통폐합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패널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활용성이다. 아무리 고유의 목적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하나, 패널조사 결과가 신뢰성이 낮고, 활용도가 낮다면, 그 패널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패널 수행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협의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각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하여 이 분야의 경험과 새로운 지식을 상호 교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패널과 다른 패널들과의 중복 여부에 관한 논의이다. 인구패널의 기본목적은 인구동학적 요인(출생, 사망, 이동 등)과 사회구조적 요인간의 인과관계성을 파악하고, 인구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인구패널 내용 중 사회구조적 환경은 지역사회, 가족관계, 교육, 노동시장, 가치관, 정책 등을 망라한다. 따라서 인구패널에 포함될 내용의 부분들은 다른 기존 패널에서 극히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기존 패널 중 어느 패널도 기본 목적을 훼손하지 않은 채, 저출산·고령화현상을 포괄하는 인구동학적 요인들과 사회구조적 요인간의 관계성을 모두 파악하고,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해주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인구 변동이 제 사회경제현상의 변화와 가치관 및 행태의 변화의 종합적인 결과라는 차원에서 인구패널은 보다 종합적인 성격을 가진다.

연구 결과로서 향후 인구패널의 구축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패널의 분석적 목적들은 1)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간의 연계 도모, 2) 시간 경과 및 정부정책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 또는 가구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양식 변화 측정; 3) 인구동태 분석,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상호 연관성, 정책의 효율성 평가 등에 있어서 ‘관찰 불가능한 변수의 효과적 제어’ 등이다. 인구패널의 정책적 목적들로는 1) 인구감시체계 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 2) 인구현상의 변동추이 파악, 사회경제적 원인 규명, 향후 변동 및 파급효과 진단 등을 통한 시의적절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 도출, 3) 이를 통해 원인·수요에 적합한 정책의 수립이 가능하여 정책의 시의성, 비용효과성 내지 효율성 제고, 정책 평가환류(feedback)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정책의 실효성 제고 등이다.

둘째, 인구패널은 매년 실시하는 기본조사와 일정 간격으로 실시하는 특별조사(부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기본조사의 주제는 인구변동-사회현상간의 관계성을 형성하는 요소들로 사회구조적 요인, 개인 및 가족 행태, 인구동태적 요인, 인구변동의 4가지 요인들의 인과관계적 순환모형을 통해 도출된다. 인구패널의 분석틀로는 사회·문화·경제현상과 인구변동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그 결과로서 출산·양육 및 노후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여, 적정 인구구조 유지, 성장동력 확보, 삶의 질 제고의 거시적인 국가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의 기초적이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조사주제 모듈(module)은 인구패널의 분석틀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개인·가구의 출산·양육(하위영역으로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성장·교육, 가치관, 취업, 결혼, 임신·출산, 보육, 교육, 안전, 건강 등)과 노후생활(하위영역으로 생활영역 기준에 의거 소득보장, 건강보장, 생활환경(교통·주거), 사회참여(문화·여가) 등)이 포함된다. 외생변수적인 조사주제들로 사회·경제변동, 제도·정책 변화, 사회규범 및 문화 변화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특별조사(부가조사)의 주제로는 노후생활, 인구이동, 삶의 질, 보육·교육·훈련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기존의 횡단면적인 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이 비용 효과성, 조사주제의 양적 및 질적 수준 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셋째, 인구패널의 조사대상은 표본가구 및 가구원으로 가구용설문서와 개인용설문서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개인용설문서의 경우 가구의 대표응답자가 모든 가구원에 질문하여 응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조건들에 한정하여 대리응답을 허용한다. 원표본가구와 원표본가구원은 원칙적으로 추적 조사하도록 하며, 추적 용이성, 예산 가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모집단 및 표본 추출은 통계청의 인구및주택총조사에서 파악한 보통조사구(일반가구)로 설정하며, 표본규모는 예산 규모, 조사항목 선정, 표본이탈률, 기본하위집단 정보의 분석결과의 전국 대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넷째, 인구패널의 조사방법으로는 조사원에 의한 직접면접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직접면접조사에서 조사정도(精度)를 높이고 결과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적용을 고려한다.

다섯째, 인구패널 조사수행체계로는 연구기관에서 기획, 현장조사, 자료처리, 결과분석 등 전담하는 일원화 방안과 기획과 분석은 연구기관 담당, 현장조사는 외부조사기관 의뢰하는 이원화 방안을 검토한다. 규모의 효과성이 없거나 현장조사의 곤란성이 부각되는 경우에는 이원화 방안을 채택하도록 한다.

끝으로 인구패널의 최종 구축방안들은 2007년도 예비조사의 과정을 통해 치밀하고 합리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조직체계 구성과 인력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본 연구 결과가 향후 성공적인 인구패널 구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한편, 장기적으로 인구패널은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패널과 국민의료비패널과 통합적으로 연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합적인 운영은 동일한 비용(조사예산, 가구응답부담, 운영인력 등)을 투입하면서도 표본규모를 증가시켜 인구, 보건, 복지의 다양한 주제를 유기적·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인구·보건·복지 패널의 체계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인구, 보건, 복지 부문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자료 생성을 가능케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석훈, 『유럽의 패널조사 현황과 시사점 - 가구패널조사와 국제비교학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노동패널연구 working paper』, 한국노동연구원, 1997.
- \_\_\_\_\_, 『KLIPS의 가중치 부여방안 연구』, 한국노동패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3.
- \_\_\_\_\_, 『한국 패널조사의 현황과 과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포럼: 인구패널의 효율적 구축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경제인문사회연구원, 내부자료, 2006.
- 금재호, 『고용관련 패널조사의 의의와 필요성』, 한국노동연구원, 1998.
- 김미곤 외, 『2006년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발간예정.
- 김민경, 『인구센서스의 이해』, 글로벌, 2001.
- 남재량 외, 『제6차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2005.
- 박수미 외,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여성개발원, 2006.
- 신동균, 『미국 패널데이터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노동패널연구, 1998.
- 신현구 외, 『고령자패널조사 소개』, 한국노동패널연구, 노동리뷰 4월호, 2006.
- 어수봉, 『고용구조 및 청년패널의 조사 설계』, 중앙고용정보원, 2002.
- 은기수, 『미혼에서 결혼으로 이행』, 보건복지포럼, 1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pp.25 ~ 35.
- 이경상 외, 『한국 청소년 패널 조사(KYPS) II : 조사개요 보고서』,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 \_\_\_\_\_, 『한국 청소년 패널 조사(KYPS) IV』,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 이계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표본설계』, 한국노동연구원, 2006.

- 이삼식 외, 『저출산원인과 종합대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이상호, 『한국노동패널(KLIPS)의 표본이탈분석』, 노동리뷰, 2005.
- \_\_\_\_\_, 『서구 주요 패널의 조사전략 변화와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2006.
- 이용하 외,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개요」, 『연금포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원, Vol.19, pp. 23~35, 2005.
- 정부합동,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2006.
- 한국고용정보원, 『2006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06.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중단연구 2005를 위한 설문조사 : 학생평가용,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검사지』, 2005.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7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2006.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제5차 한국청년패널조사 : 가구용·고등학생용 설문지』, 2005.
- \_\_\_\_\_, 『제2차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 가구용·고등학생용 설문지』, 2005.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년도 조사(2004) 사용자 지침서』, 2005.
- Atoh, Makoto, "Traditional Family Values of Unmarried Women-in Relevance to the Phenomenal Rise in the Proportion Never Married," *PPRC, The Mainichi Shimbun*:117~150, 1998.
- Beets, Gijs, "European Variations in Education and in Timing of First Birth: Primarily FFS Evidence", A Paper Presented in the 23rd General Population Conference of the IUSSP. 11~17 October 1997, Beijing, 1997.
- Deaton, Angus, *The Analysis of Household Survey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0.
- Hermalin, A. I., "Fertility Regulation and its Costs: A Critical Essay", *En Determinants of Fertility in Developing Countries*, Vol. II, 1~53. Nueva York: Academic Press, 1983.

- Hoem, Britta and Jan M. Hoem, "Sweden's family policies and roller-coaster fertility", *Journal of Population Problems*, 52(3-4):1~22, 1996.
- Lesthaeghe, Ron & Johan Surkyn, "Cultural Dynamics and Economic Theories of Fertility Chang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4(1), 1988, pp. 1~45.
- Palomba R, Menniti A., Caruso M.G., "Demographic changes, values and attitudes of young Italians", *IUSSP XXII General Conference*, Session 42, Pechino, 11~17 Ottobre, 1997.
- Roussel, L, "Fertility and the Family". *Proceedings European Population Conference*, Geneva 1993, Vol. I .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1994, pp.35~110.

## [ 부록 1 ] 국내 패널의 조사주제 및 설문문항 구성

<부표 1-1> 청소년패널조사의 주요 설문문항, 2006년 기준

구분	분류	세부문항
공동 (초4, 중2)	가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자 선정 질문(보호자 여부 확인)</li> <li>- 학생의 현재 부모와의 가족구성 형태</li> <li>- 학생과 부모와의 동거 여부(비동거 이유)</li> <li>- 학생과 부모 및 보호자와의 동거 여부(비동거 이유)</li> <li>- 학생 부모의 학력(학교급, 전공, 이수여부, 이수국가)</li> <li>- 부모(보호자)의 직업, 근로형태</li> <li>- 형제자매수</li> <li>- 조부모, 친인척 동거여부(수)</li> <li>- 가구의 경제활동참여자 수</li> <li>- 가구의 월평균 소득</li> <li>- 월평균 사교육비</li> <li>- 거주 주택의 소유형태</li> </ul>
초4패널 학생용	사회인구학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출생년도</li> <li>- 학생 거주지 단위</li> </ul>
	직업선택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래직업에 대한 태도</li> <li>- 장래 희망직업 결정 여부</li> <li>- 학생과 부모가 희망하는 학교급</li> </ul>
	진로준비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학기 과목별 성적</li> <li>- 과목별 사교육 여부, 형태, 시간, 성적향상 효과</li> </ul>
	기타 생활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과 부모와의 관계</li> <li>- 학생의 인성관련 사항</li> <li>- 학교생활과 학업성적에 관한 사항</li> <li>- 지역사회에 관한 사항</li> <li>- 친한 친구 수, 만남정도, 관계, 일탈행위를 함께한 친구 수</li> <li>- 학생이 행한 일탈행위 수(가장 먼저 한 행동, 시기)</li> <li>- 놀림, 협박, 왕따, (성)폭행 등 경험 여부</li> <li>- 일주일 평균 용돈, 용돈의 출처</li> <li>- 주된 컴퓨터 이용장소, 이용시간, 목적별 이용정도</li> <li>- 휴대폰 소지 여부, 사용시간, 월평균 요금, 사용이유</li> <li>- 친하게 지내는 사람(순위)·관계</li> </ul>
	자아관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li> <li>- 사회통념에 대한 태도</li> <li>- 자신의 생각·행위에 대한 평가</li> <li>- 스트레스 정도</li> <li>- 전반적 생활에 대한 만족도</li> <li>- 전학 경험 여부(횟수)</li> </ul>

## 〈부표 1-1〉 계속

구분	분류	세부분항
중2패널 학생용	사회인구학적 특성	- 본인 및 부모의 인적사항 - 3개월 내 이사계획 여부
	직업선택 관련 사항	- 장래 직업선택과 관련된 현재의 상황 - 장래 희망직업 결정 여부(희망 직업명), 결정 계기 - 희망 직업의 특성, 희망직업 선택시 중요 요인 - 성공적 직업생활을 위해 중요한 것 - 희망직업의 결정 요인, 학력의 영향력 정도, 성취 가능성 - 부모가 희망하는 직업
	향후 진로설정 관련 사항	- 학생 일상생활의 전반적 상황 - 학생의 학교 관련 현황 - 중학교 졸업 후의 진로결정 상태 - 진로설정에 대한 일반적 태도 - 학생과 부모가 희망하는 학교급 - 부모와의 대화정도 - 진로결정의 계기
	진로준비 관련 사항	- 지난 학기의 성적(반/전교), 과목별 반등수 - 과목별 학교수업 열의도 및 성적향상 효과여부 - 과목별 사교육 여부, 형태, 시간, 성적향상 효과여부 - 과목별 독학 시간 및 성적향상 효과 여부 - 초교 이후 교내외 경시대회 수상경력, 자격증 취득 여부 - 지난 1년간 진로관련 활동여부, 진로설정관련 도움정도 -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종류, 시작 시기, 근로기간, 주당 근로일수, 1일 근로시간, 시급 - 아르바이트 이유 - 아르바이트 구직의 우선순위 -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경험 여부 - 아르바이트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부모동의서 제출 여부 - 아르바이트 경험이 미래 직업생활에 대한 도움정도 - 아르바이트로 인한 일상생활 피해정도
중2패널 학생용	여가 관련 사항	- 평일, 휴일의 여가활동, 함께하는 사람, 장소 - 현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불만족 이유)

〈부표 1-1〉 계속

구분	분류	세부분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년간 수련활동 참여여부, 참여횟수</li> <li>-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횟수, 시간, 이유</li> <li>- 동아리활동 참여여부, 참여기간, 횟수</li> </ul>
	기타 생활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과 가정·부모와의 관계</li> <li>- 학생의 인성관련 사항</li> <li>- 학교생활과 학업성적에 관한 사항</li> <li>- 지역사회에 관한 사항</li> <li>- 친한 친구 수, 만남정도, 관계, 일탈행위를 함께한 친구 수</li> <li>- 학생이 행한 일탈행위 수(가장 먼저 한 행동, 시기)</li> <li>- 놀림, 헐뜯, 왕따, (성)폭행 등 경험 여부</li> <li>- 일주일 평균 용돈, 용돈의 출처</li> <li>- 주된 컴퓨터 이용장소, 이용시간, 목적별 이용정도</li> <li>- 휴대폰 소지 여부, 사용시간, 월평균 요금, 사용이유</li> </ul>
	생활영역별 시간배분 및 중요도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기 및 방학 중 각 생활영역별 평균 소요 시간</li> <li>- 일상생활 중 중요한 시간</li> <li>- 친하게 지내는 사람(순위)·관계</li> </ul>
	자아관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li> <li>- 사회통념에 대한 태도</li> <li>- 자신의 생각·행위에 대한 평가</li> <li>- 스트레스 정도</li> <li>- 전반적 생활에 대한 만족도</li> </ul>

〈부표 1-2〉 한국교육종단연구의 주요 설문문항, 2006년 기준

구분	분류	세부문항
학생대상	학생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사항(학교, 성명, 학년, 반, 번호, 성별, 생년월일)</li> <li>- 각 사항들이 인생에서 중요한 정도</li> <li>- 초교6학년 당시 성적 수준</li> <li>- 자신에 대한 평가</li> <li>- 과목별(국어, 영어, 수학) 수업방식과 내용 관련 사항</li> <li>- 과목별(국어, 영어, 수학) 수업에 대한 이해정도</li> <li>- 교사와 학생의 수업 관련 사회적 규범에 대한 태도</li> <li>- 학교생활</li> <li>- 가장 친한 친구의 특성(성명, 성별, 학년/반, 성적 등)</li> <li>- 학교생활 관련 규범 위반 정도</li> <li>- 학교 규칙에 대한 태도, 학교 선생님에 대한 태도</li> <li>- 지난 1년간 교내외 동아리 활동 경험 유무</li> <li>- 동아리 종류별 참여 유무, 참여정도</li> <li>- 지난 1년간 학교 임원 활동 경험 유무</li> <li>- 지난 1년간 교내외 봉사활동 시간</li> <li>-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li> <li>- 학교과제 이외의 주당 평균 독서시간</li> <li>- 독서에 대한 태도</li> <li>- 과목별 숙제·공부 관련 주당 평균시간</li> <li>- 지난 1년간 아르파이트 경험여부 및 기간, 이유</li> <li>- 1일 평균 컴퓨터 사용시간, 사용용도별 사용시간</li> <li>- 주당 평균 운동시간</li> <li>- 주중·주말의 1일 평균 TV 등 시청, 게임 관련 시간</li> <li>- 문화활동 정도</li> <li>- 월평균 용돈, 용돈의 주사용처</li> <li>- 중학교 이후 진로, 희망하는 최종 학력 수준</li> <li>- 30대 초반에 희망하는 직업(2순위)</li> <li>- 부모가 희망하는 최종 학력 수준</li> <li>- 평소 학생에 대한 부모의 태도</li> <li>- 일상활동별 부모와의 참여 정도</li> <li>- 시험에 대한 학생의 태도</li> </ul>
	학습능력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부하는 이유, 교과학습 관련 사항, 자신의 학습능력</li> <li>- 교과에 대한 자신감, 학업노력 정도, 학습태도, 학습방법, 수학과목의 학습능력</li> </ul>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를 위한 설문조사: 학생평가용,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검사지」, 2005.

〈부표 1-2〉 계속

구분	분류	세부분항
학생 환경	학교조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정도</li> <li>- 지난 1년간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교단위 연수 정도</li> <li>- 교원현황(교감수, 전공교과별 교원수, 교원 소요 현황)</li> <li>- 예산현황, 항목별 예산 비중</li> <li>- 전공교과의 수준별 수업진행 방식, 수준별 이동수업 교과목 현황</li> <li>- 국민공통교육과정의 교과재량 활동에서 심화·보충 학습과목으로 선택된 교과목 및 개설 학급수</li> <li>- 창의적 재량활동 프로그램 운영 현황, 특별활동 종류별 학교의 중점도</li> <li>- 자율학습·보충수업 실시 여부, 교과교실제 운영 유무(대상학년, 운영 과목명)</li> <li>-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교사·학생·학부모 의견 조사 여부</li> <li>-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의 종류</li> <li>- 학생 평가 결과의 사용 목적, 진로상담 방법</li> </ul>
	교장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장의 인적사항(성별, 연령, 교직경력, 전공)</li> <li>- 학교 운영의 교육목표, 교사평가시 주요 고려사항</li> <li>- 각 학교운영사항 결정시 의견수렴 정도</li> <li>- 교사·학생에 대한 평가</li> <li>- 학부모에 대한 기대감, 학교운영 사항별 중요도</li> <li>-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되는 요인</li> <li>- 학생의 목적달성시 주된 영향요인에 대한 견해</li> <li>- 학교운영에 대한 교장의 영향력 정도</li> <li>- 모임·기관·단체들과의 관계</li> <li>- 상부기관의 교장 평가시 영향요인</li> <li>- 교칙 위반사례 발생 정도</li> </ul>
	교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인적사항(성별, 연령, 교직경력, 최종학력, 교직이수, 직위, 담임여부)</li> <li>- 담당 교과목 내용, 교과별 교사자격 취득 방법</li> <li>- 가입 교원단체, 참여하고 있는 교사소모임</li> <li>- 교직 선택의 동기</li> <li>- 학생의 목표 달성시 주된 영향요인에 대한 견해</li> <li>- 수학교과목에 대한 태도</li> <li>- 수업방식 및 내용 관련 사항</li> </ul>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를 위한 설문조사: 학교조사용,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검사지」, 2005.



〈부표 1-3〉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의 주요 설문문항, 2006년 기준

구분	분류	세부문항
가구용	보호자 관련 사항	- 보호자 변동 사항(관계, 변동 이유) - 남성 보호자와의 관계, 경제활동 여부, 고용형태, 월 평균 소득, 직종, 교육훈련 여부 - 여성 보호자와의 관계, 경제활동 여부, 고용형태, 월 평균 소득, 직종, 교육훈련 여부
	가구 관련 사항	- 월평균 가구 소득, 월평균 저축액, 채무 - 월평균 생활비, 가구원 전체 사교육비, 해당 패널 사교육비 - 해당 패널만을 위한 방 유무, 주택의 점유형태, 거주지 규모
고등 학생용	학교생활 관련 사항	- 학교명, 학교소재지, 일반계·실업계 선택이유, 학교 유형 - 입학불합격 경험(불합격 고교 유형) - 재학 중인 학교를 선택한 이유 - 세부 전공과, 전공 선택시 고려한 점 - 학교시설 만족도, 수업시간 평가, 수업태도 평가, 학교 생활 전반 만족도 - 혼자 공부하는 시간, 학급석차, 전교석차 - 입원 경험, 부정행위 경험, 무단결석 경험, 징계 경험
	가정생활 관련 사항	- 거주지, 남성보호자·여성보호자 동거여부 및 비동거 사유, 보호자 양육태도 - 가정생활 만족도 -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곳, 방과 후 집에 가면 있는 사람 - 용돈 액수, 용돈 사용처, 용돈 마련 방법 - 가출경험 가출기간, 가출 이유 - 가구원의 학력변동 및 취업여부, 소득액
	여가 관련 사항	- 여가시간, 여가활동, TV시청 시간 - 컴퓨터 사용 시간, 목적별 컴퓨터 사용정도 - 독서량, 독서종류 - 동아리 활동 및 시간 - 친한 친구 수,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 친구들과의 활동, 친구들과의 공통적 특성
	사교육 관련 사항	- 과목별 사교육 경험 및 시간, 종류, 사교육 비용, 성적 향상 도움정도 - 중3 시절 과목별 사교육 경험 및 시간, 종류, 사교육 비용, 성적향상 도움정도
	재학 중 근로경험 관련 사항	- 근로 경험 여부, 종류, 기간, 근무 일수 및 시간, 소득, 근로 이유, 구직 방법, 그만둔 이유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2차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가구용·고등학생용 설문지」, 2005.

## 〈부표 1-3〉 계속

구분	분류	세부문항
고등 학생용	진로계획 및 진로지도 관련 사항	- 미래직업 결정 여부, 희망직업명, 직업정보, 역할 모델, 희망이유, 직업 미결정 이유, 희망 교육 수준, 졸업 후 계획, 대학 진학 이유, 대학 희망 전공, 취업 및 창업을 원하는 이유 - 적성 파악 및 방법, 진로지도(가정, 학교), 진로정보 획득방법,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방학생활 관련 사항	- 방학 중 사교육 경험(과목별 사교육 시간, 종류, 사교육 비용), 혼자 공부한 시간 - 근로 경험(종류, 시간, 보수, 이유, 구직 방법, 그만둔 이유), 독서량 및 종류, 해외여행이나 연수 경험
	일반적 특성 관련 사항	- 건강 상태, 운동시간, 수면시간, 아침식사, 사귀는 사람 - 현재 고민거리, 자살고민 여부, 흡연/음주 여부, 폭력 행동 가해·피해 경험, 성관계 경험, 신장, 체중
중3 및 고3 학생용	휴학·복학 관련 사항	- 휴학 이유, 휴학 시기, 복학 여부, 복학 예정 시기
	학교생활 관련 사항	- 학교명, 학교소재지, 일반계·실업계 선택이유, 학교 유형 - 입학불합격 경험, 재학 중인 학교를 선택한 이유, 세부 전공과, 전공 선택시 고려한 점 - 학교시설 만족도, 수업시간 평가, 수업태도 평가, 학교 생활 전반 만족도 - 혼자 공부하는 시간, 학급석차, 전교석차 - 입원 경험, 부정행위 경험, 무단결석 경험, 징계 경험
	가정생활 관련 사항	- 거주지, 남성보호자·여성보호자 동거여부 및 비동거 사유, 보호자 양육태도 - 가정생활 만족도 -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곳, 방과 후 집에 가면 있는 사람 - 용돈 액수, 용돈 사용처, 용돈 마련 방법 - 가출경험 가출기간, 가출 이유, 가구원의 학력변동 및 취업여부, 소득액
	여가생활 관련 사항	- 여가시간, 여가활동, TV시청 시간 - 컴퓨터 사용 시간, 목적별 컴퓨터 사용정도 - 독서량, 독서종류, 동아리 활동 및 시간 - 친한 친구 수,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 친구들과의 활동, 친구들과의 공통적 특성
	사교육 관련 사항	- 과목별 사교육 경험 및 시간, 종류, 사교육 비용, 성적 향상 도움정도 - 중3 시절 과목별 사교육 경험 및 시간, 종류, 사교육 비용, 성적향상 도움정도
중3 및 고3	제학 중 근로경험	- 근로 경험 여부, 종류, 기간, 근무 일수 및 시간

## 〈부표 1-3〉 계속

구분	분류	세부분항
학생용	관련 사항	- 소득, 근로 이유, 구직 방법, 그만둔 이유
	진로계획 및 진로지도 관련 사항	- 미래직업 결정 여부, 희망직업명, 직업정보, 역할 모델, 희망이유, 직업 미결정 이유, 희망 교육 수준, 졸업 후 계획, 대학 진학 이유, 대학 희망 전공, 취업 및 창업을 원하는 이유 - 적성 파악 및 방법, 진로지도(가정, 학교), 진로정보 획득방법,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방학생활 관련 사항	- 방학 중 시교육 경험(과목별 시교육 시간, 종류, 시교육 비용) - 혼자 공부한 시간, 근로 경험(종류, 시간, 보수, 이유, 구직 방법, 그만둔 이유) - 독서량 및 종류, 해외여행이나 연수 경험
	일반적 특성 관련 사항	- 건강 상태, 운동시간, 수면시간, 아침식사, 사귀는 사람 - 현재 고민거리, 자살고민 여부, 흡연/음주 여부, 폭력 행동 가해·피해 경험, 성관계 경험, 신장, 체중
대학생용	학교생활 관련 사항	- 소속 학교명·학부명·전공명, 학년제, 주야간 여부, 학교 소재지, 전형방법, 입학유형, 대학과 전공 선택 영향요인 - 대학과 전공 만족도, 강의태도, 부정행위, 공부시간, 대학생활, 지도교수면담횟수 - 등록금마련방법, 장학금 수혜여부, 휴학여부, 재수 계획
	가정생활 관련 사항	- 거주 유형, 남성보호자-동거여부, 비동거 이유, 대화정도, 고교시절까지 양육태도, 여성보호자-동거여부, 비동거 이유, 대화정도, 고교시절까지 양육태도 - 가정생활에의 만족도, 용돈규모, 사용목적, 마련방법
	여가생활 관련 사항	- 여가시간과 여가시간에 하는 일, TV시청, 컴퓨터 사용 시간 및 사용정도, 독서현황 - 동아리 참여여부, 개수, 활동시간, 전공과 관련성, 자원 봉사활동 참여여부, 활동시간, 기부금
	교육·훈련 관련 사항	- 영어, 제2외국어, 전공 관련 학습 여부, 시간, 비용, 취업 창업 교육훈련 경험 유무, 분야, 기간, 시간, 지출비용, 장소, 취미교양 관련 교육훈련 여부, 분야
	재학 중 근로 관련 사항	- 근로경험, 총 소득, 가장오래한 일의 종류, 기간, 소득, 근무시간, 근무일수, 단위소득, 근로이유, 구직방법, 그만둔 이유
대학생용	진로계획 관련 사항	- 미래직업 결정유무, 미래직업명, 아는 정도, 희망이유, 전공과의 일치도, 미래직업 미결정 이유 - 유학계획, 시기, 해외연수 계획, 시기

〈부표 1-3〉 계속

구분	분류	세부분항	
		- 군입대 계획, 시기, 교육훈련여부, 적성 인지	
		고3시절의 사교육 경험 관련 사항	- 과외 및 학원 수강 여부, 1시간, 종류, 사교육비 규모, 사교육의 도움 여부 - EBS 수능 특강 시청 여부, 시청시간, 도움여부, 소감, EBS 수능 특강 평가
		현장실습(실업고 졸업자 대상) 관련 사항	- 현장실습 경험, 완료 여부, 중도탈락 이유 - 한 일, 사업체 종류, 한 일의 종류, 규모, 참여일수, 일한시간 - 현장실습 수당, 액수, 현장실습의 효과
		일반적 특성 관련 사항	- 건강에 대한 판단, 운동 시간, 수면시간, 아침식사, - 외모로 인한 차별 경험, 사귀는 사람 여부, 동거여부 - 고민거리, 자살고민여부, 동기, 흡연, 음주 여부, 신장, 체중
취업자· 비진학자용	구직활동 관련 사항	- 구직활동 경험 여부·기간, 구직 실패 경험 여부·회수·이유 - 직업훈련 참여/자격증 취득/취업 정보 검색/취업 부탁 /방문 취업 부탁/면접훈련/직업적성, 흥미검사/취업박람회 참여/구직정보 인터넷 올림 경험 여부·도움 정도 - 취업 정보 경로, 고용안정센터 인지 여부, 고용안정센터 상담 경험 여부·회수·평균 소요시간·내용·도움 정도 - 사설취업알선기관 상담 경험 여부·회수·평균 소요시간·총 비용·내용·도움 정도, 허위구인광고 경험 여부	
	가정생활 관련 사항	- 현재 거주 형태, 현재 남·여성 보호자, 남·여성보호자와 동거 여부·비동거 이유 - 남·여성보호자와 하루 평균 대화 시간, 중·고등학교 까지의 주된 남·여성보호자, 남·여성보호자의 양육태도 - 가정생활 만족도, 한달 평균 용돈, 용돈의 용도·출처 - 가구원 중 졸업자 유무, 졸업자의 관계코드·졸업한 학교 유형·현재 수입 유무·월평균 소득 - 가구원 중 진학자 유무, 진학자의 관계코드·진학한 학교 유형, 진학한 대학교/대학원 계열·명 - 사망한 가구원 유무	
	여가생활 관련 사항	- 여가 시간, 주요 여가 활동, TV시청 시간 - 컴퓨터 사용 시간, 목적별 컴퓨터 사용 정도 - 독서량, 독서 분야, 동아리 활동 여부·활동 수·할애 시간·활동 분야, 자원봉사 활동 여부·할애 시간·관련 비용	
취업자· 비진학자용	교육·훈련 관련 사항	-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경험 여부, 교육·훈련 분야·기간·시간·총 비용·기관 - 취업 목적 이외의 교육·훈련 경험 여부, 교양이나 취미를 위한 교육·훈련 분야	

## 〈부표 1-3〉 계속

구분	분류	세부분항
	직업력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경험 여부·회수, 1개월이상 지속된 일자리 경험 여부·회수, 일을 시작한 시기·그만둔 시기, 일을 한 지역, 일자리 설명, 일자리에서 한 일</li> <li>- 종사상 지위, 상용직 여부, 시간제 또는 아르바이트 성격 여부, 월평균 소득, 일주일 평균 근무 시간, 일을 그만둔 이유</li> </ul>
	진로계획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학력, 중학교 중퇴 이유, 중학교 복학 의사 여부</li> <li>- 고등학교 진학 계획 여부, 고등학교 진학하지 않는 이유, 고등학교 진학 예상 시기, 고등학교 중퇴 이유, 고등학교 복학 의사 여부</li> <li>- 대학입시 지원 경험 여부, 다녔던 대학교명·계열·학부명·학과·전공명, 대학 중퇴 시기·이유, 대학 진학 계획 여부, 대학 진학하지 않는 이유, 대학 진학 예상 시기</li> <li>- 학원 수강 여부, 개인 및 그룹과의 여부, EBS 수능특강 시청 여부, 온라인 과외 여부, 사교육비, 공부 시간, 학원·과외·EBS 시청 시간</li> <li>- 진학 희망 대학 유형, 진학 희망 대학명, 희망 전공, 군입대 예정 시기, 군입대 위한 자격증, 교육훈련 경험 여부, 적성 인지 여부</li> </ul>
	사교육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교육 경험 여부</li> <li>- 국어/언어/논술 사교육 경험 여부·시간·종류</li> <li>- 수학/수리 사교육 경험 여부·시간·종류</li> <li>- 영어/외국어 사교육 경험 여부·시간·종류</li> <li>- 과학영역 사교육 경험 여부·시간·종류</li> <li>- 사회영역 사교육 경험 여부·시간·종류</li> <li>- 예, 체능(진학) 사교육 경험 여부·시간·종류, 기타 취미</li> <li>- 교양 관련 사교육 경험 여부·시간·종류</li> <li>- 직업 교육 훈련 사교육 경험 여부·시간·종류, 사교육비, 사교육 도움 정도</li> <li>- EBS 수능특강 시청 여부, 언어영역 시청 경험 여부·시청 시간, 수리영역 시청 경험 여부·시청 시간, 외국어영역 시청 경험 여부·시청 시간, 탐구영역 시청 경험 여부·시청 시간, 제2외국어영역 시청 경험 여부·시청 시간, EBS 수능특강에 대한 의견</li> </ul>
취업자·비진학자용	현장실습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실습 경험 여부·완료 여부·그만둔 이유, 남은 실습 기간에 한 일, 현장실습 사업체 설명·한 일·규모, 현장실습 참가 일 수·시간·총 수당, 현장실습 특성</li> </ul>
	일반적 특성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 상태, 운동 시간, 수면 시간, 아침식사 여부, 외모로</li> </ul>

## 〈부표 1-3〉 계속

구분	분류	세부분항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한 차별 경험 여부, 사귀는 사람 유무·동거 여부</li> <li>- 현재 고민거리, 자살 고민 경험 여부·고민 동기, 흡연 여부, 흡연량, 음주 빈도, 신장, 체중</li> </ul>
	현 일자리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취업 여부</li> <li>- 현재 일자리 수</li> <li>[임금근로자]</li> <li>- 일자리 유형, 일을 시작한 시기, 직장 명·지역·설명, 직장에서의 하는 일·직책·직위</li> <li>- 상용직 여부, 비상용직인 이유, 시간제 또는 아르바이트 성격 여부</li> <li>- 직장의 분류 형태·규모, 연금·보험 가입 여부, 정규·초과 근무 시간, 월평균 임금·수당·특별급여, 임금을 받는 곳, 임금 체불 경험 여부</li> <li>- 노동조합 가입 여부, 일(업무)에 대한 평가·만족도, 구직활동 여부, 구직활동인 이유</li> <li>[자영업자]</li> <li>- 일을 시작한 시기, 사업체 지역, 사업체 설명, 종업원 유무·수, 월급 체불 경험 여부, 근무 시간, 월평균 매출액·소득</li> <li>- 사업체 분류 형태, 사업체 준비 기간, 총 투자액, 대출한 투자액 규모, 일(업무)에 대한 평가·만족도, 현재 구직활동 여부, 구직활동인 이유</li> <li>[무급가족종사자]</li> <li>- 일을 시작한 시기, 일하는 지역, 일자리 설명, 일자리에서 하는 일, 근무 시간, 월평균 매출액</li> <li>- 이 일을 하는 이유, 현재 구직활동 여부</li> </ul>
	취업 의사 및 준비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주일간 일자리 경험 여부·구직활동 여부, 취업 의사, 취업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 하고 싶은 일, 최소 희망 월소득</li> <li>- 취업을 위해 보내는 시간(스스로 공부·학원, 직업훈련 기관·구직활동)</li> </ul>

〈부표 1-4〉 청년패널의 주요 설문문항, 2006년 기준

구분	분류	세부문항
가구용	가구 관련 사항	- 가구원 확인(패널대상자 동거 확인) - 패널대상자 동거 여부(비동거 이유, 시기, 변동사항) - 비패널대상자 동거 여부(비동거 이유)
	신규 가구원 관련 사항	- 신규 가구원 동기 시기, 동거 이유 - 가구주 확인 및 가구주와의 관계 - 성별, 생년월일, 교육수준(학교급, 이수여부, 전공계열)
고등 학생용	패널대상자 관련 사항	- 학교급 재학 여부, 학교유형(수입활동여부, 일의 종류) - 1주간 주된 활동(1주간 수입활동 경험, 일자리 여부) - 지난 조사 이후 부모의 직업 변화 여부(변화 내용) - 군복무 경험 여부(입대예정 여부, 예정시기)
	가구의 주거상태 및 가구소득 관련 사항	- 지난 조사 이후 이사 경험 여부 - 주거 유형(주택의 종류, 평수) - 가구의 근로·금융·부동산·기타 소득 여부 및 액수
	학생의 학교현황 및 학교생활 관련 사항	- 금년도 고교 입학 여부(중학교 졸업시기, 학교 소재지, 학교명, 학교 유형, 학교 계열) - 재학 학년, 학과, 학교성적 - 과목별 선호도, 학비 부담자 - 매우 친한 친구 수(친구들의 특성) - 전학 경험 여부(전학시기, 학교명, 소재지, 학교유형) - 지난 조사 이후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종류, 기간, 주당 근무 일수, 주당 근무시간, 임금, 아르바이트 이유)
	사교육, 어학연수 및 여가활동 관련 사항	- 사교육 경험 여부(사교육 종류별 수강 경험, 과목별 사교육 수강 경험), 주당 사교육 투입 시간, 월평균 사교육 지출 비용(사교육 효과 정도) - 해외연수 경험 여부(연수국가, 연수목적, 연수기간, 향후 연수 계획 여부) - 여가시간의 주된 활동(활동 동아리, 여가활동 시간, 여가활동 관련 지출 비용)
	향후 진로관련 사항	- 고교 졸업 후 진로 결정 여부, 예상 진로 - 상급학교 진학 이유(결정시점, 희망전공, 선택 이유) - 취업이유(결정시점) - 개인사업 방법(사업비용조달방법, 사업내용, 결정시점) - 장래 희망직업 결정 여부(직업명, 일의 내용, 희망이유)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제5차 한국청년패널조사: 가구용·고등학생용 설문지」, 2005.

## 〈부표 1-4〉 계속

구분	분류	세부문항
고등 학생용	향후 진로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 준비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비시기, 노력 정도, 정보 입수경로, 인터넷 경로</li> <li>▪ 취업준비시 어려움, 구직과정시 실패경험 여부(횟수, 실패이유), 채용거절 경험(횟수, 이유)</li> <li>▪ 희망산업(이유, 희망 사업체규모, 중소기업회피 이유)</li> </ul> </li> <li>- 워크넷 인지여부(이용경험, 도움정도)</li> <li>- 직업선택시 직업관련 특성들의 중요도</li> <li>- 진로·교육 선택에 관한 현재 상태</li> </ul>
	진로지도(상담) 경험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조사 이후 진로지도(상담) 경험 여부(지도 기관, 지도내용, 심리검사 여부·도움정도, 소요시간)</li> <li>- 진로지도(상담)이 진로결정에의 도움 정도</li> <li>- 진로지도(상담) 받고 싶은 의향(받고 싶은 내용, 받고 싶지 않은 이유)</li> </ul>
	일자리 경력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여부</li> <li>- 일자리수, 기업체명, 사업체명, 직급, 직무내용, 사업체 규모, 고용형태, 근무시기, 평균 주당근로시간, 월평균 소득, 퇴직 이유</li> </ul>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조사 이후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무경험 이유)</li> <li>- 교육훈련 수, 분야, 시기, 평균교육·훈련시간, 기관, 목적, 도움정도, 비용부담자, 지출비용</li> <li>- 1년 이내 직업교육훈련 희망 여부</li> </ul>
	취득 자격증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조사 이후 자격증 취득 여부</li> <li>- 취득 자격증 수, 종류, 취득시기, 취득사유, 전공분야, 취업도움여부, 소득도움여부, 도움 안되는 이유</li> <li>- 1년 이내 자격증 취득 희망 여부(희망자격증 종류)</li> </ul>
	여성 직업활동에 관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에 직업활동에 대한 태도</li> </ul>
대학생 및 대학원생용	패널대상자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 재학 여부, 학교유형(수입활동여부, 일의 종류)</li> <li>- 1주간 주된 활동(1주간 수입활동 경험, 일자리 여부)</li> </ul>



## 〈부표 1-4〉 계속

구분	분류	세부분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상태 변화 여부(변화내용, 변화시기)</li> <li>- 지난 조사 이후 부모의 직업 변화 여부(변화 내용)</li> <li>- 군복무 경험 여부(임대예정 여부, 예정시기)</li> </ul>
	가구의 주거상태 및 가구소득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조사 이후 이사 경험 여부,</li> <li>- 주거 유형(주택의 종류, 평수)</li> <li>- 가구의 근로·금융·부동산·기타 소득 여부 및 액수</li> </ul>
	학생의 학교 현황 및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학 중인 과정, 학기, 지난학기 성적</li> <li>- 희망 최종학위, 주된 학비 부담자</li> <li>- 학교변경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변경 여부(변경 후 전공)</li> <li>▪ 지난 조사 당시 직장 여부(퇴직 시기, 이유)</li> </ul> </li> <li>- 현 학교 편·입학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입학년, 입학선호 순위, 입학·편입 시기</li> <li>▪ 지난 조사 당시 직장 여부(퇴직 시기, 이유)</li> <li>▪ 편입학 학교명, 소재지, 전공, 학교 유형, 학위과정, 고교 전공계열과의 유사성, 선택이유</li> </ul> </li> <li>- 복수·부전공 여부(전공명)</li> <li>- 현 전공에 대한 만족도(불만족 이유, 전공 바꿀 의향, 이유)</li> <li>- 매우 친한 친구수(친구들의 특성)</li> <li>- 휴학 경험 여부(횟수, 휴학기간, 휴학사유)</li> </ul>
	아르바이트 및 이전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조사 이후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횟수, 종류, 기간, 주당 근무일수, 임금, 아르바이트 이유)</li> <li>- 사회·대학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대학생활에서의 중요성 정도</li> <li>- 고교생활이 사회·대학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li> </ul>
	사교육, 어학연수 및 여가활동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조사이후 사교육 경험 여부(이유, 종류별·과목별 경험 여부, 주당 투입시간, 월평균지출비용, 도움정도)</li> <li>- 해외연수 경험 여부(연수국가, 연수목적, 연수기간, 향후 연수 계획 여부)</li> <li>- 여가시간의 주된 활동(활동 동아리, 여가활동 시간, 여가활동 관련 지출 비용)</li> </ul>
대학생 및 대학원생용	향후 진로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졸업 후 진로 결정 여부</li> <li>- 졸업 직후 예상 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급학교 진학 이유(결정시점, 희망전공, 선택 이유)</li> <li>▪ 취업이유(결정시점)</li> </ul> </li> </ul>

〈부표 1-4〉 계속

구분	분류	세부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사업 방법(사업비용조달방법, 사업내용, 결정시점)</li> <li>- 장래 희망직업 결정 여부(직업명, 일의 내용, 희망이유)</li> <li>- 취업 준비여부</li> <li>▪ 준비시기, 노력 정도, 정보 입수경로, 인터넷 경로</li> <li>▪ 취업준비시 어려움, 구직과정시 실패경험 여부(횟수, 실패이유), 채용거절 경험(횟수, 이유)</li> <li>▪ 희망산업(이유, 희망 사업체규모, 중소기업회피 이유)</li> <li>- 워크넷 인지여부(이용경험, 도움정도)</li> <li>- 직업선택시 직업관련 특성들의 중요도</li> <li>- 취업 준비여부(준비내용, 준비기간, 준비방법, 소요비용)</li> <li>- 진로·교육 선택에 관한 현재 상태</li> </ul>
	진로지도(상담) 경험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조사 이후 진로지도(상담) 경험 여부(지도 기관, 지도내용, 심리검사 여부·도움정도, 소요시간)</li> <li>- 진로지도(상담)이 진로결정에의 도움 정도</li> <li>- 진로지도(상담) 받고 싶은 의향(받고 싶은 내용, 받고 싶지 않은 이유)</li> </ul>
	일자리 경력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여부</li> <li>- 일자리수, 기업체명, 사업체명, 직급, 직무내용, 사업체 규모, 고용형태, 근무시기, 평균 주당근로시간, 월평균 소득, 퇴직 이유</li> </ul>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조사 이후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무경험 이유)</li> <li>- 교육훈련 수, 분야, 시기, 평균교육·훈련시간, 기관, 목적, 도움정도, 비용부담자, 지출비용</li> <li>- 1년 이내 직업교육훈련 희망 여부</li> </ul>
	취득 자격증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조사 이후 자격증 취득 여부</li> <li>- 취득 자격증 수, 종류, 취득시기, 취득사유, 전공분야, 취업도움여부, 소득도움여부, 도움 안되는 이유</li> <li>- 1년 이내 자격증 취득 희망 여부(희망자격증 종류)</li> </ul>
	여성 직업활동에 관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에 직업활동에 대한 태도</li> </ul>
취업자용	패널대상자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 재학 여부, 학교유형(수입활동여부, 일의 종류)</li> <li>- 1주간 주된 활동(1주간 수입활동 경험, 일자리 여부)</li> <li>- 혼인상태 변화 여부(변화내용, 변화시기)</li> <li>- 지난 조사 이후 부모의 직업 변화 여부(변화 내용)</li> <li>- 군복무 경험 여부(입대예정 여부, 예정시기)</li> </ul>

## 〈부표 1-4〉 계속

구분	분류	세부분항
	가구의 주거상태 및 가구소득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조사 이후 이사 경험 여부,</li> <li>- 주거 유형(주택의 종류, 평수)</li> <li>- 가구의 근로·금융·부동산·기타 소득 여부 및 액수</li> </ul>
	현 직장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조사당시 일자리 계속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조사당시 설문유형(학교졸업 유무, 졸업시기, 퇴직시기, 퇴직 이유)</li> <li>▪ 현직장 근무시작 시기, 현직장 선택시 직업특성의 중요도, 구직정보 습득 경로(인터넷경로 종류, 가장유용한 경로), 현직장 구직시 어려움, 이력서 제출 횟수, 구직실패 경험(횟수, 실패이유), 채용 거절 경험(횟수, 이유)</li> </ul> </li> <li>- 일자리 특성(기업체명, 사업체명, 주생산품목), 주된 업무내용(직급, 직무내용), 고용형태(비정규직 이유)</li> <li>- 기업체 특성, 사업체 규모, 직무 만족도</li> <li>- 교육수준 적합도(부작합시 대응·노력), 전공수준 적합도(전공 선택시기), 기술수준 적합도</li> <li>- 주당 평균근로시간, 월평균임금, 고학력에 따른 불이익 경험 여부(구직방법), 학력대비 대우정도(합당한 대우를 위한 대처방법)</li> <li>- 정규 학교교육을 통한 직무수행 능력 습득정도, 업무 능력 관련 정규학교교육 보완 사항, 평생직업·직장 여부(아닌 이유)</li> </ul>
	최종학교생활 및 현학교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 수행을 위한 각 능력들의 중요도</li> <li>- 최종학교 생활이 업무수행 능력 배양에 준 도움정도</li> <li>- 정규학교 재학여부(입학·편입여부), 재학 학기</li> <li>- 지난 조사 이후 전공변경 여부(현전공, 전공변경 이유)</li> <li>- 현학교 들어간 방법(편입학년, 입학·편입시기, 학교명, 학교 소재지, 전공, 학교유형, 학위과정)</li> </ul>
취업자용	향후 진로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후 현직장 계속 근로 여부</li> <li>- 향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급학교 진학 이유(결정시기, 희망학교, 희망전공, 선택이유)</li> <li>▪ 다른 일자리 찾는 이유, 개인사업 방법(사업비용 조달 방법, 사업내용, 결정시기)</li> </ul> </li> <li>- 이직 준비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비시작 시기, 이직노력 정도, 이직정보 습득경로</li> </ul> </li> </ul>

〈부표 1-4〉 계속

구분	분류	세부문항
		(주된 인터넷 경로), 이직시 어려움, 희망직업(직업명, 업무내용, 희망이유), 희망산업, 선택이유, 희망사업체 규모(중소기업 비선택 이유) - 워크넷 인지여부(이용경험, 도움정도) - 직업선택시 직업관 련 특성들의 중요도 - 취업목적 시험 준비여부(시험종류, 준비기간, 시험준비 방법, 월평균 소요비용) - 진로·교육선택 관련 현재 상태
	진로지도(상담) 경험에 관한 사항	- 지난 조사 이후 진로지도(상담) 경험 여부 ▪ 지도 기관, 지도내용(심리검사 여부·도움정도), 소요 시간, 진로결정에 도움 정도 ▪ 진로지도(상담) 받고 싶은 의향(받고 싶은 내용), 받고 싶지 않은 이유
	일자리 경력에 관한 사항	-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여부 ▪ 일자리 수, 근무형태, 기업체명, 사업체명, 직급, 직무내용, 사업체 규모, 고용형태, 근무시기, 평균 주당근로시간, 월평균 소득, 퇴직 이유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지난 조사 이후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 ▪ 무경험 이유, 교육훈련 수, 분야, 시기, 평균교육·훈련 시간, 기관, 목적, 도움정도, 비용부담자, 지출비용 - 1년 이내 직업교육훈련 희망 여부
	취득 자격증에 관한 사항	- 지난 조사 이후 자격증 취득 여부 ▪ 취득 자격증 수, 종류, 취득시기, 취득사유, 전공분야, 취업도움여부, 소득도움여부, 도움 안되는 이유 - 1년 이내 자격증 취득 희망 여부(희망자격증 종류)
	여성 직업활동에 관한 태도	- 여성에 직업활동에 대한 태도
미취업 자용	패널대상자 관련 사항	- 학교급 재학 여부, 학교유형(수입활동여부, 일의 종류) - 1주간 주된 활동(1주간 수입활동 경험, 일자리 여부) - 혼인상태 변화 여부(변화내용, 변화시기) - 지난 조사 이후 부모의 직업 변화 여부(변화 내용) - 군복무 경험 여부(입대예정 여부, 예정시기)
	가구의 주거상태 및 가구소득 관련 사항	- 지난 조사 이후 이사 경험 여부, - 주거 유형(주택의 종류, 평수) - 가구의 근로·금융·부동산·기타 소득 여부 및 액수
	현 직장에 관한 사항	- 지난 조사당시 일자리 계속 여부 ▪ 퇴직시기(퇴직이유) 지난 조사당시 학교 재학여부(졸업

〈부표 1-4〉 계속

구분	분류	세부분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부, 졸업시기)</li> <li>- 1주·1개월내 구직 경험 여부, 구직자·비경활자 구분 [구직자]</li> <li>- 구직활동 기간, (재)취업 노력정도(이력서 제출 횟수)</li> <li>- 구직정보 습득 경로(인터넷경로 종류)</li> <li>- 워크넷 인지여부(이용경험, 도움정도)</li> <li>- 구직시 어려움, 구직실패 경험(횟수, 실패이유), 채용 거절 경험(횟수, 이유)</li> <li>- 고학력에 따른 불이익 경험 여부(구직방법)</li> <li>- 희망직업(직업명, 업무내용, 선택이유, 산업(이유), 사업체 규모(중소기업 비선택 이유), 희망소득</li> <li>- 직업선택시 직업관련 특성들의 중요도</li> <li>[비경제활동인구]</li> <li>- 6개월내 구직 경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활동기간, 취업노력 정도, 주된 구직정보 습득 경로(주된 인터넷 경로), 구직활동 종료시기</li> </ul> </li> <li>- 적합한 일자리 있을 시 일할 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취업 이유(취업을 위한 육이문제 해결 방법)</li> </ul> </li> <li>- 취업할 수 있는 일거리 있어도 일 못하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입준비 교육방법, 희망전공, 전공선택이유</li> </ul> </li> <li>- 희망직업(직업명, 업무내용, 이유)</li> <li>- 1년내 취업·개인사업 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급학교 진학 이유, 결정시기, 희망학교, 전공, 전공선택 이유, 개인사업 방법(사업비용 조달 방법, 사업내용), 취업희망 산업 종류, 선택이유, 희망사업체 규모, 희망 연봉</li> </ul> </li> </ul>
미취업 자용	현 직장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크넷 인지여부(이용경험, 도움정도)</li> <li>- 직업선택시 직업관련 특성들의 중요도</li> <li>- 취업목적 시험 준비여부(시험종류, 준비기간, 시험준비 방법, 월평균 소요비용)</li> </ul>
	최종학교생활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 수행을 위한 각 능력들의 중요도</li> <li>- 최종학교 생활이 업무수행 능력 배양에 준 도움정도</li> </ul>
	진로지도(상담) 경험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조사 이후 진로지도(상담) 경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도 기관, 지도내용(심리검사 여부·도움정도), 소요 시간, 진로결정에 도움 정도</li> <li>▪ 진로지도(상담) 받고 싶은 의향(받고 싶은 내용), 받고 싶지 않은 이유</li> </ul> </li> <li>- 진로·교육선택 관련 현재 상태</li> </ul>

## 〈부표 1-4〉 계속

구분	분류	세부분항
	일자리 경력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여부</li> <li>▪ 일자리 수, 근무형태, 기업체명, 사업체명, 직급, 직무내용, 사업체 규모, 고용형태, 근무시기, 평균 주당근로시간, 월평균 소득, 퇴직 이유</li> <li>- 학력대비 대우정도(합당한 대우를 위한 대처방법)</li> <li>- 정규 학교교육을 통한 직무수행 능력 습득정도, 업무 능력 관련 정규학교교육 보완 사항</li> <li>- 학력 대비 업무능력 수준(부적합시 대응방법)</li> </ul>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조사 이후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li> <li>▪ 무경험 이유, 교육훈련 수, 분야, 시기, 평균교육·훈련 시간, 기관, 목적, 도움정도, 비용부담자, 지출비용</li> <li>- 1년 이내 직업교육훈련 희망 여부</li> </ul>
	취득 자격증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조사 이후 자격증 취득 여부</li> <li>▪ 취득 자격증 수, 종류, 취득시기, 취득사유, 전공분야, 취업도움여부, 소득도움여부, 도움 안되는 이유</li> <li>- 1년 이내 자격증 취득 희망 여부(희망자격증 종류)</li> </ul>
	여성 직업활동에 관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에 직업활동에 대한 태도</li> </ul>
보류 대상자용	가구의 주거상태 및 가구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조사이후 이사 경험 여부</li> <li>- 주거 유형(주택의 종류, 평수)</li> <li>- 가구의 근로·금융·부동산·기타 소득 여부 및 액수</li> </ul>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제5차 한국청년패널조사: 고등학생용 설문지」, 2005.

〈부표 1-5〉 대졸자직업이동경로분석의 주요 설문문항, 2006년 기준

구분	분류	세부문항
개인용	가무원의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성별</li> <li>- 혼인상태 - 결혼여부</li> <li>- 부모님과 동거여부</li> <li>- 가구주와의 관계/가구원수</li> <li>- 만14세까지의 성장지/현거주지</li> <li>- 부모님 최종학력</li> <li>- (졸업한)대학입학당시 부모님직업/월평균소득</li> <li>- 군복무경험</li> </ul>
	현재경제활동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1주간 한일</li> <li>- 지난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한 일</li> <li>- 지난주 직장유무</li> <li>- 지난주 구직활동</li> <li>- 지난1개월 내 구직활동</li> <li>- 지난주 경제활동가능성</li> <li>- 지난주 경제활동욕구</li> <li>- 지난 1개월 내 비경제활동 이유</li> </ul>
	현직장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기간</li> <li>- 근무형태</li> <li>- 근무유형(종일제/파트제)</li> <li>- 현직장의 업종</li> <li>- 직무내용</li> <li>- 종사상 지위</li> <li>- 근로형태</li> <li>- 근로계약기간</li> <li>- 개인사업이유</li> <li>-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여부</li> <li>- 현직장의 형태</li> <li>- 현직장의 종사자 수</li> <li>- 소재지</li> <li>- 통상 일주일 근무시간과 근무일수</li> <li>- 수입</li> <li>- 만족도</li> <li>- 교육수준대비 업무내용</li> <li>- 기술수준대비 업무내용</li> <li>- 전공비교 업무내용</li> <li>- 현직장에 도움될 능력</li> <li>- 업무상 요구되는 자격증</li> <li>- 직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외국어</li> </ul>

## 〈부표 1-5〉 계속

구분	분류	세부분항
개인용	현직장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상 외국어 활용도</li> <li>- 사회보험 가입여부</li> <li>- 사내복지혜택</li> <li>- 노동조합가입여부</li> <li>- 직장입사방법</li> <li>- 구직기여요소</li> <li>- 직장의 다른 일 유무(겸벌이 여부)</li> <li>- 직장 제외한 일자리의 수(겸벌이의 수)</li> <li>- 직장 제외한 일자리의 형태(겸벌이의 형태)</li> <li>- 대학졸업후 첫직장여부</li> <li>- 대학졸업후 몇 번째 직장</li> </ul>
	첫직장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졸업후 일자리 여부</li> <li>- 첫직장에서 일한 기간</li> <li>- 첫직장의 형태(종일제/파트제)</li> <li>- 첫직장의 업종</li> <li>- 직무내용</li> <li>- 종사상 지위</li> <li>- 근로형태</li> <li>- 근로계약기간여부</li> <li>- 직장유형</li> <li>- 사업체 종사자수</li> <li>- 직장 소재지</li> <li>- 통상 일주일 근로시간/근무일수</li> <li>- 수입</li> <li>- 만족도</li> <li>- 교육수준대비 업무내용</li> <li>- 기술수준대비 업무내용</li> <li>- 전공비교 업무내용</li> <li>- 전공비교 업무내용</li> <li>- 사회보험가입여부</li> <li>- 사내복지혜택</li> <li>- 노동조합가입여부</li> <li>- 직장입사방법</li> <li>- 첫직장중단이유</li> </ul>
개인용	졸업후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직장과 현재직장 이외 다른 직장경험유무</li> <li>- 첫직장과 현재직장의 직장의 개수</li> <li>- 졸업후 직장경험</li> </ul>
	학교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신고등학교명</li> <li>- 출신고등학교 소재지</li> </ul>



## 〈부표 1-5〉 계속

구분	분류	세부분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신고등학교 계열</li> <li>- 고등학교졸업연도</li> <li>- 대학입학연도</li> <li>- 대학선택이유</li> <li>- 전공선택이유</li> <li>- 전공학과의 전망(향후5년간)</li> <li>- 동일전공선택여부(다시선택한다면)</li> <li>- 동일전공선택하지 않는 이유</li> <li>- 재선택시 원하는 전공</li> <li>- 복수/부/연계 전공</li> <li>- 졸업학점</li> <li>- 대학교육만족도</li> <li>- 학비마련</li> <li>- 휴학경험여부</li> <li>- 휴학횟수</li> <li>- 휴학한 이유</li> <li>- 조기졸업여부</li> <li>- 재학한학기</li> <li>- 편입(재입학)여부</li> <li>- 편입전(재입학전) 학교 정보</li> <li>- 편입/재입학</li> <li>- 편입시기</li> </ul>
	재학중인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재학여부</li> <li>- 현재학교 입학형태(편입/입학)</li> <li>- 편입시기</li> <li>- 학교정보(소재/입학연월/전공)</li> <li>- 학교유형/학위과정</li> <li>- 동일학교 진학여부</li> <li>- 진학 이유</li> <li>- 이전전공과의 일치정도</li> <li>- 다른전공 선택이유</li> <li>- 현재대학(원) 만족도</li> <li>- 휴학경험</li> <li>- 휴학횟수</li> <li>- 휴학기간/이유</li> </ul>
개인용	재학중 경험한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재학중 직장경험여부</li> <li>- 대학재학중 직장경험횟수</li> <li>- 재학중 취업한 일자리 경험</li> </ul>
	어학연수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학중/졸업후 어학연수여부</li> <li>- 어학연수 횟수</li> </ul>

## 〈부표 1-5〉 계속

구분	분류	세부분항
		- 어학연수지/목적/체류기간 - 어학연수지출비용
	졸업전 취업목표	- 졸업이전설정한 취업목표 여부 - 취업목표 설정 횟수 - 취업목표 설정 시기 - 취업목표 산업 - 취업목표-특정 기업체 선정 여부 - 취업목표-특정 직업선정 여부 - 취업목표 성취여부 - 취업목표달성 실패 이유
	졸업전후 취업준비	- 졸업전후 일자리 탐색여부 - 일자리 탐색 시작 시점 - 일자리 탐색 방법 - 취업지원 횟수 - 면접횟수 - 합격후 일자리 제의 횟수 - 제의 거절 횟수 - 일자리 제의 거절 이유 - 일자리 지원시 고려하는 항목 - 일자리 지원시 가장 고려하는 것 - 취업을 위한 학원 경험 - 학원 종류 - 학원 연평균 비용
개인용	직업훈련경험	- 직업훈련 경험유무 - 직업훈련 비참여 이유 - 직업훈련 참여 개수 - 직업훈련 내용/분야 - 직업훈련 시기/ 총 기간 - 직업훈련 제공장소 - 직업훈련의 목적 - 직업훈련 비용부담자 - 사용자부담 평균 비용
	취득 자격증	- 자격증 소지 여부 - 소지한 자격증의 개수 - 자격증의 중요도 - 현재 준비하는 자격증 - 자격증 취득 이유(중요도)
	향후 진로	- 1년이내의 계획 - 진학하려는 주된 이유

## 〈부표 1-5〉 계속

구분	분류	세부분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학계획 주된 이유</li> <li>- 유학 희망국</li> <li>- 유학종료후 체류여부</li> <li>- 희망하는 최종 학위</li> <li>- 직장이직 이유</li> <li>- 이직희망 사업체</li> <li>- 개인사업방법</li> <li>- 사업비용조달</li> <li>-사업의 내용</li> </ul>
개인용	현재구직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이직)위한 구직활동 여부</li> <li>- 구직활동기간</li> <li>- 구직활동위한 소요시간</li> <li>- 구직활동 경로</li> <li>- 구직기간중 원서넣은 횟수</li> <li>- 면접횟수</li> <li>- 합격/일자리 제의 횟수</li> <li>- 일자리 제의 거절 경험</li> <li>- 일자리 제의 거절 이유</li> <li>- 취업(이직)위한 노력</li> <li>- 일자리선택고려요소</li> <li>- 일자리선택고려시 중요한 것</li> <li>- 구직과정중의 어려움</li> <li>- 공무원/공단 시험준비 경험</li> <li>- 준비하는 시험</li> <li>- 시험준비기간</li> <li>- 시험응시횟수</li> <li>- 시험준비방법</li> <li>- 시험준비동기</li> </ul>

〈부표 1-6〉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주요 설문문항, 2006년 기준

구분	분류	세부문항
가구용	가구의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원 명수</li> <li>- 가구원 성명,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생년월일(만나이), 교육수준(학교, 이수여부, 비졸업시 학년), 전반적인 건강상태- 동거여부</li> <li>- 변동 가구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가구원의 추가시기 및 사유</li> <li>▪ 분가 가구원의 분가시기 및 사유(주소)</li> <li>▪ 사망 가구원의 사망시기 및 사유</li> </ul> </li> </ul>
	가구의 가족관계 <sup>6)</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동거 부모님(가구주)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li> <li>▪ 왕래정도(횟수)</li> <li>▪ 경제적 교류여부(부모님과의 경제적 교류 금액)</li> </ul> </li> <li>- 가구주의 형제 관계(가구주의 출생순위)</li> <li>- 비동거 부모님(가구주 배우자)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li> <li>▪ 왕래정도(횟수)</li> <li>▪ 경제적 교류여부(부모님과의 경제적 교류 금액)</li> </ul> </li> <li>-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 관계(가구주 배우자의 출생순위)</li> </ul>
	주거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여부</li> <li>- 주거변경사항</li> <li>- 입주형태, 주택의 종류, 대지면적, 연건평, 평수</li> <li>- 자가금액, 보증금, 월세</li> <li>- 거주시작시기(년/월)</li> <li>- 향후 1년내 이사계획(이사에정시기)</li> </ul>
	자녀보육·교육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고교(재수생포함) 자녀 유무/자녀수</li> <li>* 1차년도에는 초교 3년 이하로 제한</li> </ul>
	자녀보육·교육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교육기관 이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 보육시설/교육기관 수/종류/이용시간/이용비용</li> </ul> </li> <li>- 대학(원)생 자녀 유무</li> <li>▪ 자녀·엄마명, 교육비, 경제적 부담정도</li> </ul>
	가구의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년도 근로·금융·부동산소득 유무(종류별 액수)</li> <li>- 작년도 사회보험수령인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험혜택 수령인 명단/수금액</li> </ul> </li> <li>- 작년도 이전소득 유무(종류별 액수)</li> <li>-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가구여부 및 시작·종료시점</li> <li>- 작년도 기타소득 유무(종류별 액수)</li> <li>- 지난 한달간 근로·금융·부동산·사회보험·이전·기타 소득여부 및 액수</li> </ul>

## 〈부표 1-6〉 계속

구분	분류	세부문항
가구용	가구의 소비 및 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평균 생활비</li> <li>▪ 항목별 생활비<sup>4)</sup>, 부족한 생활비 마련방법</li> <li>- 월평균 저축액</li> <li>▪ 유형별 저축여부 및 액수</li> </ul>
	가구의 자산 및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소유여부</li> <li>▪ 소유부동산 종류, 총액</li> <li>- 부동산 임대여부(임대보증금 총액)</li> <li>- 부동산 임차여부(임차부동산 종류, 임대보증금 총액)</li> <li>- 금융자산별 소유여부(총액)</li> <li>- 부채종류별(금융기관, 비금융기관, 빌린돈, 임대보증금, 기타) 부채 여부, 부채잔액, 부채상환금, 부채이유</li> <li>* 1차년도에서는 전체적인 부채여부, 부채액, 상환금만 질문</li> </ul>
	가구의 경제상태 및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어려움 유무(어려움 내용)</li> </ul>
개인용 공통	취업자 대상 (임금·비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주간 활동, 지난 1주간 경제활동 여부(비경활 이유)</li> <li>- 주된 일자리 유형(무급종사자 여부 확인)</li> <li>- 주된 일자리 지속가능성 여부</li> <li>- 예상 근무기간</li> <li>- 지시·감독자 여부(봉급인상·승진영향, 문책권한 여부)</li> <li>- 요일별 근무시간</li> <li>- 주된 일자리의 직무만족도</li> <li>- 주된 일자리의 교육·기술수준 대비 직무적합성</li> <li>- 주된 일자리 지속여부</li> <li>- 신규 일자리 구직 여부(비구직 이유)</li> </ul>
	취업자 대상 (임금·비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일자리 구직 여부(비구직 이유)</li> <li>- 사회보험 수급 여부, 급여의 종류, 수급기간, 수급방식, 1회 수급액</li> <li>- 혼인상태 변화 여부, 내용</li> <li>-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 계층의식</li> <li>- 주된 일자리 근무시간 유형(시간제 선호이유)</li> </ul>
개인용 공통	취업자 대상 (임금·비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주간 활동, 지난 1주간 경제활동 여부(비경활 이유)</li> <li>- 주된 일자리 유형(무급종사자 여부 확인)</li> <li>- 1주일·1개월간 구직 여부</li> <li>- 취업 가능성</li> <li>- 비구직 이유</li> <li>- 구직 방법(기간, 구직이유)</li> <li>- 취업 희망 업종, 일의 종류, 고용형태</li> <li>- 취업 희망 근무시간(시간제 근무 희망이유), 희망 수입</li> </ul>
	미취업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일자리 구직 여부(비구직 이유)</li> <li>- 사회보험 수급 여부, 급여의 종류, 수급기간, 수급방식, 1회 수급액</li> <li>- 혼인상태 변화 여부, 내용</li> <li>-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 계층의식</li> <li>- 주된 일자리 근무시간 유형(시간제 선호이유)</li> </ul>

## 〈부표 1-6〉 계속

구분	분류	세부분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시 어려움</li> <li>- 사회보험 수급 여부, 급여의 종류, 수급기간, 수급방식, 1회 수금액</li> <li>- 혼인상태 변화 여부, 내용</li> <li>-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 계층의식</li> </ul>
	전체 (취업, 미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주 이상의 직업훈련·교육 경험, 자격증 취득 관련 사항</li> </ul>
임금 근로자용	유형1, 유형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 내용 확인(주로 하는 일, 직위, 고용형태, 종사상지위, 근무형태)</li> <li>-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직위, 고용형태,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변경 여부(변경내용 및 변경시기)</li> <li>- 기업체 유형, 현 일자리의 사업체 규모</li> <li>- 근로계약기간 확정 여부 및 근로계약기간</li> <li>- 현직의 사회보험 가입여부</li> <li>- 근로시간의 규칙성</li> <li>- 정규 근로시간 유무(주당 정규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일수)</li> <li>- 주당 정상근로시간 및 일수</li> <li>- 초과근로시간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과근로시간 초과근로수당 지급여부(지급방식, 월평균 액수)</li> </ul> </li> <li>- 임금지급방식</li> <li>- 임금결정방식(임금수준)</li> <li>- 성과급제 적용 여부(적용 성과급제 형태)</li> <li>- 월평균임금 유무(액수)</li> <li>- 노동조합 유무(노동조합 가입여부, 미가입 이유)</li> </ul>
	유형2, 유형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 내용 확인(주로 하는 일, 직위, 고용형태, 종사상지위, 근무형태)</li> <li>-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직위, 고용형태,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변경 여부(변경내용 및 변경시기)</li> <li>- 정규 근로시간 유무(주당 정규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일수)</li> <li>- 월평균임금 유무(액수)</li> <li>- 퇴직 시기(년월), 퇴직 이유</li> <li>- 퇴직금 수령 유무(퇴직금, 실수령 퇴직금)</li> <li>- 퇴직수당 수령 유무(실수령 퇴직수당)</li> </ul>
임금 근로자용	유형5(지난 조사 당시 이후 새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 다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일자리 시작시기</li> <li>- 취업전 구직활동 경험 여부(구직활동 기간, 구직방법)</li> <li>- 일자리 명(업종)</li> <li>- 주로 하는 일(변경 여부, 변경내용, 변경시기)</li> <li>- 직위(변경 여부, 변경내용, 변경시기)</li> <li>- 기업형태, 사업체 규모</li> </ul>

〈부표 1-6〉 계속

구분	분류	세부분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형태(변경여부, 변경시기)</li> <li>- 근로계약기간 유무(기간)</li> <li>- 일자리의 승진 가능성, 사회보험 가입여부</li> <li>- 근무시간형태(변경여부, 변경시기)</li> <li>- 종사상 지위(변경여부, 변경내용, 변경시기)</li> <li>- 근로시간의 규칙성</li> <li>- 정규 근로시간 유무(주당 정규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일수)</li> <li>- 주당 정상근로시간 및 일수</li> <li>- 초과근로시간 유무</li> <li>▪ 초과근로시간, 초과근로수당 지급여부(지급방식, 월평균 액수)</li> <li>- 임금지급방식, 임금결정방식(임금수준)</li> <li>- 성과급제 적용 여부(적용 성과급제 형태)</li> <li>- 현재·취업당시 월평균임금 유무(액수)</li> </ul>
	<p>유형6(지난 조사 당시 이후 새로 시작하여 현재는 그만 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조사 이후 새로 시작한 일자리의 시작·종료시기</li> <li>- 취업전 구직활동 경험 여부</li> <li>- 일자리 명(업종)</li> <li>- 주로 하는 일(변경 여부, 변경내용, 변경시기)</li> <li>- 직위(변경 여부, 변경내용, 변경시기)</li> <li>- 기업형태, 사업체 규모</li> <li>- 고용형태(변경여부, 변경시기)</li> <li>- 근로계약기간 유무(기간)</li> <li>- 일자리의 승진 가능성</li> <li>- 사회보험 가입여부</li> <li>- 근무시간형태(변경여부, 변경시기)</li> <li>- 종사상 지위(변경여부, 변경내용, 변경시기)</li> <li>- 근로시간의 규칙성</li> <li>- 정규 근로시간 유무(주당 정규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일수)</li> <li>- 주당 정상근로시간 및 일수</li> <li>- 초과근로시간 유무</li> <li>▪ 초과근로시간, 초과근로수당 지급여부(지급방식, 월평균 액수)</li> <li>- 임금지급방식, 임금결정방식(임금수준)</li> <li>- 성과급제 적용 여부(적용 성과급제 형태)</li> <li>- 퇴직당시·취업당시 월평균임금 유무(액수)</li> <li>- 노동조합 유무(노동조합 가입여부)</li> <li>- 퇴직 사유, 퇴직금 수령 유무(퇴직금, 실수령 퇴직금)</li> <li>- 퇴직수당 수령 유무(실수령 퇴직수당)</li> </ul>
<p>비임금 근로자용</p>	<p>유형3(지난 조사 당시의 일자리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 내용 확인</li> <li>- 지난 조사 이후 일의 내용 변경 여부(변경 내용, 시기)</li> </ul>

〈부표 1-6〉 계속

구분	분류	세부분항
	현재 조사시까지 계속 다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체 규모</li> <li>- 무급가족종사자 수</li> <li>- 일자리의 규칙성</li> <li>- 주당 평균근로시간</li> <li>- 월평균 근로일수</li> <li>- 연간 매출액</li> </ul>
	유형4(지난 조사 당시에는 다녔으나 현재는 그만 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 내용 확인</li> <li>- 지난 조사·퇴직시까지 일의 내용 변경 여부(변경 내용, 시기)</li> <li>- 일자리를 그만 둔 시기, 이유</li> <li>- 주당 평균근로시간</li> <li>- 월평균 근로일수</li> <li>- 월평균 소득</li> </ul>
	유형7(지난 조사 당시 이후 새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 다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시작시기</li> <li>- 취업전 구직활동 경험 여부(구직기간, 방법)</li> <li>- 일자리 명(업종)</li> <li>- 주로 하는 일(변경 여부, 변경내용, 변경시기)</li> <li>- 사업체 규모</li> <li>- 무급가족종사자 수</li> <li>- 일자리의 규칙성</li> <li>- 주당 평균근로시간</li> <li>- 월평균 근로일수</li> <li>- 연간 매출액</li> <li>- 월평균 소득</li> </ul>
	유형8 <sup>1)</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시작·종료시기</li> <li>- 취업전 구직활동 경험 여부(구직기간, 방법)</li> <li>- 일자리 명(업종)</li> <li>- 주로 하는 일(변경 여부, 변경내용, 변경시기)</li> <li>- 사업체 규모</li> <li>- 무급가족종사자 수</li> <li>- 일자리의 규칙성</li> <li>- 주당 평균근로시간</li> <li>- 월평균 근로일수</li> <li>- 연간 매출액</li> <li>-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li> </ul>
신규조사용	개인의 현재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일자리 여부</li> <li>- 일하고 있는 일자리 수</li> <li>- 주된 일자리의 특성</li> </ul>
	임금근로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시작시기</li> </ul>



## 〈부표 1-6〉 계속

구분	분류	세부분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명(업종)</li> <li>- 일의 내용</li> <li>- 직위(시작시기)</li> <li>- 기업형태</li> <li>- 사업체규모</li> <li>- 고용형태</li> <li>- 근로계약기간 유무(근로계약기간)</li> <li>- 현직의 승진 가능성</li> <li>- 사회보험가입여부</li> <li>- 근무시간형태</li> <li>- 종사상 지위</li> <li>- 근로시간의 규칙성</li> <li>- 정규근무시간 유무(주당평균정규근무시간, 월평균 정규근무일수)</li> <li>- 초과근무여부(주당 초과근무시간·일수)</li> <li>- 초과근무사당 지급여부(월평균액수)</li> <li>- 임금지급·결정방식</li> <li>- 성과급제지급여부(종류)</li> <li>- 노동조합여부(가입여부)</li> <li>- 다른 일자리 여부(일자리 종류)</li> </ul>
	비임금근로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시작시기</li> <li>- 일자리명(업종)</li> <li>- 일의 내용</li> <li>- 사업체규모</li> <li>- 무급가족종사자 수</li> <li>- 근로시간의 규칙성</li> <li>- 주당평균근로시간, 월평균근로일수</li> <li>- 연간매출액</li> <li>- 월평균소득</li> <li>- 다른 일자리 여부(일자리 종류)<sup>1)</sup></li> </ul>
신규조사용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일주일간 경제활동여부(비경활이유)</li> <li>- 주된 일자리의 종류(요일별 근무시간)</li> <li>- 주된 일자리 중 평상시보다 적게 일하였는지 여부(이유)</li> <li>- 주된 일자리 외 다른 일자리 여부(요일별 근무시간)</li> <li>- 주된 일자리의 직무만족도</li> <li>- 주된 일자리의 교육·기술수준 대비 직무적합성</li> <li>- 주된 일자리 계속 여부</li> <li>- 신규 일자리 구직 여부(비구직 이유)</li> </ul>

## 〈부표 1-6〉 계속

구분	분류	세부분항
	비취업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주일·1개월간 구직 여부</li> <li>- 취업 가능성</li> <li>- 비구직 이유</li> <li>- 구직 방법(기간)</li> <li>- 취업 희망 업종, 일의 종류, 고용형태</li> <li>- 취업 희망 근무시간(시간제 근무 희망이유)</li> <li>- 희망 수입</li> <li>- 구직시 어려움</li> </ul>
	전체 (임금·비임금·비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세 이후 일자리 경험 여부(횟수)</li> <li>- 일자리 시작·종료시기, 사업내용, 일의 종류, 종사상 지위</li> <li>- 1주 이상의 직업훈련·교육 경험 여부(횟수)</li> <li>- 최근 직업훈련·교육의 종류, 내용, 수행기관, 비용 부담자, 기간, 훈련 경과기간</li> <li>- 신규 직업훈련·교육 희망 여부(이유, 훈련내용)</li> <li>- 자격증 취득 여부(종류, 급수, 취득시기)</li> <li>- 정규학교 재학 여부(졸업·수료 시기)</li> <li>- 전문대 이상 졸업여부(학교명, 학과, 기간, 휴학경험 여부, 휴학기간, 휴학이유)</li> <li>- 군복무 경험여부(복무기간)</li> <li>- 사회보험 수급 여부, 급여의 종류, 수급기간, 수급방식, 1회 수급액</li> <li>- 부모의 학력</li> <li>- 부모의 사업내용, 일의 종류, 직위, 종사상 지위</li> <li>- 출생지, 만14세 당시 성장지</li> <li>-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li> <li>- 종교</li> <li>- 혼인상태(혼인시기, 초혼자 동거여부, 재혼여부·시기, 재혼시기, 재혼자 동거여부)</li> <li>- 첫째아 출산시기</li> <li>- 출생자녀수</li> <li>- 주관적 계층의식</li> </ul>

〈부표 1-7〉 한국복지패널의 주요 설문문항, 2006년 기준

구분	분류	세부분항
가구용	가구일반사항	- 가구원의 수,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태어난연도 - 교육수준, 장애유무/ 종류/ 등급, 만성질환 - 혼인상태, 종교, 동거여부
	건강 및 의료A	- 건강상태, 지난 1년간 의료기관 이용 - 병원입원 이유, 건강검진 횟수, 주요병명
	경제활동상태	- 근로능력정도 - 근로무능력사유 - 지난 1년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 고용형태 - 근로시간 형태 - 업종 - 직종 - 사업장규모 - 비경제활동 사유
가구용	사회보험가입 퇴직금제 적용	- 가입대상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여부 - 국민연금 납부 거부 이유 - 보험료 미납기간 - 공적연금 미납이유/ 미가입 이유 - 산재/고용보험 가입여부 - 퇴직연금제도 적용여부 - 퇴직금제도 여부
	의료B	- 건강보험 가입 여부 - 의료급여 대상자 여부 - 의료급여 서비스의 문제점 - 건강보험료 미납 여부 - 건강보험료 미납 이유 - 건강보험료 미납기간 - 건강보험의 문제점 - 건강보험의 충분성 - 의료기관 서비스 만족도
	주거	-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 - 주거 위치 - 주택구입비용 (보증금) 마련 방법 - 주택 구입을 위해 빌린 돈(원금상환액/이자상환액) - 지난 1년간 대출상환액 연체 횟수 - 지난 1년(2005년) 거주한 주택의 구조, 성능, 환경 - 거주지역 생활환경 - 주거시설 종류와 사용형태 - 주거복지관련 사업의 필요성, 이용경험, 만족도

〈부표 1-7〉 계속

구분	분류	세부문항
가구용	가구자산	- 지난1년간 부모와 자녀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 총액 - 지난 1년간 부모와 자녀에게 제공한 현금과 현물 총액 - 보유하고 있는 비영업용 자동차의 대수와 가격
	생활여건	- 생활경험(끼니, 집세, 공과금 납부, 전기, 전화, 수도사용, 공교육비, 난방, 병원진료, 신용분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 지난 1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 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이유 - 수급자 선정 여부 - 수급자 비선정 이유 - 생계문제 해결 방법 - 지난 1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경험 지속여부 - 수급경험 - 수급(수급탈피) 반복 이유 - 수급대상 가구 탈피 여부 - 지속적으로 받고 싶은 지원서비스 - 수급대상 가구 탈피 이유 - 수급자 탈피 후 아쉬운 점 - 2000년 이전 생활보호 급여 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총 기간 -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 희망여부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정도	- 복지 서비스 이용현황/ 필요성/ 만족도
	노인	- 노후생활의 어려움 - 노후 관련 복지서비스 경험여부/ 필요성/ 만족도
가구용	아동	- 아동(자녀)양육관련 어려움 - 아동관련 복지서비스 경험여부/ 필요성/ 만족도 - 저체중아 여부 - 선천성 기형/ 질환 여부 - 사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실태 - 사교육,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아동(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사교육, 보육기관 이용 - 한달평균 사교육비 (아동 각각) - 한달 평균 보육비 (아동1인) - 사교육비 및 보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정도
	장애인	- 장애인 보호의 어려움 - 장애인 관련 복지서비스 경험여부/ 필요성/ 만족도

## 〈부표 1-7〉 계속

구분	분류	세부문항
	가족	- 가족내의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한 문제 - 가족구성원들간의 문제해결방법
	이사	- 향후 1년내의 이사계획 - 이사에정일 - 이사에정 이유 - 이사회망지역
가구원용	사회보험 및 개인연금 수급 퇴직연금	- 공적연금 수급여부/공적연금 종류 - 국민연금 급여 종류 - 국민연금 총 현금급여액 - 지난1년간 받은 보훈연금 및 기타연금의 총현금급여액 - 특수직역연금의 급여 종류 - 지난 1년간 특수직역연금의 총급여액 - 지난 1년간 고용보험급여 수급 여부 - 고용보험 급여 종류 - 고용보험의 총 현금 급여 - 지난 1년간 산재보험 급여 수급여부 -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 - 지난 1년간 산재보험 총 현금 급여액 - 개인연금 가입여부 - 개인연금 급여 총액 - 퇴직금제 실시 여부 - 퇴직금/퇴직보험금 수급 여부 - 퇴직금/ 퇴직보험금 총현금급여액
	근로	- 근로유형 - 지난1년간 이직여부 - 지난 1년간 직장 사직후 쉰 기간 - 직장 이직(사직)이유/ 구체적 이유 - 전년 12.31 기준으로 재직중인 직장의 근무시작시기 - 지난1년간 일을 한 기간/ 한달 평균 근로일수 - 지난 1년간 주당 평균 근로 일수 - 전년 12.31 기준, 지난4주간 구직행위여부 - 구직상의 어려움 - 경제활동 시작 여부 - 희망하는 한달 월급 - 자활지원프로그램 경험/참여기간/필요성/만족도 - 자활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생활실태 만족 및 의식	- 인터넷 사용여부 - 위험(유해)한 작업환경에서의 근무경험

## 〈부표 1-7〉 계속

구분	분류	세부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생활상태</li> <li>- 전반적 생활 만족도</li> <li>- 추구하는 사회상</li> </ul>
가구원용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 사람에 대한 신뢰성</li> <li>- 도움지급여부</li> <li>- 비선호시설설립에 대한 의견</li> <li>- 기부/자원봉사활동 여부</li> <li>- 연간 기부액</li> <li>- 연간 자원봉사활동</li> <li>- 비동거 부모님</li> <li>- 비동거하는 부모님과 의 왕래</li> <li>- 비동거하는 부모님과 의 연락(전화통화)</li> <li>- 사회적 자원(부모, 형제자매, 친구, 이웃, 사회복지사, 종교단체, 시민단체, 학교등)</li> <li>- 일상적 활동에 대한 시간 할애 정도</li> </ul>
	생활습관 부부관계 및 정신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1년간 흡연여부/ 정도</li> <li>- 지난1년간 음주여부/ 정도</li> <li>- 지난 1년간 1회 음주량</li> <li>- 음주로 인한 장애경험</li> <li>- 알코올중독</li> <li>- 우울증</li> <li>- 자존감</li> <li>- 부부사이의 갈등시 행동양상</li> <li>- 가정폭력(부부폭력)</li> </ul>
	개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17세에 성장한 곳</li> <li>- 아동기(0-17세)에 가구의 경제적 생활상태</li> <li>- 만 15세 이후의 첫 직장 근무기간/ 고용형태</li> <li>- 최근 직업경력 6가지</li> <li>- 직업기술</li> <li>- 직업기술과 관련된 직종</li> <li>- 아동기때의 부모의 사망/이혼/학업중단/양육</li> <li>- 부모님의 교육수준</li> <li>- 부모님의 직업</li> <li>- 부모로부터의 상속/증여</li> <li>- 부모로부터의 상속/증여의 도움정도</li> </ul>
아동용	학교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학교생활/과목/선생님/수업태도/ 숙제/시험등)</li> <li>- 지난 일년간 학교성적</li> </ul>

## 〈부표 1-7〉 계속

구분	분류	세부분항
	생각과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년간 자신에 대한 평가</li> <li>- 지난 6개월동안의 자신 ( 외로움/ 걱정/ 집중력장애/ 우울/ 비행/ 공격성/ 분노 등)</li> <li>- 음주여부 / 지난1년간 음주횟수/ 한달동안의 음주횟수</li> <li>- 흡연여부/ 지난1년간 흡연횟수/ 한달동안의 흡연횟수</li> <li>- 절도여부</li> <li>- 폭행여부</li> <li>- 갈취여부</li> <li>- 성인사이트</li> <li>- 폭력서클 가입여부</li> <li>- 집단폭력여부</li> <li>- 성폭력(성추행)여부</li> <li>- 집단 따돌림 여부</li> </ul>
	부모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1년간 부모님과의 사이에 일어난 일 (신체적폭력, 언어폭력, 정서적폭력, 방임 여부)</li> </ul>
	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1년간 교우관계 (지지적인 친구, 비행가담, 집단 따돌림등)</li> </ul>
	나와 나의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의 수</li> <li>- 가족/동거여부/가족의 수</li> <li>- 건강상태</li> <li>- 가족내에서의 의논자</li> <li>- 지난 1년간의 전학횟수</li> <li>- 키/몸무게</li> <li>- 하루에 평균 TV 시청시간</li> <li>- 하루평균 인터넷 사용시간</li> <li>- 지난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li> <li>- 아르바이트의 종류와 일한 기간/ 일한 시간</li> <li>- 방과후 주 양육자(보호자)</li> <li>- 방과 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li> <li>- 지난1년간의 서비스 경험/ 만족도</li> </ul>

〈부표 1-8〉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주요 설문문항, 2006년 기준

구분	분류	세부문항
가구용	가구원조사	- 가구원관계, 이름, 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 직업, 혼인상태, 비동거 사유, 종교 - 가구주 및 배우자의 부모님-비동거 여부, 거주지 근접 여부 및 근처로 이사계획, 자녀양육위탁 여부 및 빈도 - 분가한 자녀-거주지근접여부, 손자녀 유무 및 돌보기 요구, 돌보기 빈도
	자녀보육	- 0세~고교생 자녀여부, 해당 아동의 어머니 - 재학중인 학교 - 이용 사교육 기관 및 시설-국공립, 민간여부, 주 평균 이용시간, 월평균 비용 - 주 양육자, 일평균 양육시간, 월평균 양육비용
	보살핌	-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 여부, 불편사유, 주양육자 - 시설 이용 여부, 월평균 간병 비용
	주거상태	- 주택종류, 평수, 주택점유형태 - 주택 시기(전세보증금,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 - 명의자, 현재 주거지에 주거를 시작한 년, 월, 일 - 주택마련시 부모의 도움 여부 및 받은 액수 - 주택마련시 시부모의 도움 여부 및 받은 액수
가구용	가구소득	- 근로소득 액수 - 금융소득 액수 - 부동산 소득 액수 - 사회보험 종류 및 액수 - 기타 이전소득 액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대상가구 여부 - 기타소득 액수
	가구소비	- 작년 한해 월평균 생활비 - 항목별 지출금액-식비, 외식비, 자녀공교육비, 자녀 사교육비, 보건의료비, 보육비, 주거비, 교통통신비 - 작년 한해 월평균 저축액 - 가구원별 생활비 기여도 - 월평균 저축액
	자산과 부채	- 현재 거주 주택 외 부동산 여부 및 시가 총액 - 현재 거주 주택 외 임차 부동산 여부 및 보증금 액수 - 금융자산 총액-은행예금, 주식, 채권, 신탁, 저축성 보험, 기타 - 부채-금융기관부채 여부 및 액수, 비금융기관 부채 여부 및 액수 - 현재 경제상태 - 가계 부담 경제적 요인



## 〈부표 1-8〉 계속

구분	분류	세부문항
가구용	가구소득	- 근로소득 액수 - 금융소득 액수 - 부동산 소득 액수 - 사회보험 종류 및 액수 - 기타 이전소득 액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대상가구 여부 - 기타소득 액수
	가구소비	- 작년 한해 월평균 생활비 - 항목별 지출금액-식비, 외식비, 자녀공교육비, 자녀 사교육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교통통신비 - 작년 한해 월평균 저축액 - 가구원별 생활비 기여도 - 월평균 저축액
	자산과 부채	- 현재 거주 주택 외 부동산 여부 및 시가 총액 - 현재 거주 주택 외 임차 부동산 여부 및 보증금 액수 - 금융자산 총액- 은행예금, 주식, 채권, 신탁, 저축성 보험, 기타 - 부채-금융기관부채 여부 및 액수, 비금융기관 부채 여부 및 액수 - 현재 경제상태 - 가계 부담 경제적 요인
기혼 취업 여성용	가족관계와 네트워크	- 형제자매 여부 및 순서, 장녀여부 -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 부모님의 경제상태 - 독립계획 - 따로 살고 있는 가족들과 경제적, 정서적, 생활상 교류여부 - 시부모님 및 며느리와의 관계 - 남편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 명절, 제사관련 교류여부
	결혼력 및 출산력	- 결혼력 - 출산력
	부부관계	- 결혼생활 만족도 - 부부사이의 결정권-자녀교육, 본인 및 남편의 직장이동, 본인취업, 투자 및 재산관리, 생활비관리, 여가활동 - 부부관계의 형평성 - 가족부양문제, 소비문제 - 성생활 관심도, 지난 1년간 성관계 횟수 - 부부갈등 유무 및 이유, 처리방식, 신체적 또는 언어적 폭력을 받은 경험, 부부갈등 전문상담 여부 - 이혼고려 여부, 부부관계유지 이유

〈부표 1-8〉 계속

구분	분류	세부분항
	가사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포함 가사노동시간 - 응답자 및 배우자</li> <li>- 육아계의 주 가사노동자</li> <li>- 가사노동 비용지출액</li> <li>- 부부간 가사노동분담정도</li> <li>- 가사노동으로 인한 부부갈등 경험 및 갈등 후 변화여부</li> <li>- 자녀돌보기 분담상황</li> <li>- 취업시에 부담스러운 가사노동</li> <li>- 가사노동의 월평균 환산 비용</li> </ul>
	자녀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자녀별 가구원 번호</li> <li>- 자녀와 대화정도 및 대화하지 않는 이유</li> <li>- TV 시청 제한 여부</li> <li>- 컴퓨터 게임 제한 여부</li> <li>- 공부시키기</li> <li>- 의견충돌 빈도-옷차림, 이성친구, 친구, 귀가시간, 가사노동, 오락, 돈, 학업, 가족간 불화</li> <li>- 체벌여부 및 횟수</li> <li>- 학교 면담 여부 및 횟수</li> <li>- 학교 징계 여부 및 징계 받은 시기</li> <li>- 가출 여부 및 가출 시기 및 기간</li> <li>- 자녀문제 전문가 상담여부</li> </ul>
기혼 취업 여성용	노인 환자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환자 유무 및 명수, 수발참여 여부</li> <li>- 노인환자의 주 수발자</li> <li>- 노인환자와 함께 사는지 여부 및 함께 사는 사람</li> <li>- 노인환자와의 관계, 나이, 성별, 불편하게 된 기간</li> <li>- 노인환자 수발비용 부담</li> <li>- 노인환자 수발 이후 변화상</li> <li>- 노인환자의 수발상 어려움- 신체적 부담, 우울증, 대인관계, 여가생활, 경제적 부담</li> <li>-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유무 및 정도, 만족도</li> <li>- 노인환자의 시설 거주 경험 및 기간, 만족도</li> <li>- 환자 유무 및 명수, 수발 참여 여부</li> <li>- 환자의의 주 수발자</li> <li>- 환자와 함께 사는지 여부 및 함께 사는 사람</li> <li>- 환자와의 관계, 나이, 성별, 불편하게 된 기간</li> <li>- 환자 수발 비용 부담</li> <li>- 환자 수발 이후 변화상</li> <li>- 환자의 수방상 어려움- 신체적 부담, 우울증, 대인관계, 여가생활, 경제적 부담</li> </ul>

## 〈부표 1-8〉 계속

구분	분류	세부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의 돌봄서비스 이용 유무 및 정도, 만족도</li> <li>- 환자의 시설 거주 경험 및 기간, 만족도</li> <li>- 환자의 사회복지관 도움 여부 및 이용정도, 만족도</li> </ul>
	결혼과 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관·희망자녀수, 희망자녀성별, 자녀출산시기조절여부 및 이유, 자녀계획</li> <li>- 피임수술 여부 및 시기</li> <li>- 인공임신중절 여부 및 이유</li> <li>- 이혼경험, 이혼이유, 자녀여부,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 전남편과 자녀와의 연락또는 접촉빈도, 양육비 지급 경험 및 비용</li> <li>- 자녀입양여부 및 시기, 함께사는 여부 및 거주지역</li> <li>- 남편유무 및 결혼형태, 자녀구성</li> <li>- 별거여부 및 시기</li> </ul>
	가족관련 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관련 가치관</li> <li>- 부부관계 가치관</li> <li>- 성 관련 가치관</li> </ul>
	취업 His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취업유무, 노동력상태, 업종 및 직종, 근무기간, 취업 중단 이기 및 이유, 월평균 임금</li> <li>- 현재 하는일 종류</li> <li>- 작년 소득여부 및 소득액</li> <li>- 일자리 형태</li> </ul>
기혼 취업 여성용	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하는 장소, 직종형태, 시간당 임금적용여부, 현업 지속 가능성 여부, 고용계약체결 여부 및 기간, 고용계약 미체결 이유, 퇴사권유 여부 및 이유, 이직 의향 및 이유, 사업장 종류, 직위 직책, 최초 임용일, 직원규모, 여성근로자 비율, 소속부서의 여성인원수, 노종유무 및 가입, 미가입 여부</li> </ul>
	비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종사자-하는일, 담당업무, 종업원 유무 및 수, 도와주는 가족종사자 유무 및 대상 및 이유, 근로형태, 근로시간, 가족종사자로 어려운 점, 실제 수입관리자</li> <li>- 자영업/고용주-창업년월, 이전 창업경험 및 전환이유, 정부지원유무 및 종류, 업종, 소득수준, 자영업/사업체 창업이유, 전환계획 및 이유, 가족종사자 유무 및 이유, 실권한자, 이직 여부 및 이유</li> </ul>
	근로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위치</li> <li>- 출퇴근시간</li> <li>- 근로시간</li> <li>- 급여형태</li> </ul>

## 〈부표 1-8〉 계속

구분	분류	세부문항
		- 복리후생 제공여부 및 혜택여부 - 4대 보험 제공여부 및 혜택여부 - 유급휴가 일 수 및 사용일수
	구직경로	- 구직경로 및 기간
	일 만족도	-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 일치도 - 업무 유용성 - 좋은 일자리 - 좋은 일자리 예상 임금 - 일 만족도 - 임금, 안정성, 내용, 환경, 근로시간, 발전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복지후생, 전반적 만족도
	주된 일을 제외한 일	- 추가일 유무 - 업종 및 직종 - 수입 - 형태 - 하는 이유 - 시작 년월 - 주 근로 시간
	교육 및 훈련	- 직업훈련경험, 목적, 장소, 목적달성 여부 - 교육훈련 이수 이유 - 자격증보유여부, 종류 및 취득시점
기혼 취업 여성용	사회보험	- 연금가입여부 - 사회보험 가입여부 - 사회보험 수급여부 - 사회보험 수급기간 - 사회보험 수급방식 - 사회보험 1회 수급액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 직장생활의 가정생활에의 영향 - 가정생활의 직장생활에의 영향 - 일에 대한 의견
	차별사항	- 차별경험여부 - 차별상황 및 유형 - 성희롱 경험
	모성보호제도	- 모성보호제도 인지여부 -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부성휴가 시행여부
	개인자산	- 자산소득액수 - 자산형태

## 〈부표 1-8〉 계속

구분	분류	세부분항
		- 정기적 자산소득액
	개인특성/건강/여가	- 출생지 - 14세 전후 거주지 - 건강상태 - 삶에서 중요한 문제 - 여가시간 및 충분여부 - 여가활동빈도- 취미 및 여흥, 학습 및 자기개발, 친교, 사회참여 및 자원봉사, 종교
	미래설계	- 65세 이후 거주형태, 주된 활동, 생계방법 - 노후에 자녀와 동거 희망 여부 및 희망자녀
기혼 비취업 여성	가족관계와 네트워크	- 형제자매여부 및 순서, 장녀여부 -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 부모님의 경제상태 - 독립계획 - 따로살고 있는 가족들과 경제적, 정서적, 생활상 교류여부 - 시부모님 및 며느리와의 관계 - 남편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 명절, 제사관련 교류여부
	결혼력 및 출산력	- 결혼력 - 출산력
	부부관계	- 결혼생활 만족도 - 부부사이의 결정권-자녀교육, 본인 및 남편의 직장이동, 본인 취업, 투자 및 재산관리, 생활비관리, 여가활동 - 부부관계의 형평성-가족부양문제, 소비문제 - 성생활 관심도, 지난1년간 성관계 횟수 - 부부갈등 유무 및 이유, 처리방식, 신체적 또는 언어적 폭력을 받은 경험, 부부갈등 전문상담 여부 - 이혼고려 여부, 부부관계 유지 이유
	가사노동	- 육아포함 가사노동시간 - 육아 제외 주 가사노동자 - 가사노동 비용지출액 - 부부간 가사노동분담정도 - 가사노동으로 인한 부부갈등 경험 및 갈등 후 변화여부 - 자녀돌보기 분담상황 - 취업시에 부담스러운 가사노동 - 가사노동의 월 평균 환산비용
	자녀교육	- 해당자녀별 가구원 번호

〈부표 1-8〉 계속

구분	분류	세부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와 대화 정도 및 대화하지 않는 이유</li> <li>- TV 시청 제한 여부</li> <li>- 컴퓨터 게임 제한 여부</li> <li>- 공부시키기</li> <li>- 의견충돌빈도-옷차림, 이성친구, 친구, 귀가시간, 가사노동, 오락, 돈, 학업, 가족관 불화</li> <li>- 체벌여부 및 횟수</li> <li>- 학교면담여부 및 횟수</li> <li>- 학교징계 여부 및 징계받은 시기</li> <li>- 가출여부 및 가출시기 및 기간</li> <li>- 자녀문제 전문가 상담여부</li> </ul>
기혼 비취업 여성	노인 환자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환자 유무 및 명수, 수발참여 여부</li> <li>- 노인환자의 주 수발자</li> <li>- 노인환자와 함께 사는지 여부 및 함께 사는 사람</li> <li>- 노인환자와의 관계, 나이, 성별, 불편하게 된 기간</li> <li>- 노인환자 수발비용 부담</li> <li>- 노인환자 수발 이후 변화상</li> <li>- 노인환자의 수발상 어려움- 신체적 부담, 우울증, 대인관계, 여가생활, 경제적 부담</li> <li>-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유무 및 정도, 만족도</li> <li>- 노인환자의 시설 거주 경험 및 기간, 만족도</li> <li>- 환자 유무 및 명수, 수발 참여 여부</li> <li>- 환자의 주 수발자</li> <li>- 환자와 함께 사는지 여부 및 함께 사는 사람</li> <li>- 환자와의 관계, 나이, 성별, 불편하게 된 기간</li> <li>- 환자 수발 비용 부담</li> <li>- 환자 수발 이후 변화상</li> <li>- 환자의 수발상 어려움- 신체적 부담, 우울증, 대인관계, 여가생활, 경제적 부담</li> <li>- 환자의 돌봄서비스 이용 유무 및 정도, 만족도</li> <li>- 환자의 시설 거주 경험 및 기간, 만족도</li> <li>- 환자의 사회복지관 도움 여부 및 이용정도, 만족도</li> </ul>
	결혼과 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관-희망자녀수, 희망자녀성별, 자녀출산시기조절여부 및 이유, 자녀계획</li> <li>- 피임수술 여부 및 시기</li> <li>- 인공임신중절 여부 및 이유</li> <li>- 이혼경험, 이혼이유, 자녀여부,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 전남편과 자녀와의 연락또는 접촉빈도, 양육비 받은 경</li> </ul>

〈부표 1-8〉 계속

구분	분류	세부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 및 비용, 따로사는 자녀와 연락 및 접촉빈도, 양육비 지급 경험 및 비용</li> <li>- 자녀입양여부 및 시기, 함께사는 여부 및 거주지역</li> <li>- 남편유무 및 결혼형태, 자녀구성</li> <li>- 별거여부 및 시기</li> </ul>
	가족관련 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관련 가치관</li> <li>- 부부관계 가치관</li> <li>- 성 관련 가치관</li> </ul>
	학생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 전공선택 이유 및 만족도</li> <li>- 복수전공유무</li> <li>- 진학또는 창업준비</li> <li>- 아르바이트 경험 및 이유</li> <li>- 취업계획 및 희망하는 일자리</li> <li>- 취업 실패시 결혼계획</li> <li>- 희망보수 및 월평균 용돈 및 마련방법</li> </ul>
기혼 비취업 여성	취업 His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경험유무, 노동력상태, 업종 및 직종, 근무기간, 취업중단 이기 및 이유, 월평균 임금</li> </ul>
	구직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경험</li> <li>- 취업의사 유무</li> <li>- (실업자)- 구직방법, 구직기간, 취업시 고려사항, 희망취업 지위 및 형태, 단력근로 희망시간, 희망임금, 희망지역, 희망 통근시간, 취업실패이유, 취업성공이유, 좋은 일자리</li> <li>- (비경제활동인구)-이유</li> </ul>
	사회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가입여부</li> <li>- 사회보험 가입여부</li> <li>- 사회보험 수급여부</li> <li>- 사회보험 수급기간</li> <li>- 사회보험 수급방식</li> <li>- 사회보험 1회 수금액</li> </ul>
	교육 및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훈련경험, 목적, 장소, 목적달성 여부</li> <li>- 교육훈련 이수 이유</li> <li>- 자격증 보유여부, 종류 및 취득시점</li> </ul>
	일에 대한 가치와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에 대한 의견</li> <li>- 여성취업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li> </ul>
	차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경험 여부</li> <li>- 차별상황 및 유형</li> <li>- 성희롱 경험</li> </ul>

〈부표 1-8〉 계속

구분	분류	세부분항
	모성보호제도	- 모성보호제도 인지여부 -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 부성휴가 시행여부
	개인자산	- 자산소득액수 - 자산 형태 - 정기적 자산 소득액
	개인특성/건강/여가	- 출생지 - 14세 전후 거주지 - 건강상태 - 삶에서의 중요한 문제 - 여가시간 및 충분 여부 - 여가활동빈도-취미 및 여흥, 학습 및 자기개발, 친교, 사회참여 및 자원봉사, 종교
	미래설계	- 65세 이후 거주형태, 주된 활동, 생계방법 - 노후에 자녀와 동거 희망 여부 및 희망자녀
미혼 취업 여성	가족관계와 네트워크	- 형제자매 여부 및 순서, 장녀여부 -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 부모님의 경제상태 - 독립계획 및 이유 - 따로 살고 있는 가족들과 경제적, 정서적, 생활상 교류여부
	가사노동	- 가사노동 시간 및 주 가사노동자 - 취업병행시 부담스런 가사노동 - 가사노동의 월 평균 환산비용
	노인 환자 돌봄	- 노인환자 유무 및 명수, 수발참여 여부 - 노인환자의 주 수발자 - 노인환자와 함께 사는지 여부 및 함께 사는 사람 - 노인환자와의 관계, 나이, 성별, 불편하게 된 기간 - 노인환자 수발비용 부담 - 노인환자 수발 이후 변화상 - 노인환자의 수발상 어려움- 신체적 부담, 우울증, 대인관계, 여가생활, 경제적 부담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유무 및 정도, 만족도 - 노인환자의 시설 거주 경험 및 기간, 만족도 - 환자 유무 및 명수, 수발 참여 여부 - 환자의의 주 수발자 - 환자와 함께 사는지 여부 및 함께 사는 사람 - 환자와의 관계, 나이, 성별, 불편하게 된 기간 - 환자 수발 비용 부담



〈부표 1-8〉 계속

구분	분류	세부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 수발 이후 변화상</li> <li>- 환자의 수발상 어려움- 신체적 부담, 우울증, 대인관계, 여가생활, 경제적 부담</li> <li>- 환자의 돌봄서비스 이용 유무 및 정도, 만족도</li> <li>- 환자의 시설 거주 경험 및 기간, 만족도</li> <li>- 환자의 사회복지관 도움 여부 및 이용정도, 만족도</li> </ul>
	결혼과 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의견</li> <li>- 결혼계획 및 시기</li> <li>- 결혼하지 않은 이유</li> <li>- 결혼 지연 경험 및 이유</li> <li>- 이상적 자녀 수 및 희망자녀성별</li> <li>- 동거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한 의견</li> <li>- 동거 경험 및 기간</li> <li>- 성생활 중요도</li> </ul>
미혼 취업 여성	가족관련 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관련 가치관</li> <li>- 부부관계 가치관</li> <li>- 성관련 가치관-</li> </ul>
	취업 His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취업유무, 노동력상태, 업종 및 직종, 근무기간, 취업 중단 이기 및 이유, 월 평균 임금</li> <li>- 현재 하는일 종류</li> <li>- 작년 소득여부 및 소득액</li> <li>- 일자리 형태</li> </ul>
	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근로자-일하는 장소, 직종형태, 시간당 임금적용여부, 현업지속가능성 여부, 고용계약체결 여부 및 기간, 고용 계약 미체결이유, 퇴사권유여부 및 이유, 잇기 의향 및 이유, 사업장 종류, 직위 직책, 최초 임용일, 직원규모, 여성근로자 비율, 소속부서의 여성인원수, 노조유무 및 가입</li> </ul>
	비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종사자)- 하는일, 담당업무, 종업원 유무 및 수, 도와주는 가족종사자 유무 및 대상 및 이유, 근로형태, 근로시간, 가족종사자로 어려운점, 실제 수입관리자</li> <li>-(자영자/고용주)- 창업년월, 이전 창업경험 및 전환이유, 정부지원유무 및 종류, 업종, 소득수준, 자영업/사업체 창업이유, 전환계획 및 이유, 가족종사자 유무 및 이유, 실권한자, 이직여부 및 이유</li> </ul>
	근로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위치</li> <li>- 출퇴근 시간</li> <li>- 근로시간</li> </ul>

〈부표 1-8〉 계속

구분	분류	세부문항
		- 급여형태 - 복리후생 제공여부 및 혜택여부 - 4대 보험 제공여부 및 혜택여부 - 유급휴가 일수 및 실 사용일 수
	구직경로	- 구직경로 및 기간
	일 만족도	- 교육 수준 및 기술수준 일치도 - 업무 유용성 - 좋은 일자리 - 좋은 일자리 예상임금 - 일만족도 임금, 안정성, 내용, 환경, 근로시간, 발전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복지후생, 전반적 만족도
	주된 일을 제외한 일	- 추가일유무 - 업종 및 직종 - 수입, 형태, 하는 이유 - 시작년월 - 주 근로시간
미혼 취업 여성	교육 및 훈련	- 직업훈련경험, 목적, 장소, 목적달성 여부 - 교육훈련 이수 이유 - 자격증보유여부, 종류 및 취득시점
	사회보험	- 연금가입여부 - 사회보험 가입여부 - 사회보험 수급여부 - 사회보험 수급기간 - 사회보험 수급방식 - 사회보험 1회 수금액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 직장생활의 가정생활에의 영향 - 가정생활의 직장생활에의 영향 - 일에 대한 의견
	차별사항	- 차별경험 여부 - 차별상황 및 유형 - 성희롱 경험
	모성보호제도	- 모성보호제도 인지여부 -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부성휴가 시행여부
	개인자산	- 자산소득액수 - 자산형태 - 정기적 자산소득액
	개인특성/건강/여가	- 출생지 - 14세 전후 거주지

## 〈부표 1-8〉 계속

구분	분류	세부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상태</li> <li>- 삶에서 중요한 문제</li> <li>- 여가시간 및 충분 여부</li> <li>- 여가활동 빈도- 취미 및 여흥, 학습 및 자기개발, 친교, 사회참여 및 자원봉사, 종교</li> </ul>
	미래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5세 이후 거주형태, 주된 활동, 생계방법</li> <li>- 노후에 자녀와 동거희망 여부 및 희망자녀</li> </ul>
미혼 비취업 여성	가족관계와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제자매 여부 및 순서, 장녀여부</li> <li>-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li> <li>- 부모님의 경제상태</li> <li>- 독립계획 및 이유</li> <li>- 따로 살고 있는 가족들과 경제적, 정서적, 생활상 교류여부</li> </ul>
	가사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사노동 시간 및 주 가사노동자</li> <li>- 취업병행시 부담스런 가사노동</li> <li>- 가사노동의 월평균 환산 비용</li> </ul>
	노인 환자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환자 유무 및 명수, 수발참여 여부</li> <li>- 노인환자의 주 수발자</li> <li>- 노인환자와 함께 사는지 여부 및 함께 사는 사람</li> <li>- 노인환자와의 관계, 나이, 성별, 불편하게 된 기간</li> <li>- 노인환자 수발비용 부담</li> <li>- 노인환자 수발 이후 변화상</li> <li>- 노인환자의 수발상 어려움- 신체적 부담, 우울증, 대인관계, 여가생활, 경제적 부담</li> <li>-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유무 및 정도, 만족도</li> <li>- 노인환자의 시설 거주 경험 및 기간, 만족도</li> <li>- 환자 유무 및 명수, 수발 참여 여부</li> <li>- 환자의 주 수발자</li> <li>- 환자와 함께 사는지 여부 및 함께 사는 사람</li> <li>- 환자와의 관계, 나이, 성별, 불편하게 된 기간</li> <li>- 환자 수발 비용 부담</li> <li>- 환자 수발 이후 변화상</li> <li>- 환자의 수발상 어려움- 신체적 부담, 우울증, 대인관계, 여가생활, 경제적 부담</li> <li>- 환자의 돌봄서비스 이용 유무 및 정도, 만족도</li> <li>- 환자의 시설 거주 경험 및 기간, 만족도</li> <li>- 환자의 사회복지관 도움 여부 및 이용정도, 만족도</li> </ul>
	결혼과 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의견</li> </ul>

〈부표 1-8〉 계속

구분	분류	세부분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계획 및 시기</li> <li>- 결혼하지 않은 이유 및 결혼지연 경험 및 이유</li> <li>- 이상적 자녀수 및 희망자녀성별</li> <li>- 동거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한 의견</li> <li>- 동거 경험 및 기간</li> <li>- 성생활 중요도</li> </ul>
미혼 비취업 여성	가족관련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관련 가치관</li> <li>- 부부관계 가치관</li> <li>- 성관련 가치관</li> </ul>
	학생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 전공선택이유 및 만족도</li> <li>- 복수전공유무</li> <li>- 진학또는 창업준비</li> <li>- 아르바이트 경험 및 이유</li> <li>- 취업계획 및 희망하는 일자리</li> <li>- 취업 실패시 결혼계획</li> <li>- 희망보수 및 월평균 용돈 및 마련방법</li> </ul>
	취업His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경험유무, 노동력상태, 업종 및 직종, 근무기간, 취업 중단 이기 및 이유, 월평균임금</li> </ul>
	구직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경험</li> <li>- 취업의사 유무</li> <li>- (실업자)- 구직방법, 구직기간, 취업시 고려사항, 희망취업 지위 및 형태, 탄력근로 희망시간, 희망임금, 희망지역, 희망 통근시간, 취업실패이유, 취업성공이유, 좋은 일자리</li> <li>- (비경제활동인구)- 이유</li> </ul>
	교육 및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훈련경험, 목적, 장소, 목적달성 여부</li> <li>- 교육훈련 이수 이유</li> <li>- 자격증보유 여부, 종류 및 취득시점</li> </ul>
	사회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가입여부</li> <li>- 사회보험 가입여부</li> <li>- 사회보험 수급여부</li> <li>- 사회보험 수급기간</li> <li>- 사회보험 수급방식</li> <li>- 사회보험 1회 수금액</li> </ul>
	일에 대한 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에 대한 의견</li> <li>- 여성취업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li> </ul>
	차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경험 여부</li> <li>- 차별상황 및 유형</li> <li>- 성희롱 경험</li> </ul>

## 〈부표 1-8〉 계속

구분	분류	세부분항
	모성보호제도	- 모성보호제도 인지여부 -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부성휴가 시행여부
	개인자산	- 자산소득액수 - 자산형태 - 정기적 자산소득액
미혼 비취업 여성	개인특성/건강/여가	- 출생지 - 14세 전후 거주지 - 건강상태 - 삶에서 중요한 문제 - 여가시간 및 충분여부 - 여가활동 빈도- 취미 및 여흥, 학습 및 자기개발, 친교, 사회참여 및 자원봉사, 종교
	미래설계	- 65세 이후 거주형태, 주된활동, 생계방법 - 노후에 자녀와 동거희망 여부 및 희망자녀
남편용	가족관계와 네트워크	- 형제자매 여부 및 순서, 장녀여부 -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 부모님의 경제상태 - 독립계획 - 따로살고 있는 가족들과 경제적, 정서적, 생활상 교류여부 - 남편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 명절, 제사관련 교류여부
	부부관계	- 결혼생활 만족도 - 부부사이의 결정권-자녀교육, 본인 및 남편의 직장이동, 본인취업, 투자 및 재산관리, 생활비관리, 여가활동 - 부부관계의 형평성 - 가족부양문제, 소비문제 - 성생활 관심도, 지난 1년간 성관계 횟수 - 부부갈등 유무 및 이유, 처리방식, 신체적 또는 언어적 폭력을 받은 경험, 부부갈등 전문상담 여부 - 이혼고려 여부, 부부관계유지 이유
	가사노동	- 육아포함 가사노동 시간- 응답자 및 배우자 - 육아 제외 주 가사노동자 - 가사노동 비용지출액 - 부부간 가사노동분담정도 - 가사노동으로 인한 부부갈등 경험 및 갈등 후 변화여부 - 자녀돌보기 분담상황 - 부담스러운 가사노동
	자녀교육	- 해당 자녀별 가구원 번호

## 〈부표 1-8〉 계속

구분	분류	세부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와 대화정도 및 대화하지 않는 이유</li> <li>- TV 시청 제한 여부</li> <li>- 컴퓨터 게임 제한 여부</li> <li>- 공부시키기</li> <li>- 의견충돌 빈도-옷차림, 이성친구, 친구, 귀가시간, 가사노동, 오락, 돈, 학업, 가족간 불화</li> <li>- 체벌여부 및 횟수</li> <li>- 학교 면담 여부 및 횟수</li> <li>- 학교 징계 여부 및 징계 받은 시기</li> <li>- 가출 여부 및 가출 시기 및 기간</li> <li>- 자녀문제 전문가 상담여부</li> </ul>
남편용	결혼과 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관-희망자녀수, 희망자녀성별, 자녀출산시기 조절여부 및 이유, 자녀계획</li> <li>- 피임수술 여부 및 시기</li> <li>- 이혼경험, 이혼이유, 자녀여부,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 전남편과 자녀와의 연락 또는 접촉빈도, 양육비 받은 경험 및 비용, 따로 사는 자녀와 연락 및 접촉빈도, 양육비 지급 경험 및 비용</li> <li>- 자녀입양 여부 및 시기, 함께 사는 여부 및 거주지역</li> <li>- 부인유무 및 결혼형태, 자녀구성</li> <li>- 별거여부 및 시기</li> </ul>
	가족관련 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관련 가치관</li> <li>- 부부관계 가치관</li> <li>- 성 관련 가치관</li> </ul>
	취업 His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취업유무, 노동력상태, 업종 및 직종, 근무기간, 취업 중단 이기 및 이유, 월 평균 임금</li> <li>- 현재 하는일 종류</li> <li>- 작년 소득여부 및 소득액</li> <li>- 일자리 형태</li> </ul>
	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근로자-일하는 장소, 직종형태, 시간당 임금적용여부, 현업지속가능성 여부, 고용계약체결 여부 및 기간, 고용계약 미체결이유, 퇴사권유여부 및 이유, 잇기 의향 및 이유, 사업장 종류, 직위 직책, 최초 임용일, 직원규모, 여성근로자 비율, 소속부서의 여성인원수, 노조유무 및 가입</li> </ul>
	비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종사자)- 하는일, 담당업무, 종업원 유무 및 수, 도와주는 가족종사자 유무 및 대상 및 이유, 근로형태, 근로시</li> </ul>

## 〈부표 1-8〉 계속

구분	분류	세부문항
		간, 가족종사자로 어려운점, 실제 수입관리자 - (자영자/고용주) 창업년월, 이전 창업경험 및 전환이유, 정부지원유무 및 종류, 업종, 소득수준, 자영업/사업체 창업이유, 전환계획 및 이유, 가족종사자 유무 및 이유, 실권한자, 이직여부 및 이유
	근로조건	- 직장위치 - 출퇴근시간 - 근로시간 - 급여형태 - 복리후생 제공여부 및 혜택여부 - 4대 보험 제공여부 및 혜택여부 - 유급휴가 일수 및 실 사용일수
남편용	구직경로	- 구직경로 및 기간
	일 만족도	- 교육 수준 및 기술수준 일치도 - 업무 유용성 - 좋은 일자리 - 좋은 일자리 예상임금 - 일만족도- 임금, 안정성, 내용, 환경, 근로시간, 발전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복리후생, 전반적 만족도
	교육 및 훈련	- 직업훈련경험, 목적, 장소, 목적달성 여부 - 교육훈련 이수 이유 - 자격증보유여부, 종류 및 취득시점
	사회보험	- 연금가입여부 - 사회보험 가입여부 - 사회보험 수급여부 - 사회보험 수급기간 - 사회보험 수급방식 - 사회보험 1회 수급액
	모성보호제도	- 모성보호제도 인지여부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부성휴가 시행여부
	개인자산	- 자산소득액수 - 자산형태 - 정기적 자산소득액
	개인특성/건강/여가	- 출생지 - 14세 전후 거주지 - 건강상태 - 삶에서 중요한 문제

〈부표 1-8〉 계속

구분	분류	세부분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가시간 및 충분 여부</li> <li>- 여가활동 빈도- 취미 및 여흥, 학습 및 자기개발, 친교, 사회참여 및 자원봉사, 종교</li> </ul>
	미래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5세 이후 거주형태, 주된활동, 생계방법</li> <li>- 노후에 자녀와 동거 희망 여부 및 희망자녀</li> </ul>



〈부표 1-9〉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주요 설문문항, 2006년 기준

구분	분류	세부문항
	커버스크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패널대상자 유무확인</li> <li>- 가구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자의 성명, 성별, 출생년도, 결혼상태</li> <li>※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에 대해 동일 문항을 질문</li> </ul> </li> <li>- 가구원 동거여부 및 정보(연령, 성별, 응답자와의 관계)</li> <li>- 응답가능한 가구원 명단 확보</li> <li>- 가구 총소득/자산 정보원</li> <li>- 커버스크린 완성 확인</li> <li>- 조사 부적격 가구 확인</li> </ul>
	인구학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자의 생년월일, 교육수준, 혼인상태</li> <li>- 배우자의 출생년도, 교육수준 등</li> <li>- 종교, 친구·친인척과의 친밀성</li> <li>- 사회단체활동 참여 여부 및 정도</li> </ul>
	가족 1 (자녀·손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존 자녀수</li> <li>- 자녀(손자녀)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혼인상태, 자녀유무, 지리적 거리, 접촉정도, 경제적 의존·지원 여부 및 정도</li> <li>- 손자녀수</li> <li>- 돌보는 손자녀여부, 돌봄시간</li> </ul>
	가족 2 (부모·형제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제·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제·자매수, 성명, 응답자와의 관계, 연령, 혼인상태</li> </ul> </li> <li>-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정보(성명, 학력, 생존여부, 연령, 근로활동, 주택여부, 사망년도, 사망시 연령)</li> <li>▪ 부모 동거여부</li> </ul> </li> <li>-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와의 동거여부</li> </ul> </li> <li>-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와의 근접성</li> <li>▪ 부모와의 접촉(대면, 연락)빈도</li> <li>▪ 부모에게 받는 경제적(금전적·비금전적) 도움</li> <li>▪ 부모에게 주는 경제적(금전적·비금전적) 도움</li> </ul> </li> <li>- 부모가 따로 사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자녀와의 동거여부</li> </ul> </li> <li>-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와의 근접성</li> <li>▪ 부모와의 접촉(대면, 연락)빈도</li> <li>▪ 부모에게 받는 경제적(금전적·비금전적) 도움</li> <li>▪ 부모에게 주는 경제적(금전적·비금전적) 도움</li> </ul> </li> </ul>

## 〈부표 1-9〉 계속

구분	분류	세부분항
	가족 2 (부모·형제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가족에게 받는 경제적(금전적·비금전적) 도움</li> <li>▪ 기타가족에게 주는 경제적(금전적·비금전적) 도움</li> </ul> </li> <li>- ADL/IADL 수발관련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DL이 어려운 사람</li> <li>▪ ADL 간병수발자</li> <li>▪ ADL 수발시간, 수발기간(주)</li> <li>▪ IADL이 어려운 사람</li> <li>▪ IADL 수발시간, 수발기간(주)</li> </ul> </li> </ul>
	건강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적 건강상태</li> <li>- 의사의 장애판정, 장애종류</li> <li>- 건강상태로 인한 활동(일) 제한</li> <li>-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암, 폐질환, 간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정신과적질환, 관절염 및 류마티스 질환) 진단 여부, 진단시기, 약복용, 치료활동, 일상활동 어려움</li> <li>- 교통사고 외상(사고 및 치료경험, 사고시기, 일상활동 어려움), 낙상 및 골절(낙상경험, 낙상횟수, 심각성여부, 골반부 골절상, 일상활동 어려움, 넘어짐에 따른 걱정 및 활동 제한)</li> <li>- 비뇨기관질환(전립선질환, 요실금) 진단여부, 진단시기, 약복용 및 치료활동, 일상활동 어려움</li> <li>- 안과질환(안경·콘택트렌즈 착용, 시력, 원시/근시, 백내장/녹내장, 일상활동 어려움), 청력(보청기사용, 청력, 일상활동 어려움), 치아상태(틀니착용, 저작기능)</li> <li>- 통증부위, 부위별 통증정도, 일상활동 어려움</li> <li>- 기타 질병 및 건강문제</li> <li>- 신체계측(체중, 신장)</li> </ul>
	건강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동(운동여부, 운동빈도, 운동시간, 규칙적 운동시간)</li> <li>▪ 영양(식사여부)</li> <li>▪ 흡연(흡연력, 현재 흡연여부, 흡연량, 흡연시작시점, 금연시점)</li> <li>▪ 음주(음주습관, 금주기간, 음주시작시점, 음주기간, 주류종류별 음주빈도 및 음주량, 음주에 대한 주위반응 및 심리상태)</li> </ul> </li> <li>- 우울증</li> </ul>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간병수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인 일상생활 능력(옷갈아입기, 세부/양치/머리감기, 목욕/샤워하기, 식사하기,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이용하기, 대소변 조절하기)</li> </ul>

〈부표 1-9〉 계속

구분	분류	세부분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구적 일상활동수행능력(몸단장하기, 집안일하기, 식사 준비하기,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하기, 교통수단이용하기, 물건사기, 금전관리하기, 전화걸고받기, 약 챙겨먹기)</li> <li>-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간병수발자(간병수발자 이름, 응답자와의 관계, 간병일수·시간, 간병비용지불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많은 도움을 많이 주는 간병수발자</li> <li>▪ 두 번째로 도움을 많이 주는 간병수발자</li> <li>▪ 세 번째로 도움을 많이 주는 간병수발자</li> <li>▪ 간병비용, 간병비용 지원자</li> </ul> </li> <li>- 미래에 가능한 간병수발자유무, 응답자와의 관계</li> </ul>
	의료보장과 시설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직장/지역), 의료급여(1·2종)</li> <li>▪ 건강보험료(부담자, 건강보험료, 체납여부, 체납기간)</li> <li>▪ 의료급여 종류(1·2종)</li> <li>▪ 민간의료보험(가입여부, 가입된 보험수, 보험료)</li> <li>▪ 건강검진(1·2차 무료건강검진, 기타 건강검진)</li> </ul> </li> <li>- 의료시설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원(횟수, 기관, 기간, 비용, 간병인, 간병일수 및 시간, 간병비용 지불액)</li> <li>▪ 치과(진료횟수, 지불비용)</li> <li>▪ 보건소, 한방병원, 기타 외래진료, 왕진(방문·진료횟수, 지불비용)</li> <li>▪ 처방약(정기적 처방약 복용, 처방약값 지불비용)</li> <li>▪ 기타 의료기구(구입, 지불 비용)</li> </ul> </li> </ul>
	인지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남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지남력(년/월/일, 요일, 계절)</li> <li>▪ 장소지남력(현재위치, 주소)</li> </ul> </li> <li>- 기억력 테스트/주위집중 및 계산(빨셈)</li> <li>- 소지품의 용도</li> <li>- 따라서 말하기(발음의 정확성)</li> <li>- 명령수행(종이접어 돌려주기, 눈감고 읽기, 쓰기, 그리기)</li> </ul>
	신체기능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력측정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른손/왼손잡이 여부, 측정수락여부</li> <li>▪ 안전성확인(수술 및 외상경험 확인, 측정시 아픈손), 악력측정 미시행 이유</li> </ul> </li> <li>- 악력 측정값(오른손/왼손)</li> <li>- 측정시 자세, 부축여부(면접원 확인사항)</li> </ul>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고용상태(노동여부, 주된 일자리, 노동제한 원인, 구직활동, 노동경험, 은퇴)</li> <li>- 사업장(사업체 이름, 소재지, 업종, 근로자수)</li> <li>- 취업시기</li> </ul>

## 〈부표 1-9〉 계속

구분	분류	세부분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일자리에 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의 종류, 직위/직책, 임명시기, 관리직원수</li> <li>▪ 고용형태(상용/임시/일용직)</li> <li>▪ 근로시간형태(전일제/시간제)/근로계약</li> <li>▪ 현재 직장에 대한 기대(노동지속가능성·기간)</li> <li>▪ 임금의 출처</li> <li>▪ 은퇴/퇴직(공식적 정년, 정년 연령, 관행적 퇴직 및 그 연령)</li> <li>▪ 근로시간, 근로일수</li> <li>▪ 근로시간에 대한 인식(근로소득·시간의 조정)</li> <li>▪ 정기휴무(정기휴무일의 지정, 유급 휴무일수/병가일수,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결근)</li> <li>▪ 임금결정방식/월 평균 임금액</li> </ul> </li> <li>-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법정퇴직금 제도)가입 및 복리후생(식비보조, 자녀학비보조, 주택자금 융자, 휴업보상비, 개인연금 보험료)</li> <li>- 노동조합</li> <li>- 일자리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li> <li>- 향후 희망일자리(고용형태, 직종, 임금/소득)</li> <li>- 은퇴계획</li> <li>- 부업 및 아르바이트(일자리수, 부업이유, 근로시간, 임금/소득)</li> </ul>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임금소득, 자영업 소득, 농업 소득, 부업소득)</li> <li>- 연금소득(국민연금소득, 특수직역연금소득, 개인연금소득)</li> <li>- 사회보장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조장소득여부 및 종류</li> <li>▪ 실업급여, 산재급여 및 보상금</li> <li>▪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일반/자활 급여)</li> <li>▪ 보훈연금급여</li> <li>▪ 사회복지수당 급여</li> </ul> </li> <li>- 기타 수입 및 소득</li> <li>- 지난 1년간 가구원의 총 소득</li> </ul>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주택(소유형태, 자가, 전세, 월세)</li> <li>- 거주주택 외 부동산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소유, 임대/임차)</li> <li>▪ 사업체/농장</li> </ul> </li> <li>-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자산(현금 및 은행예금, 저축성예금, 주식/투신/뮤추얼펀드, 채권)</li> <li>▪ 보험(정기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li> </ul> </li> </ul>

## 〈부표 1-9〉 계속

구분	분류	세부분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빌려준 돈, 껌돈, 기타 금융자산</li> <li>- 기타자산(운송수단, 기타 비 금융자산)</li> <li>- 상속/증여, 부채, 가구원 자산</li> </ul>
	주관적 기대감 및 삶의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적 기대감</li> <li>▪ 경제적 상황(유산증여, 유산상속, 예상 근로기간, 앞으로의 근로활동)에 대한 주관적 판단</li> <li>▪ 연령별 기대수명</li> <li>▪ 생활수준 및 정부에 대한 기대감(앞으로의 생활수준, 국민연금, 자녀들의 사회·경제적 수준, 노후보장, 남북통일, 경기불황, 부동산 시장 안정, 소비성향)</li> <li>- 삶의 만족도(건강상태, 경제상태, 배우자·자녀와의 관계, 상대적인 삶의 질)</li> </ul>

〈부표 1-10〉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주요 설문문항, 2006년 기준

구분	분류	세부문항
가구용	가구의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연령, 학력, 가구주와의 관계 - 배우자 유무, 동거여부
	주거상황	- 주택의 형태, 소유형태, 현재시가
	지출과 소득	- 가구지출 ▪ 식비, 주거비, 의료비, 교통통신비, 문화생활비, 보건의료비, 내구재 구입비, 자녀교육비, 기타소비, 비소비지출 - 기타 가구의 가구 소득 ▪ 취업여부, 주된일자리, 근로소득, 부업소득 - 기타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 ▪ 국가 지급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
가구용	세대의 소득	- 근로소득 ▪ 근로소득여부 및 총계, 봉급/보너스 소득, 농림어업 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 금융소득 ▪ 예적금 이자/국공채권의 이자, 주식등의 배당금, 주식매매 이익, 사적으로 빌려 준 돈에 대한 이자 - 부동산소득 ▪ 집세, 각종임대료, 부동산 매매 이익, 권리금, 기타 부동산 소득 - 사회보장급여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훈연금,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장애인수당 - 현금지원금 및 현물지원금수령 ▪ 동거가족지원금, 비동거가족 지원금, 친인척지원금, 이혼전 배우자 지원금, 사회/종교단체 지원금, 기타 - 현금지원금 및 현물지원금 제공 ▪ 동거가족지원금, 비동거가족 지원금, 친인척지원금, 이혼전 배우자 지원금, 사회/종교단체 지원금, 기타 지원금 - 종업원퇴직보험 및 개인연금등의 정기적 수입 ▪ 종업원퇴직보험, 개인연금보험 및 개인연금 저축, 기타 정기적 수입 - 기타소득: 보험금, 퇴직금, 증여나 상속, 기타 소득 - 저축 ▪ 은행등 예적금 저축, 적립식펀드 납부금, 개인연금저축 및 저축성 보험료, 보험기관 총 납부보험료, 기타계납입금 등 저축, 저축목적

## 〈부표 1-10〉 계속

구분	분류	세부분항
세대용	세대의 보유자산 및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주택, 임차주택, 사업체, 기타부동산</li> </ul> </li> <li>-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등 금융기관 예적금, 개인연금 총불입액, 보험, 저축, 신탁, 주식우리스주포함/주식형 적립펀드, 회사채, 국공채등 유가증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아직타지 않은 계돈등, 기타 금융자산</li> </ul> </li> <li>- 기타자산의 가치 총액</li> <li>- 주채 잔액</li> </ul>
	상속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증여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가조부모/부모, 사망한 전배우자, 기타</li> </ul> </li> <li>- 상속/증여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전부, 대상자, 유산제공 중요도 등</li> </ul> </li> </ul>
	가족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관계</li> <li>- 자녀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존자녀, 경제적 도움자녀, 손자녀, 손자녀 육아등</li> </ul> </li> <li>- 부모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존부모, 건강상태, 경제상태, 동거여부, 간병여부등</li> </ul> </li> </ul>
개인용	근로활동유형판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근로 및 소득활동 여부</li> <li>- 개인의 주된 일자리</li> </ul>
	직장근로자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종사하는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된 사업내용, 하는 일, 종업원수, 고용형태, 종사상 지위, 근무시간형태, 근무기간, 월평균소득</li> </ul> </li> <li>- 현재 일자리 직전의 근로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 일자리, 주된 사업내용, 했던 일, 근무기간, 중단이유, 1년 평균 근로개월수, 월평균소득, 퇴직금</li> </ul> </li> <li>- 현재 일자리의 사회보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건강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li> </ul> </li> <li>- 현재 일자리의 퇴직금 제도 및 정년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금수령, 중간정산, 수령가능액, 사용처, 정년적용여부 및 정년년도</li> </ul> </li> </ul>
	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종사하는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된 사업내용, 하는 일, 사업특성, 전체 종업원수, 사업기간, 월평균소득</li> </ul> </li> <li>- 현재 일자리 직전의 근로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경험, 주된 사업내용, 했던 일, 근무기간, 중단이유, 1년 평균 근로개월수, 월평균소득, 퇴직금</li> </ul> </li> <li>- 현재 일자리의 사회보험</li> </ul>

## 〈부표 1-10〉 계속

구분	분류	세부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료보험</li> </ul>
	비취업자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1년이상 근로 및 소득활동 경험여부</li> <li>- 근로 및 소득활동 마지막 년도</li> <li>- 마지막 직장 근로경력</li> <li>▪ 마지막 일자리, 주된 사업내용, 했던 일, 종업원수, 고용형태, 종사상 직위, 근무형태, 근무기간, 퇴직이유, 월평균소득, 퇴직금</li> <li>- 마지막 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 일자리 근로경력</li> <li>▪ 주된 사업내용, 했던 일, 사업특성, 전체 종업원수, 사업기간, 월평균소득</li> <li>- 마지막 일자리 이전 근로경력</li> <li>▪ 경험여부, 주된 사업내용, 했던 일, 근로기간, 퇴직이유, 월평균 소득, 퇴직금</li> <li>- 현재연금 등 사회보험</li> <li>▪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청구 및 월부담액, 의료보험</li> <li>- 현재 구직활동</li> <li>▪ 구직활동여부, 이유, 일자리 유형, 고용형태, 기대소득</li> </ul>
개인용	건강, 은퇴 및 노후설계 공통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li> <li>▪ 삶의 여건 만족도, 육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 만성질환이나 장애</li> <li>- 은퇴여부 및 은퇴태도</li> <li>▪ 최근10년간 근로 경험여부 및 은퇴유형, 은퇴시기, 향후 예상 은퇴 시기, 완전 은퇴 및 부분 은퇴 자발전 은퇴여부, 은퇴당시 상황, 은퇴결정원인, 은퇴의 나쁜점 및 좋은점 경험정도, 은퇴후 생활 만족도</li> <li>- 노후준비 및 노후보장 상태]</li> <li>▪ 지출 및 저축 고려기간, 기대수명, 공적연금 개정방향, 노후생활비, 국가운영 공적연금 가입 및 수령, 민간금융 개인연금 가입 및 수령, 종업원 퇴직보험, 노후준비 연금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 간병보험</li> </ul>



연구보고서 2006-22-5

---

---

인구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Study on National Population Dynamics Panel(NPDP)

---

---

발행일	2006년 12월 일	값 7,000 원
저 자	이 삼 식 외	
발행인	김 용 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 (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a href="http://www.kihasa.re.kr">http://www.kihasa.re.kr</a>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동원문화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

ISBN 978-89-8187-422-3 93330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저서>

『5개년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1차)』, 저출산고령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공저)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공저)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인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정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